건축사 542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06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건축물
사람에 대한 배려
해외건축동향 일본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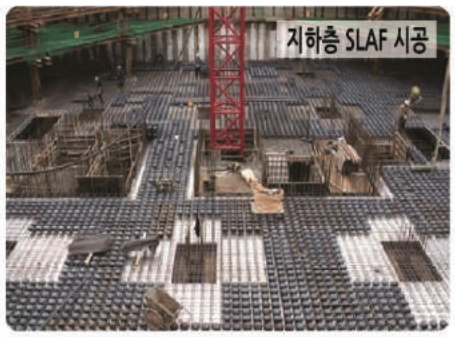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SLAF 공법 지하층 및 지상층 모두 적용 가능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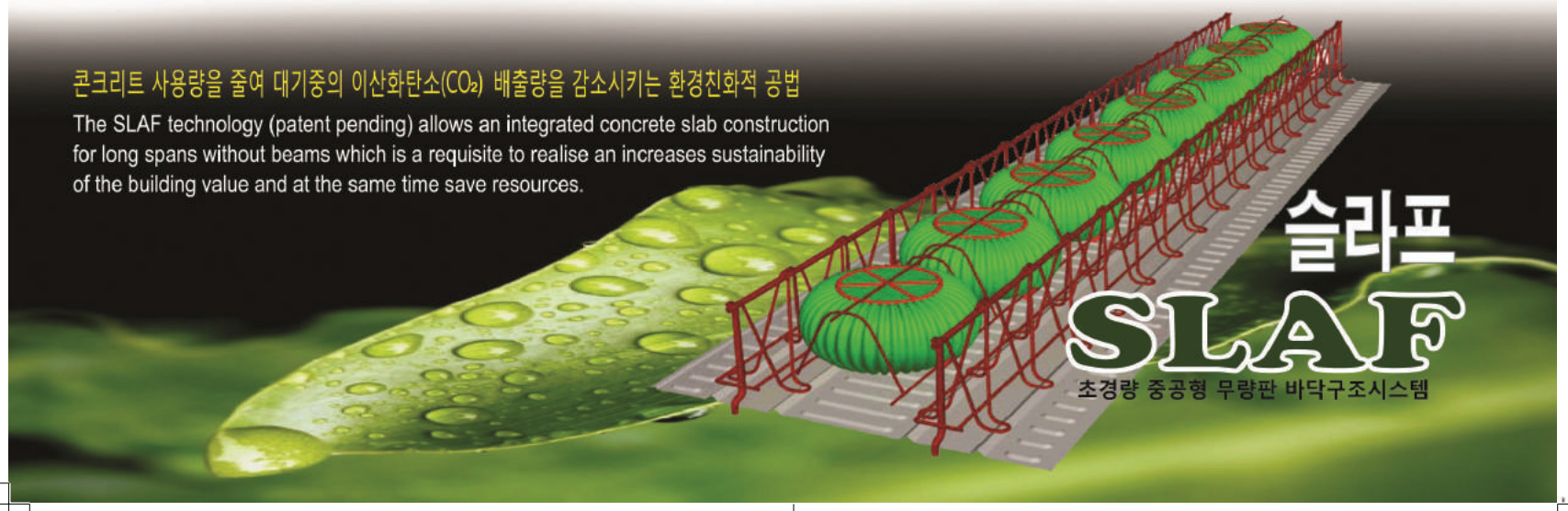
[기존 건물] [SLAF 건물]

SLAF 공법 층간소음(경량 및 중량) 차단성능 탁월

SLAF 공법 내화성능(2시간내화) 만족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설계(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 세움터인증, 현장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부산사무소 :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20번길 58-14　TEL : 051)316-4488

■ 본사 및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CREATING A CULTURAL DEPOT FROM AN OIL TANK DEPOT

석유비축기지로부터 문화비축기지 만들기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REHABILITATING MAPO OIL DEPOT INTO A CULTURAL DEPOT PARK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Registration Begins : May 20, 2014
Submission Deadline : August 12, 2014
OPEN TO ALL LICENCED ARCHITECTS AND OTHER PROFESSIONALS

1st Prize : KRW 1.59 Bil.
2nd Prize : KRW 50 Mil.
3rd Prize : KRW 20 Mil.

www.mapodepot.or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REA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국토해양부 고시 에너지 효율 **열관류율 2.1 w/m², k** **기밀성 1등급** 기자재 전문 생산업체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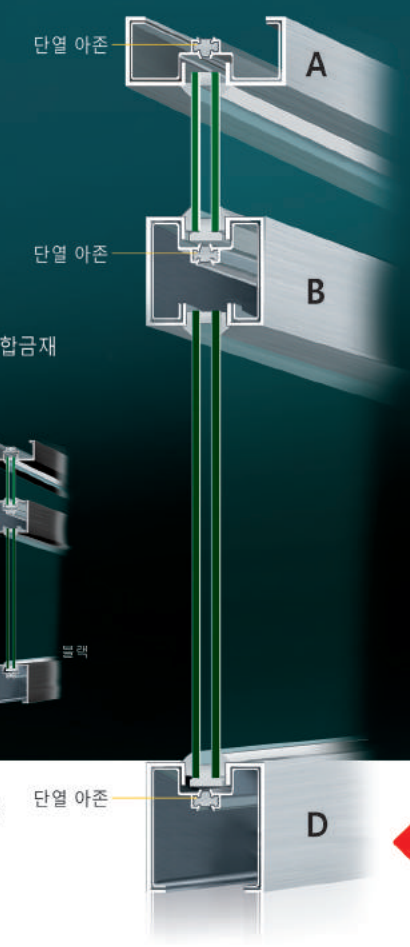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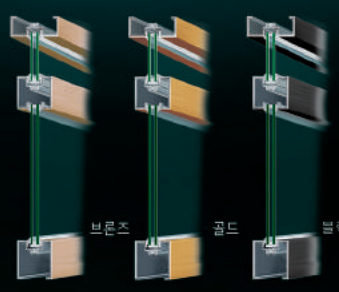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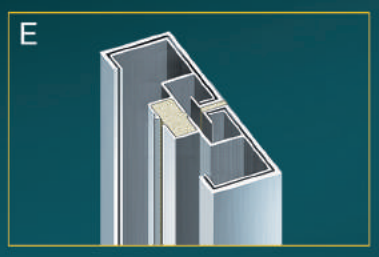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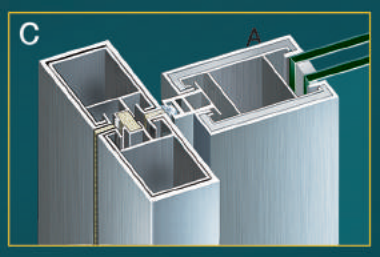
▶ 상세도면 :
홈페이지 캐드 다운로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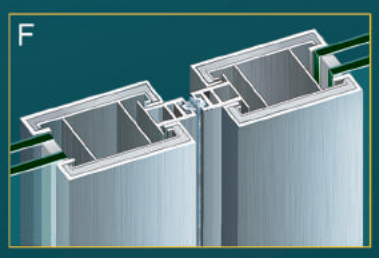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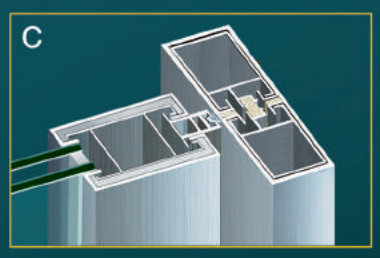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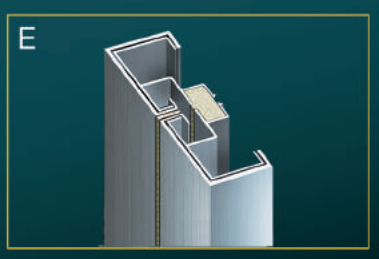
*100 x 45 x 2.4T BAR 프레임
*120 x 45 x 2.4T BAR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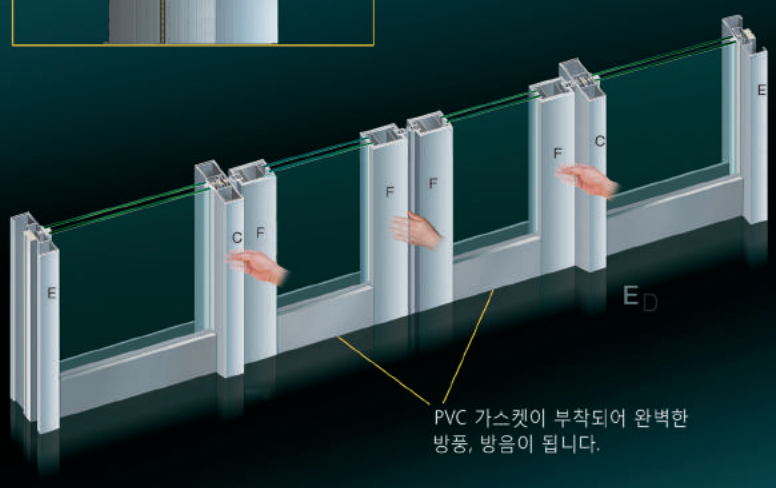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사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26길 11 (읍내동)
TEL : (053)325-9800/325-9801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10년 후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4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십시오."

최저 인승

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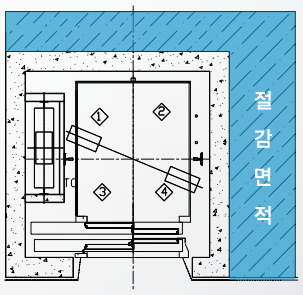
200년 전통의 티센크루프

전격 출시 & 독점 공급

시너지 4인승 엘리베이터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의 98%는 8인승 이상.

"승강기 꼭 클 필요있나요?"



8인승 vs 4인승(side open)
승강로 면적비교

최소 승강로 사이즈 구현
외벽포함 2.89m²=0.87평 | W1400 X D1400mm (내경)

독일 로프/권상기 기본 채용

차별화된 고급 패키지 디자인
2013 굿디자인 최우수상 등 5관왕

작은 투자가 귀하의 건축물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공간, 비용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망설이십니까?

설치사례

근린생활시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1-3층은 상가, 사무실이 있고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
- 좁은 공간을 활용해 4인승 시너지 설치
- 최고층 접근성 향상

도시형생활주택 (경기도 광주시)
- 분양면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승강기 설치를 망설인 현장
- 최소 승강로 사이즈의 4인승 시너지 설치
-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편리한 이동 동시에 보장

모텔 (경기도 이천시)
- 모텔을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한 사례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4인승 시너지 엘리베이터 설치

www.thyssenkrupp-elevator.co.kr
문의 : 02) 2610 - 7698, 7741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ThyssenKru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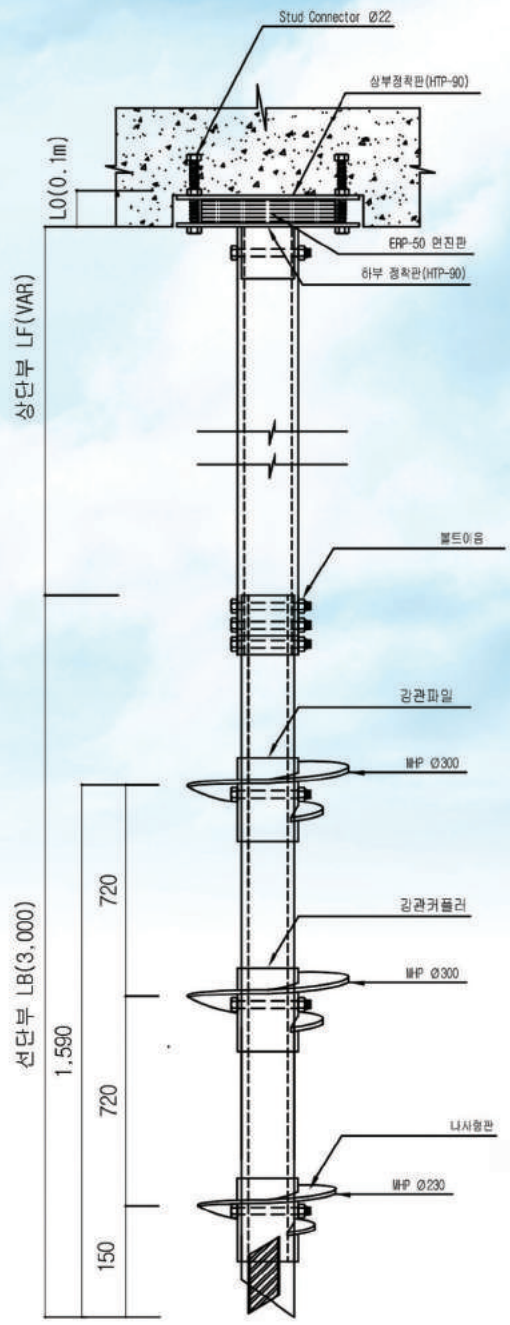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나선형강관파일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설계 · 시공 전문업체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 천 제 품



▶ 공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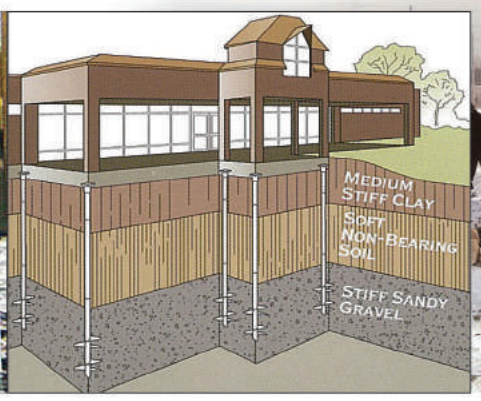
나선형강관파일(MHP공법)은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기초로서 고강도 특수강관 하부에 나선형판을 장착하여, 특수장비로 회전시켜 설계 깊이까지 박은 후 파일주변을 그라우팅하는 형식으로 연약지반에서 지지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파일공법이다.
그리고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나선형강관파일 기초상부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여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 공법의 특징

1. **내진성능**
   기초 상부에 면진장치가 부착되어 내진성능이 우수하다.
2. **안정성**
   나선형강관파일을 회전 관입하고 2차로 기초파일 주변을 그라우팅하여 마찰 지지력이 높게 형성된다.
3. **공기단축**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4. **친환경적**
   무소음, 무진동으로 비토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5. **시공성**
   수중 및 경사지에서 다양한 각도로 파일시공이 가능하다.
6. **경제성**
   공장제작으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비가 경제적이다.

▶ 공법의 적용

1. 건물신축 기초파일
2. 공장 및 플랜트시설 기초파일
3. 해양구조물 기초파일
4. 기울어진 건물 복원 기초보강
5. 옹벽, 흙막이 구조물 앵커파일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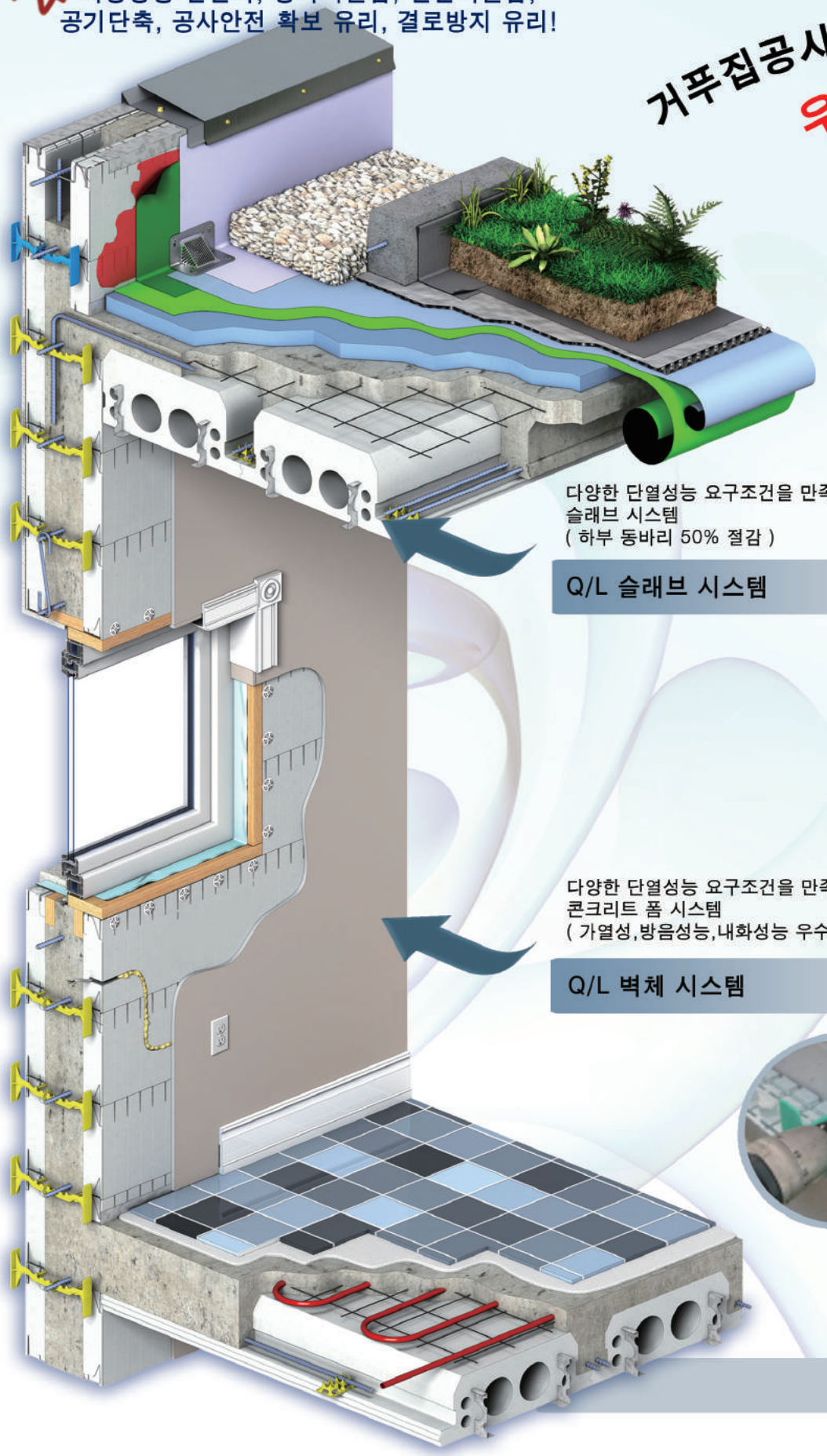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드파이브웍스동 A-610호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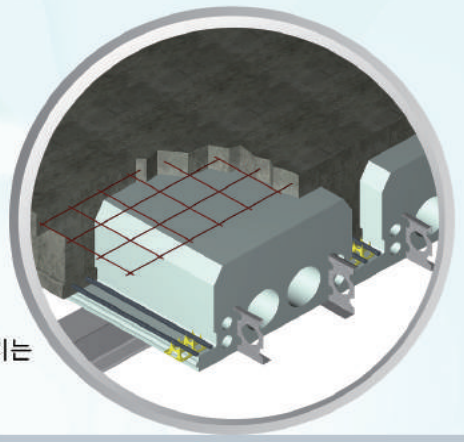
Q/L BUILDING SYSTEMS

Q/L 건축구조 시스템

시공공정 단순화, 공사비절감, 인건비절감,
공기단축, 공사안전 확보 유리, 결로방지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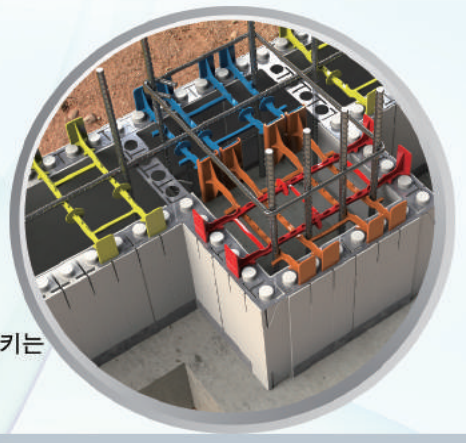


거푸집공사와 단열공사를 한번에!
우수한 시공성에 경제성까지
Quality Level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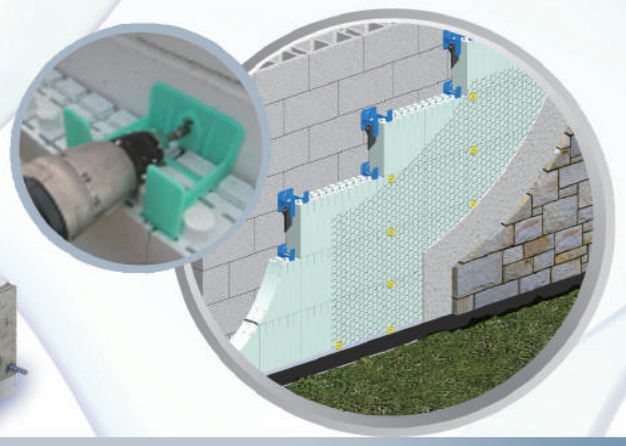
다양한 단열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슬래브 시스템
(하부 동바리 50% 절감)

Q/L 슬래브 시스템



다양한 단열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콘크리트 폼 시스템
(가열성,방음성능,내화성능 우수)

Q/L 벽체 시스템



Q/L 단열보강 시스템

단열성능이 부족한 구조체에 다양한 단열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열보강시스템

우경건설(주) website : http://www.wkcos.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월드비터빌딩 6층 * 제품 및 기술 문의 : 031) 710-9245

QUAD-LOCK®

21세기 건축물 외장재
신개념 PANEL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방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URO-ZINC PANEL (디자인등록 제30-0658085 / 유사1 / 유사2)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증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특허 제10-1219639호)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246번길 7(오류동 438-84)
공장 :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95번길 108(석정리 32-1)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ISO 9001 CE KAA 아토피 안심마크

불에 타지 않는
천연 세리사이트 페인트

Natural Power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꿈의 페인트

- 세리사이트는 실내공기 중 습기와 반응하여 마이너스 이온을 방출하며, 상기 마이너스 이온은 공기중에 분포된 양이온을 끌여 당겨 결합하여 산소를 생성한다.
- 세계 최초 공기정화 페인트 (산소발생)
- 국내 및 일본, 독일 특허 제품
- 방염도료 형식승인 제품

WP-101 | WP-102 | WP-104 | WP-106 | WP-110 | WP-111 | WP-111 | WP-500 | WP-501 | WP-504

천연 세리사이트 벽지

- 음이온/원적외선 방출, 결로방지, 실내공기정화, 산소발생, 습도조절, 두뇌발달, 탈취기능, 에너지절감효과,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예방

DONG YANG E&P
(주)동양이앤피
본사 : 충남 서산시 해미면 관터로 148-90
tel : **041-688-9971** fax : 041-688-9970
e-mail : dyep@hanmail.net website : **www.dyep.co.kr**
서울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1338-1 tel : 031-262-8139
동경사무소 : 일본 도쿄 미나토구 토라노몬 1-5-16 반스이빌딩 2층
tel : +81-3-3503-5889 fax : +81-3-5501-3234

아리랑TV 세리사이트 천연페인트 방송

천안 백석동 아파트

KBS2 열정시대 세리사이트 천연페인트 방송

충남 해미어린이집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특허 : 제 10-2011-0139926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특허 : 제 10-1175115호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누수 10년 보증** (타사 2년 보증)
(태양광설비 최적 설치시공성 제공)

www.sypanel.com
에스와이패널(주)

기술영업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7길 5 효제빌딩 301호
TEL. 02)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세류동) 리치타워 7층 TEL. 1588-0680 / FAX. 031)221-5458

KIRA Magazine
2014 June
no.542

Contents

COLUMN 편집인 칼럼

017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ESSAY 에세이

018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건축물**
Drama, Movie and Architecture
유영은

020 **사람에 대한 배려**
Consideration to the Man
김수경

TRAVEL SKETCH 여행스케치

023 이관직

OVERSEAS NEWS REVIEW 해외건축동향

024 **책을 읽는 공간에서 시간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 도시관 개념의 재정의**
Redefining the Concept of 'library': From Space for Reading to Space for Spending Time
송준환

WORKS 회원작품

026 **분당 51.1 주택**
Bundang 51.1 House
신춘규_KIRA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034 **수용빌딩**
Suyong Building
변문수_KIRA | 무운 건축사사무소㈜

040 **계룡건설 사옥**
KyeRyong Headquarter Office
이의구, 이종건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046 **노량진 신성교회**
Noryangjin Sinseong Church
여세헌_KIRA | ㈜고려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050 **진송메탈 사옥 및 공장**
Jinsong Metal Company Building & Factory
김성곤_KIRA | 성 종합건축사사무소

COMPETITION 설계경기

054 **동탄2신도시 초9 학교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Dongtan 2 New City Elementary School 9 Block Resident Complex Center

058 **충청남도건축사회 회관**
The KIRA Chungnam A Chap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Office Building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책 속을 거닐다

061 **사소한 일상의 정석,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Trifling Everyday's Formulas, What are Yours?
변지혜

KOREAN ARCHITECTS
건축사

READING LOVE LETTER 연애편지를 읽다–열 두번째이야기

062 **당신을 실제로 팔에 안을 수 없다는 것이 자주 고통스러워요. 넬슨, 나의 남편, 나의 연인**
I am Often in Anguish, for I Can Not Actually Embrace you in My Arms. Nelson, My Hus, My Dear
정이숙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과 법률이야기

064 **일조방해**
Blocking Sunlight
김재환

SERIAL Ⅰ 연재 Ⅰ / 건축과 미술(1/6)

066 **리차드 세라**
Richard Serra
전영백

SERIAL Ⅱ 연재 Ⅱ / 건축과 삶(6/6)

072 **어떤 거리는 왜 더 걷고 싶은가?**
Why do We Prefer to Walk Down On a Certain Street?
유현준

SERIAL Ⅲ 연재 Ⅲ / 라이트 vs. 미스(3/4)

076 **미스 인 베를린_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빌라 투겐타트**
Mies in Berlin_ Barcelona Pavilion and Villa Tugendhat
천장환

FEATURE 기고

084 **2014년도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컨벤션 참관 기행**
An Observation Report in 2014 Association of Lao Architects and Civil Engineering(ALACE) Convention
김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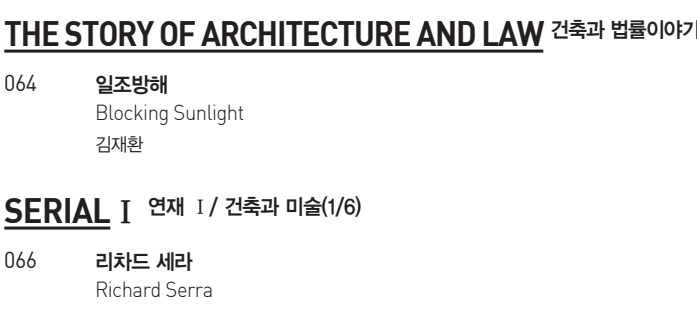
ARCHITECT'S PLAZA 건축마당

088 **타임머신_1973** 되돌아 본 건축士 · 건축史_ 최락청

090 **협회소식** Kira News

092 **건축계소식** Archi-Net

094 **통계** Statistics



표지사진 :
이종건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사진_ 채수옥

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4년 6월호(통권 542호)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재 · 편집 최락청, 백상월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건축사회관
전화 02-3415-6800
팩스 02-3415-6850
홈페이지 www.kira.or.kr
디자인 · 인쇄 화신문화㈜ 02-2277-0624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늘 새로워지기 위하여

2014년 여섯 번째 건축사지입니다.
어느새 올해 몫의 절반이 책으로 나온 셈입니다. 지난 반 년, 건축사지는 새로운 필자를 발굴하고 볼만한 기획을 하고, 유익한 연재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호에도 새로운 연재와 코너 두 가지가 선을 보입니다.

첫째, 『건축과 미술』이라는 테마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전영백 교수의 연재가 새로 시작됩니다. 현재 홍대 현대미술관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백 교수의 건축과 미술에 대한 흥미진진한 글은 여섯 번에 걸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건축동향 코너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홍콩 현지에서 건축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현지 특파원으로 모셨습니다. 이번 달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의 생생한 건축 동향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유현준 교수의 『건축과 삶』 연재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지난 6개월 건축과 삶에 대한 신선한 통찰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구시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과 시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바른 일을 할 사람인지, 실현 가능성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선거 때보다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잘못 뽑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담한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요.
웬만큼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좋은 후보를 고르기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된 후보들 중 40%가 전과자라고 밝혀졌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만 해도 61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명이 전과자입니다. 도박,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폭력 등 범죄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전과 10범 이상의 후보도 14명이나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왔고 성실한 공약을 약속하는 참된 일꾼을 혜안으로 가려내어 투표하시리라 믿습니다.

한여름 폭염 못지 않은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좋은 작품과 원고를 실어 회원들께 전해 드리려는 저희들의 노력도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뜨겁습니다. 이번 호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무더운 날, 잠시라도 시원한 여유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 **유영은**_ You, Young-eun
드라마 작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건축물

Drama, Movie and Architecture

"왜? 굳이… 이런 집을 남자주인공 집으로 정한 의도는 뭔가요?"
내가 준 대본을 본 제작사 대표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드라마 대본이 나오면 제작사 관계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본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이 사는 집과 직장, 그리고 배경이 되는 건축물은 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가 이번에 기획한 드라마 속 남자주인공의 집은 마당이 있는 전통한옥인데, 내부를 최첨단 현대식 아파트 구조라고 명시해서 제작사에서 당황한 모양이다.

"한옥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살았던 주인공의 지난 과거와 추억을 뜻하고, 폐허가 된 한옥을 아파트 구조로 리모델링해서 사는 주인공의 심리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추락시킨 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젊은 주인공의 현대식 감각이다!"라고 왜 굳이 남자주인공 집이 현대식 한옥이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각종 건축물은 작가의 치밀한 계산 아래 그려지고 등장한다. 주인공이 어떤 집에 사는지만 보여줘도 이미 관객과 시청자는 주인공의 생활적인 배경, 재정 상태의 정보를 알게 된다.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공이 작고 초라한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가난 속에서 꿈과 사랑을 이루고, 잘 살게 되는 얘기구나!' 짐작을 할 것이고, 만약 그런 아파트에 사는 주인공이 멋진 페라리를 타고 나타난다면 '저 인간 뭐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렇게 건물만 가지고도 작가와 시청자는 서로 소통을 한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오래 전 고려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촉박한 시간과 제작비 절감을 위해 조선시대 궁궐에서 촬영해 방송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이 방송국 게시판에 불만의 글을 올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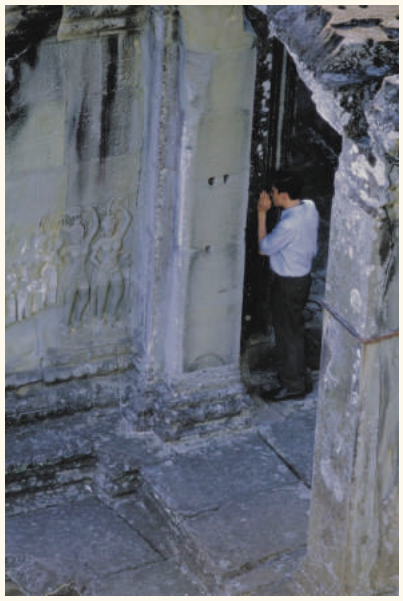
건축물은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 감독들한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해 준다.

영화 〈화양연화〉의 왕가위 감독은 12세기경에 만들어진 건축물 앙코르와트까지 주인공 차우(양조위)를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리첸(장만옥)과의 비밀스런 사랑을 그곳 벽 구멍에 대고 말하게 한 뒤 풀잎으로 메우게 한다. 중요한 장면의 장소가 왜 하필이면 앙코르와트의 벽이었냐는 기자 질문에, 왕가위 감독은 "시대가 없는 곳이란 점, 그리고 시간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곳이어서 좋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영원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때때로 작가와 감독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만 남은 건축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정조 암살사건을 다룬 영화 〈역린〉의 주요 장소인 존현각은 옛 궁궐지도에만 존재하는 소실된 경희궁 건물이다. 이재규 감독은 이에 대해 "평생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정조는 침전을 지키는 수많

〈자체발광 그녀〉 드라마 작가


영화 〈화양연화〉 속 앙코르와트

은 환관과 나인들을 다 믿지 못했고, 책을 읽으며 밤을 새우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존현각은 정조의 불안한 내면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라고 했다.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의,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던 존현각이란 건물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와 배경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감독은 수많은 고뇌의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존현각 건물을 만든 스탭들 또한 온갖 고생을 했을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건축물들은 이야기를 극대화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어느 기업의 연수원인,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남자주인공(현 빈) 집과 정원이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는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집과 정원을 생각하고 촬영장소를 선택한 작가의 뛰어난 안목이 만들어낸 결과다. 작가들은 장소섭외부장이 사진으로 찍어 온, 드라마 배경이 되는 중요한 건축물들을 꼭 체크한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한다. 통상 섭외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이 대본을 들고 다니며 작가와 감독이 원하는 건축물과 장소를 구하느라 고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게 일하기를 원한다.

대본에 따라 나지막한 지붕에 호박이 있는 시골 집, 세월의 흔적이 있는 작은 커피숍,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의 성당, 현대식의 웅장한 빌딩, 다 쓰러져가는 폐가까지… 작가는 대본에서 말 없는 중요한 대사이기도 한 건축물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건축물이길 바란다.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작가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드라마 〈시크릿가든〉 속 마임비전빌리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속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얼마 전에 구상 중인 드라마 속 배경이 될 경주로 여행을 갔다. 내비게이션도 안 통하는 심각한 길치라 어쩔 수 없이 투어를 신청해 모르는 사람들과 관광지를 둘러보았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에 관한 가이드의 말을 듣던 나는, '감은사 건축물 잔해를 보고 문득 동해 바닷물을 감은사까지 끌어와 공사를 하던 백제에서 잡혀온 남자주인공과, 불공을 드리러 왔던 신라 공주가 우연한 사건으로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졌다면?'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석탑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뭔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나를, 그날 동행했던 사람들은 분명 이상한 여자로 봤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작가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그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해 본다. 설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무 건물을 보고 영감이 떠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인터넷 기사에서 뽑은 새로 지은 도서관 건축물 사진이 있다. 나선형의 계단이 각 층으로 쭉 올라가고 전경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창이 멋진 건물이다. 난 또 다시 그 도서관 건물을 설계한 여자 건축사와 젊은 맹인 남자의 인연을 그려본다. 이 세상 모든 건축물은, 나에게는 소중한 보물 창고다.

글. **김수경**_ Kim, Soo-gyung, KIRA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사람에 대한 배려

Consideration to the Man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큐빅디자인연구소에서 잠깐 인테리어를 접한 후, 그 후로는 (주)광장건축과 (주)아키플랜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건축사를 취득한 후, 1년여 간 런던에 머물면서 유럽을 여행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엘엔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공부(孔府)의 마구간에 불이 났다. 퇴청한 공자가 물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인자애인(仁者愛人) 유례자경인(有禮者敬人)'(어진 사람은 타인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예의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중한다)은 공자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마구간에 불이 났는데, 말에 대해 묻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물은 그의 행동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심성이란 어떠한 것인지, 오늘날에도 큰 감동을 주는 일화다.

타인을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배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티일 듯하다. 불과 얼마 전 우리를 아프게 했던 대참사는, 어쩌면 '인간애'가 빠진 경제발전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만 여긴 지난 세월의 아픔인지 모르겠다.

인터넷에 떠도는 중상층 기준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퐁피두 통령이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며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5.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것이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옥스포드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1.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는 것 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것 5.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에 대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1. 부채 없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하고 2. 월급 500만원 이상이고 3.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며 4. 예금잔고를 1억원 이상 보유하고 5.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어디 항목에서도 사람에 대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돈의 가치가 최고의 목표일뿐인 채로 살아왔고, 지금도 이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배고팠던 시절에는 일단 굶주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상관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맛과 미를 즐겨가며 맛집을 찾아 떠나는 시대임에도 기본 철학이 변함없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초고속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 이면에 인간애가 빠진 물질지상주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참사가 없으리란 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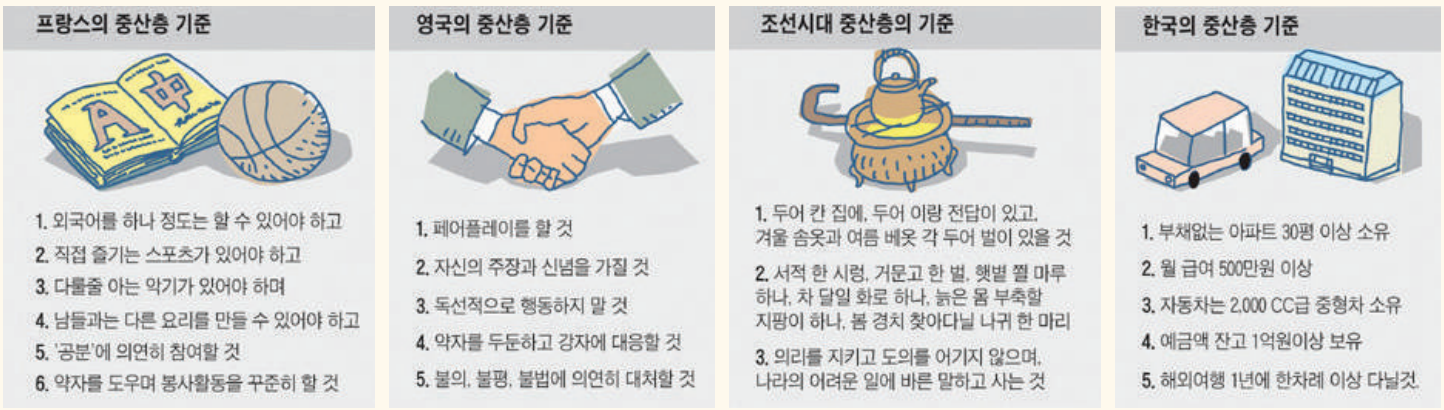
북송의 명장 '장 영'이라는 사람은 사부상서를 지낸 사람이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

아오니 후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호위병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러자 호위병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환으로 누워계시고, 형은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으나 소식을 모릅니다.” 호위병의 집에 사람을 보내 그의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장 영은 다음 날 시종을 보내 그의 어머니를 간병하도록 했다.

주위 사람들이 졸고 있는 호위병을 나무라지 않고 집안의 안부를 물은 이유에 대해 장 영에게 물으니 “누가 감히 내 후당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그 호위병이 잠을 청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유를 물었던 것이다.”

위 실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의 극치를 보여준다. 자식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아내 또는 남편을 대할 때도, 보이는 것 이면의 다른 면을 볼 줄 아는 배려나 해안은 인간의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현대사회에서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 우리들은 쉼 없이 이야기하고 아쉬워하고 정치인들의 모든 공약들은 소통을 잘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하지만, 정직하기 위한 기본 바탕은 사람에 대한 인간애와 배려다. 인간애와 배려가 없이 어찌 정직할 수 있겠는가?

사건과 사고가 유난히 많은 갑오년. 무언가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공약보다는 각자 개개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지키기만 해도 세상의 반은 바뀔 것이다. 경계를 지키기 위한 기본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이 과정의 기본은 나를 사랑하는 동력에서 남을 이해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배려가 생길 것이다. 해방 이후 긴 시간, 근대화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이라도 찾아 나서야겠다. 사람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전제 하에, 우리 각자는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 단 하나의 사람이니까…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안내

- 최근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우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 · 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 · 도건축사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4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 · 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또는 월정회비) : 해당 시 · 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 · 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월정회비 : 6만원(매년)	

2. 회비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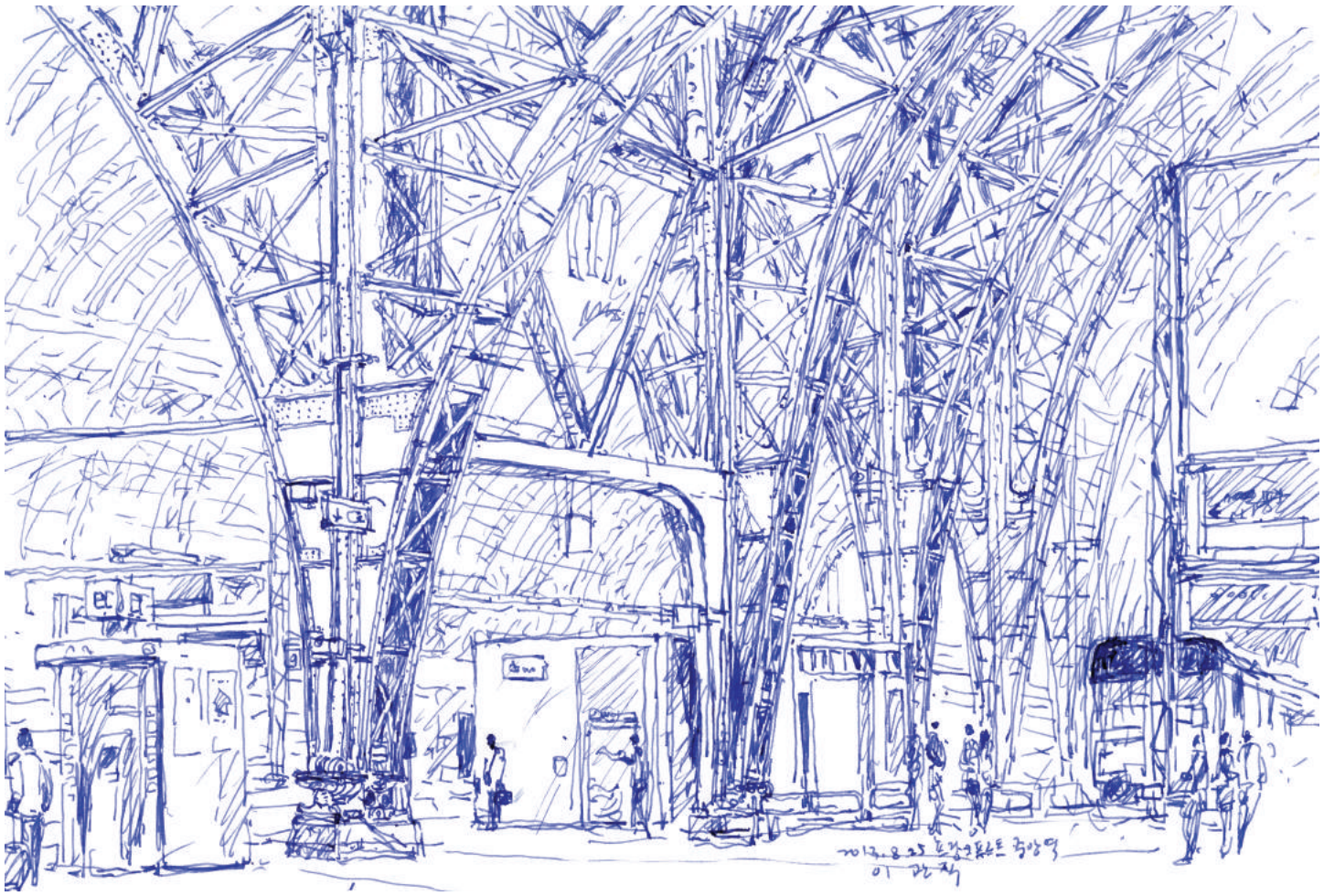
–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 발전사업자금

–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 본협회 및 시 · 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3415–6855	대 전	042–485–2813	485–2818	전 북	063–251–6040	251–6048
서 울	02–581–5715	523–2284	울 산	052–274–8836	268–8837	전 남	061–285–7563	285–7567
부 산	051–633–6677	634–2966	경 기	031–247–6129	242–7072	경 북	053–744–7800	751–8308
대 구	053–753–8980	756–9049	강 원	033–254–2442	255–2083	경 남	055–246–4530	245–4530
인 천	032–437–3381	437–3385	충 북	043–223–3084	223–3089	제 주	064–752–3248	756–3248
광 주	062–521–0025	528–0026	충 남	042–252–4088	252–518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도건축사회 또는 우리협회 실적관리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아치형 트러스로 지붕이 형성된 거대한 세 개의 궁륭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을 이루고 있는 3절점 철골 아치는 디테일이 섬세하다.
기하학적인 규칙으로 조립된 수많은 철제 앵글들이 오묘한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이룬다.

예센하이머탑에서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본다. 중세에 세워진 탑도 있고 금융도시로서 수십층의 유리 건물도 있다. 한창 공사하는 중인 곳도 있다. 거리는 고전과 근대, 개발과 일상이 뒤섞여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독일다운 여유가 보인다.

이관직 | Lee, Kwan-jick

- 고려대
- 건축문화대상(과천정보과학도서관)
- 서울시건축상(능동로텐에이빌딩)
- 농촌건축대전본상(공주주택) 수상
- 고려대학교,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건축사 / 비에스디자인건축 대표

글. **송준환**_ Song, Jun-hwan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책을 읽는 공간에서 시간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 도시관 개념의 재정의

Redefining the Concept of 'library': From Space for Reading to Space for Spending Time

성숙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건축물 스톡(Stock)의 과부하와 함께 현존 건축물을 어떻게 유효하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사(Architect)와 크리에이터(Creator)의 융합을 통해, 건축형태만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의 혼합을 통해, 건축물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 이슈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츠타야(蔦屋)서점인데, 츠타야는 1983년 3월24일, 오사카 히라카타시(枚方市)에 1호점이 생긴 이래,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편리하게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CD · DVD 렌탈서비스의 거점으로 성장하여, 1999년에는 동경의 젊음의 거점인 시부야에도 오픈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 등으로 츠타야 서점 또한 쇠퇴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에 크리에이터로서 이 문제를 담당한 컬처 · 컨비니언스 · 클럽(Culture Convenience Club, 이하 CCC)은 츠타야 서점에 새로운 도서관 개념을 도입시켜 건축디자인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예로, 동경 다이칸야마의 츠타야서점 & T-site와 타케오(武雄市) 시립도서관을 들 수 있다.

■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 내다_ CCC의 기획컨셉

CCC는 「사람들의 이해영역 밖의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조건」이라는 기조 아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 내부모습과 외부전경

2006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도일(渡日)하여 도쿄(東京)대학 공간계획연구실에서 2013년 도시디자인 매니지먼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학술진흥원(JSPS) 특별연구원(PD)을 거쳐, 현재 도쿄대학에서 특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카시와시(柏市) 상공회의소 및 마치즈쿠리 공사에서 지역마치즈쿠리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에 있다.

래, 비록 현재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미래의 트렌드로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발상을 추구하고 있다. 츠타야서점의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이 2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변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여 "세상에서 사람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환경=문화 인프라"라는 기본컨셉 아래, 단순히 물건을 사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는 장소로서 건축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있다.

■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읽어낸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과 T-site

다이칸야마는 건축사 마키 후미히코(槇文彦)의 힐사이드 테라스 단지가 위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 건물들과 어울리는 3개의 나지막한 건물이 배치되어, 연속하는 가로수와 수목들이 만들어내는 녹지 풍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높이의 변화와 함께 벽면의 입체적과 어울려 리듬감 있는 가로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공간은 책과 음악, 영화를 접촉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디자인한 컬처 · 컴플렉스라 할 수 있다. 서점 내부에 위치한 카페 또한 "집"과 같은 공간적 질감으로 디자인하여 일상의 시간을 여유 있게 즐기고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풍경이 또 다른 새로운 가치와 풍경을 키워내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창출되고 있다.

■ 시민의 가치를 창조하고, 시민생활의 장을 제안하는 타케오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의 관리주체가 민간기업으로 이양된 독특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본 도서관의 경우 2001년에 오픈하였으나, 이용객 감소 등 재정적 운영문제가 발생하였다. CCC는 다이칸야마의 츠타야서점 건축 콘텐츠디자인을 접한 관(官)의 위탁 의뢰를 받아들여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콘텐츠를 도입했다. 동시에 외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 의장을 다이칸야마 인테리어와 유사하게 나무를 주제로 한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후 2013년 4월에 츠타야서점으로 리뉴얼 오픈하면서 운영체제는 CCC로 변경되었고, 오픈 후 1개월 만에 방문객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는 'BOOK & CAFE'라고 불리는 책과 카페가 융합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차를 즐길 수 있고, 잡지와 신간 · CD와 DVD를 사거나 빌리는 것이 가능하며, 거치된 iPad를 통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셀프계산대 등 획기적인 IT시스템의 도입과 연중무휴 · 서비스시간 연장 등 고객가치서비스의 창출을 통해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한 계층의 융합과 가치 있는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이 프로젝트는 단순 인테리어 리뉴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이노베이션이고, 관과 민이 협동한 심도 있는 시민가치 향상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타케오 시립도서관 내부

분당 51.1 주택

Bundang 51.1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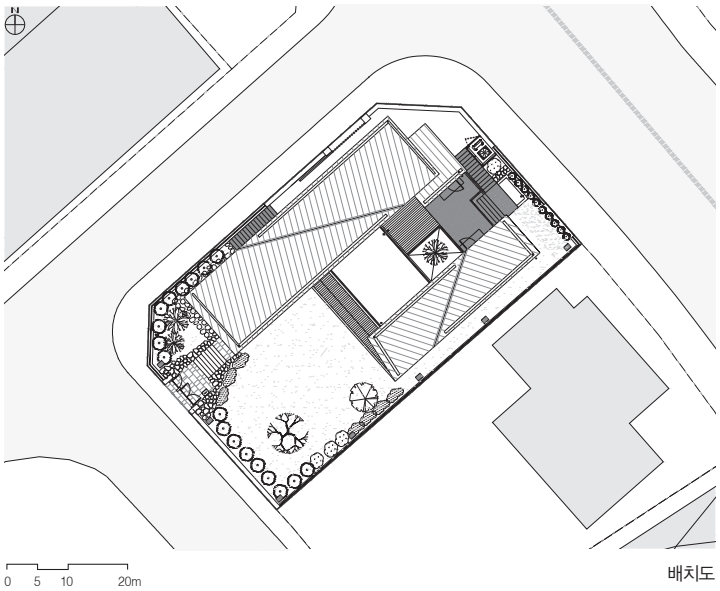
설계자 | 신춘규_KIRA/AIA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오하이오주립대학원에서 공학석사 및 건축, 도시계획석사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RTPA, 한국에서는 금호건설 종합설계실과 성우건축에서 실무를 하고 1997년에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다. 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현재는 다시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건축과 겸임교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국제협력단 건축전문위원 및 본협회 국제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대표작품으로는 아임삭 오창공장(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잠실 청호빌딩(서울시건축상 본상), 연세대학교 스포츠센터(현상안 당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계획안(국제현상설계 최우수상)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유홍, 은동우, 최원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프라임구조
  - 기계설비 : ㈜대유엠이씨
  - 전기분야 : ㈜다우티이씨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포스톤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644.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57.4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9.927%
용적률(Floor Area Ratio) | 47.421%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THK19 이삐목사이딩, THK30 화강석 패턴깔기
내부 : 투명에폭시 코팅, 자기질 바닥타일, 고급 천연페인트,
3중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5. 07 ~ 2013. 02. 2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5. 01 ~ 2014. 03. 31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ea)

Client | Individual
Architect | Shin, Chun-gyu
Project team | Kim, Yu-hong / Eun, Dong-woo / Choi, Won-hoo
General Contractor | Poston Construction Co.
Location |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Prime Structure
HVAC & Eletrical Engineer | Dae Yoo MEC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Finishing Materials | EXT : Exposed Concrete, Wood Siding(Ipe), Granite Plank Paving
INT : Advanced Natural Paint, Wood Flooring(Teak),
Porcelain Floor Tile, Aluminum System Window
W/Triple Insulated Glazing



배치도

진입도로 전경

분당주택의 건축주는 이미 여러 해 전에 나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 아임삭 오창공장으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나한테 가져다 준 은인인 것이다. 그 인연이 지속돼 작년에는 주택을 의뢰해왔다. 주택을 위해 대지부터 1년을 함께 봐오던 중, 건축주는 어느 날 분당으로 방문을 요청했고 세 개의 필지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했다. 나는 주저 없이 지금의 대지를 추천해주고 그가 바로 매입을 함으로써 설계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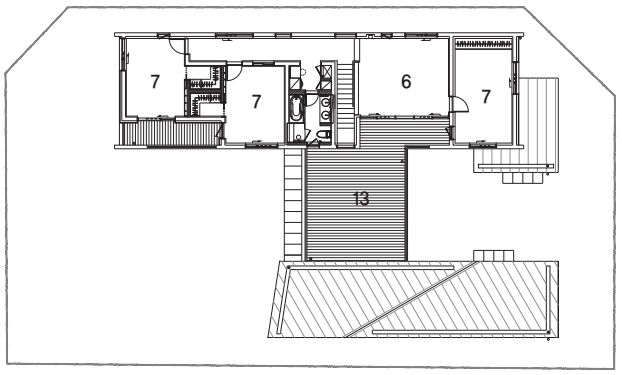
처음엔 13년 정도 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나 리모델링의 한계, 즉 내부구조 변경 등의 어려움과 리모델링과 신축의 비용을 비교해본 결과 기존의 담장을 재활용하는 선에서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다.
배치는 남향을 주방향으로 하는 큰 마당을 계획하고, 그 너머로 분당 중앙공원의 끝자락인 산이 마당으로 유입되도록 했다.
계획상의 가장 큰 이슈는 세 딸에게 어떻게 하면 동질의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가능하다면 친구가 많은 바깥주인의 주택에서 사회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간은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과 주방, 한실, 현관을 북측으로 배치하고 안방은 남측으로 분리하고, 그 북측에 남향으로 세 딸의 방을 일렬 배치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마당, 한실정원, 서비스 마당과 주차 및 자작나무 마당 등으로 구분된 외부공간은 각 내부공간과 연계되며 수평적임과 동시에 수직적인 교차를 갖기도 한다.
재료는 가급적 진부함을 벗어나며 갤러리 같은 주택의 신선함을 얻기 위해 하부는 이빠목 사이딩으로 상부는 송판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였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붕의 단면을 그대로 천정선으로 되살려 마감함으로써 내부의 공간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 2층 가족실과 복도에서 그 느낌이 충만하게 느껴진다.

처음엔 바깥주인과의 협의로 시작한 설계가 어느 순간 아주 꼼꼼한 안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계획시 설명하고 예측했던 치수에서 단 5cm의 오차도 파악해내고 확신이 들어야 진행이 가능한 건축주와의 협의는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다. 마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가족들의 얼굴에서 행복의 미소를 보는 것은 막지 못할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그 행복함이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집에서 오래오래 가길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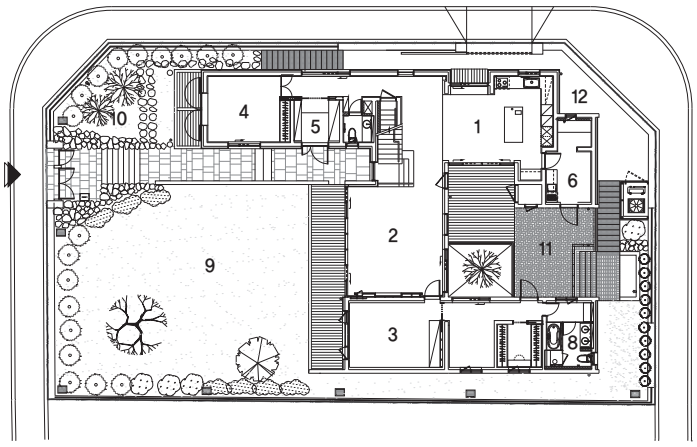
서측면 전경

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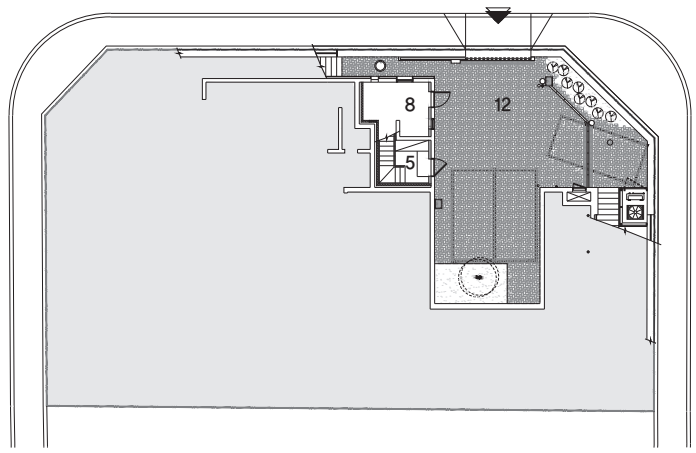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식당/주방
2. 거실
3. 안방
4. 사랑방
5. 현관
6. 가족실
7. 침실
8. 창고/보일러실
9. 큰마당
10. 사랑마당
11. 서비스마당
12. 주차마당
13. 데크마당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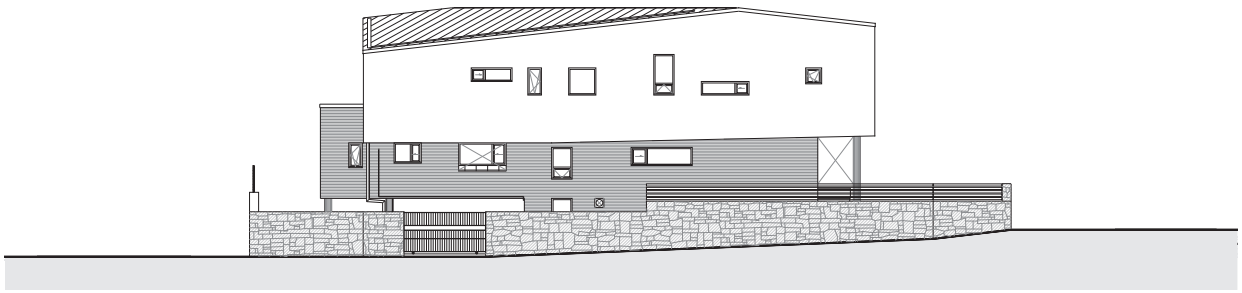
0 5 10 20m

대문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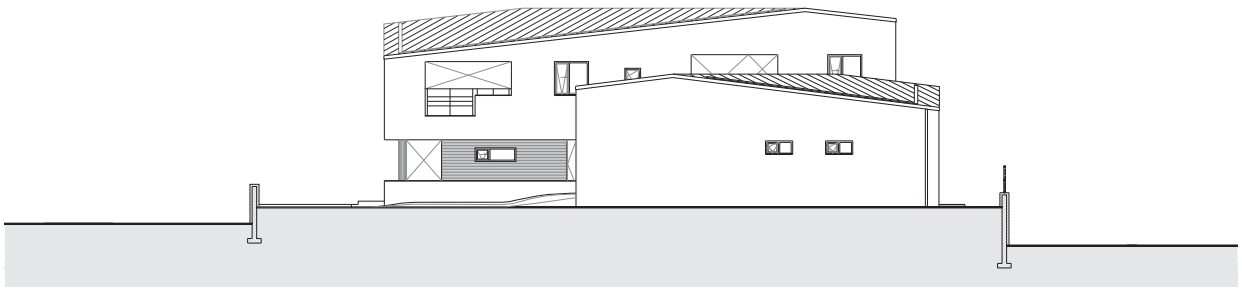
서비스 마당

계단에서 바라보는 현관

2층테라스(데크마당)에서 내다보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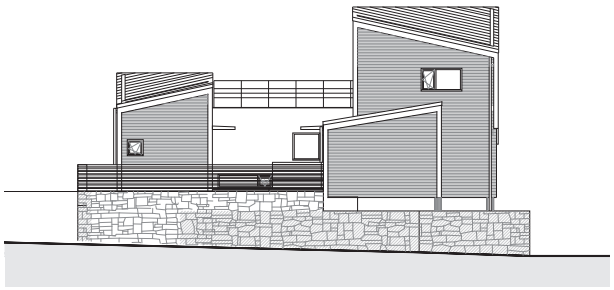


북서측면도



남동측면도

남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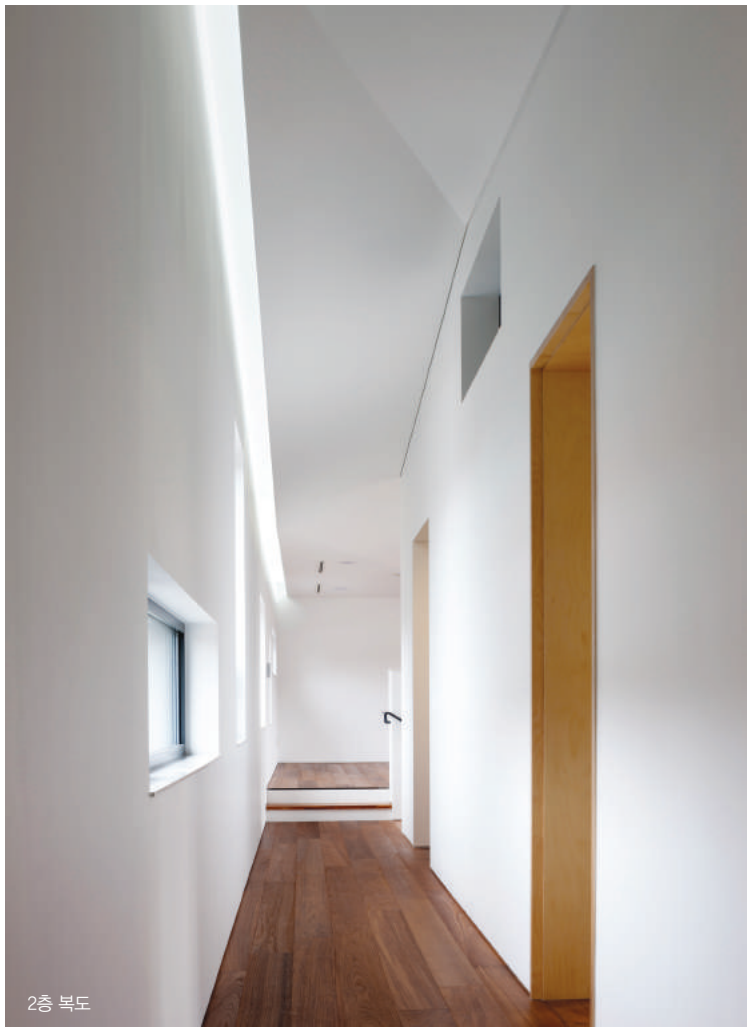


북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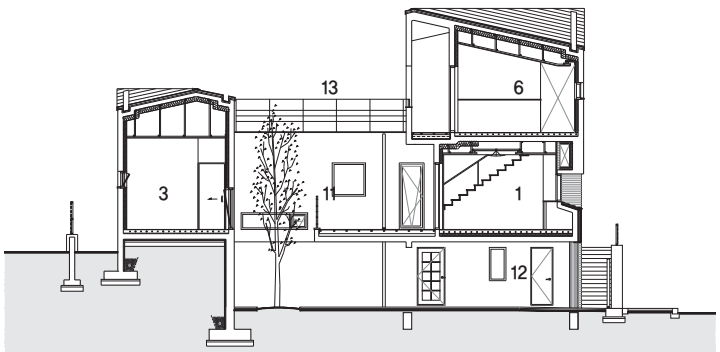
0 5 10 20m

2층 가족실과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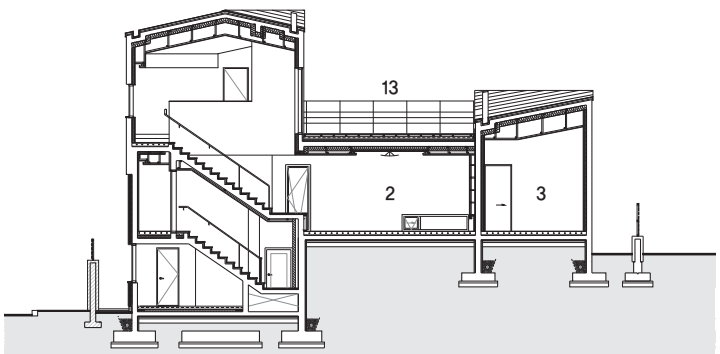
대문 방향 갤러리워크


2층 복도

계단실을 바라보는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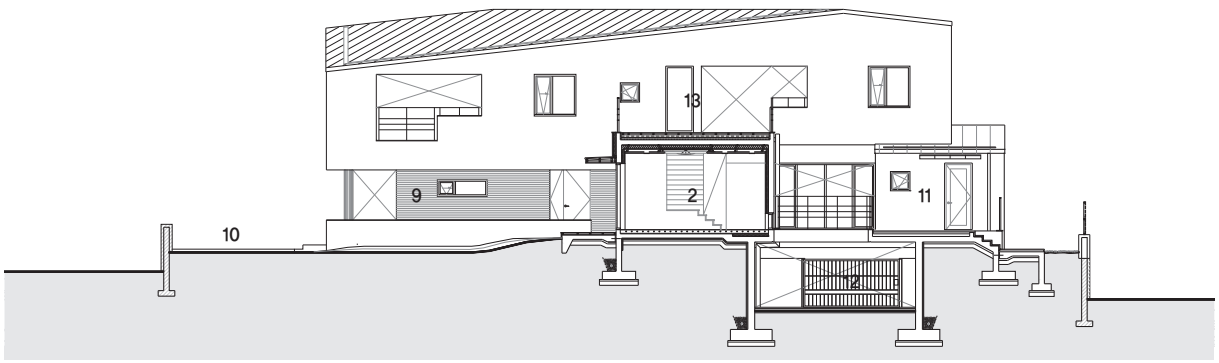


종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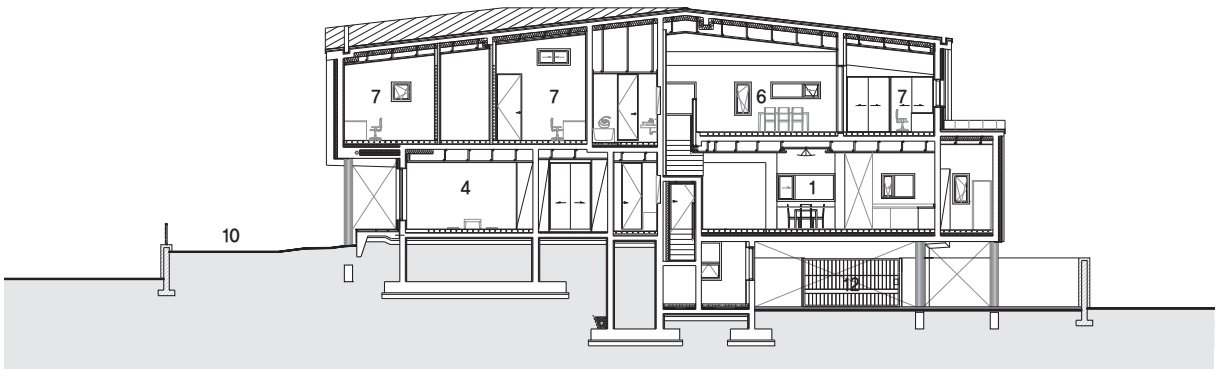


종단면도2

1. 식당/주방
2. 거실
3. 안방
4. 사랑방
5. 현관
6. 가족실
7. 침실
8. 창고/보일러실
9. 큰마당
10. 사랑마당
11. 서비스마당
12. 주차마당
13. 데크마당



횡단면도1



횡단면도2

회원작품.

수용빌딩
Suyong Building

설계자 | 변문수_KIRA | 무운 건축사사무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시작하였다. ㈜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테제 건축사사무소와 ㈜테제건설에서 설계 및 시공을 익히며, 서미갤러리를 비롯하여 호림아트센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설계에서 시공까지 진행하였다. 2011 서울시건축상 우수상(수용빌딩)을 비롯하여,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청담동 12345, 메리고라운드) 등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남구 건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설계팀 : 변진영, 김진만, 박홍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하이구조

건축주 | 김수용, 공숙영
감리자 | 무운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동원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6-6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55.48㎡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3.01㎡
연면적(Gross Floor Area) | 867.8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8.6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노출콘크리트, THK24 투명복층유리
내부 :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 위 VP도장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11 ~ 2010.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4 ~ 2010. 01
사진(Photographer) | 이재성(Lee, Jae-seong)

Client | Kim, Su-yong / Gong, Suk-young
Architect | Byoun, Moon-su
Project team | Byoun, Jin-young / Kim, Jin-man / Park, Hong-soo
General Contractor | Dongwon Construction
Location | 36-6, Jangchung-dong 1-ga, Jung-gu, Seo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High Structural Consultant
Finishing | Exposed Concrete, THK24 Glass

대지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교통량이 꽤 많은 북측의 8m 전면도로와 경사가 심한 서측의 4m 도로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두 면의 인접대지와는 각각 6m와 9m에 육박하는 대지 레벨차가 있고, 이는 북측도로로부터의 일조사선제한과 도로사선제한에서 불리했다. 다만 대지의 가중평균치가 높아 지하층을 전면도로면에 노출시킬 수 있어서 작은 대지면적(225㎡)에 비해 큰 볼륨을 계획할 수 있었다. 북측의 전면도로를 따라 길쭉하고, 남측 인접대지경계와는 두 번이나 접했으며, 폭이 좁은 까다로운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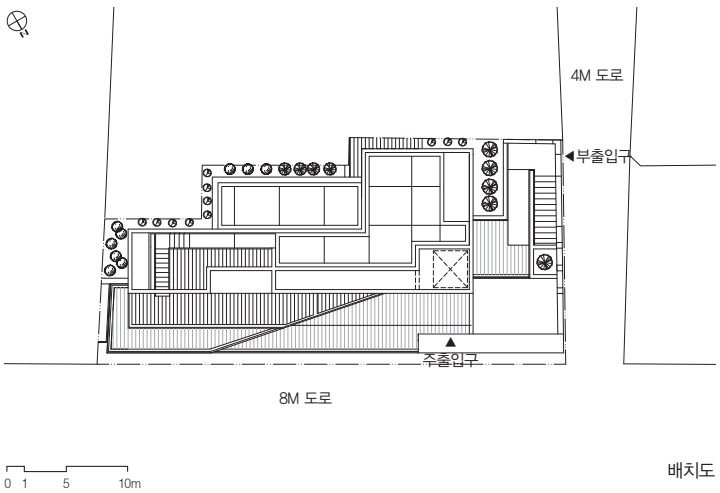
레벨이 낮고 채광이 거의 없는 갑갑한 북측보다는 남측의 채광 및 조망이 좋은 조건이다. 상층부의 조망은 더욱 탁월한데, 남측으로 남산 북사면의 자연경관과 종로에서 충무로에 이르는 시가지 경관이 낮이나 밤이나 일품이다. 경사진 대지가 가진 건축물 용적의 장점과 남서측의 채광과 조망을 적극 활용하며, 북측에 그늘이 지지만 거북하지 않은 느낌으로 건물 내부를 드나들게 해야 함을 설계 내내 잊지 않았다.

건물외형의 디자인은 단순한 조형 프로세스와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절제하여 조소적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했다. 이는 노출콘크리트라는 주재료를 처음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한 7개층 볼륨의 매스를 설정하고 가중평균선을 기점으로 기단부와 몸체를 구분하여 안정된 느낌을 주었고, 상부 매스는 도로 및 일조사선의 제한선을 이용한 매스의 단순한 절삭기법과 기능적인 창의 배치 및 형태, 단순한 디테일, 모노톤이며 몇 가지가 전부인 재료의 선택으로 미니멀한 느낌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노력했다.

길로부터 출발한 건물 내부로의 동선은 우리 정서에 익숙한 한국적인 공간감을 느낄수 있도록 스케일, 컬러 등을 세심하게 계획하였고,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과 동선의 절곡지점에서는 특징이 부여된 벽이나 의미 있는 나무, 빛과 어둠 등의 시각적 장치들로 보다 역동적인 동선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주택의 내부를 지나 옥상에 오르기까지 계속되며, 그 끝은 도시적이고 자연적인 사방의 경관으로 확장된다.

작은 대지에서 최대의 볼륨을 계획하다보니 노출콘크리트 매스가 다소 위압감을 줄 수 있어서 기단부와 상층부의 사이에 중성적인 공간과 선형의 띠창들을 중첩시켜 완화했고, 조소적 개념을 보여줄수 있는 몇 곳의 절단면에 오렌지 컬러를 입혀 강북의 낡은 도시 이미지로 가득한 주변 속에서 경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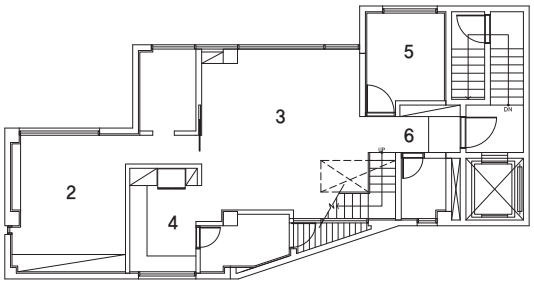
북측 정면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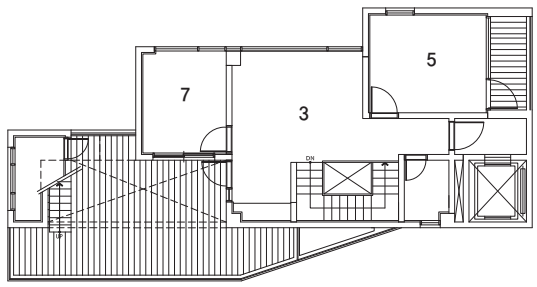
1층 데크

1층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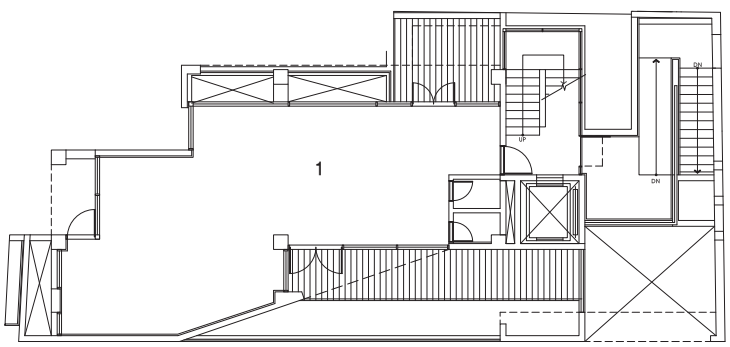
1. 근린생활시설 2. 안방 3. 거실 4. 주방 5. 방 6. 현관 7.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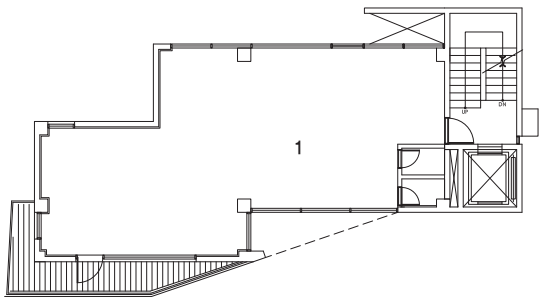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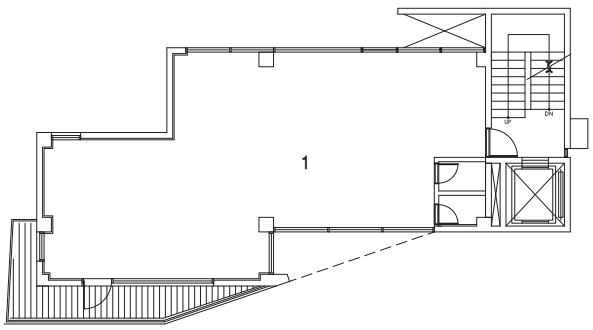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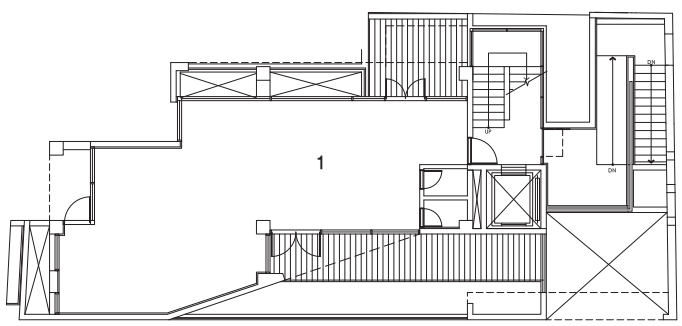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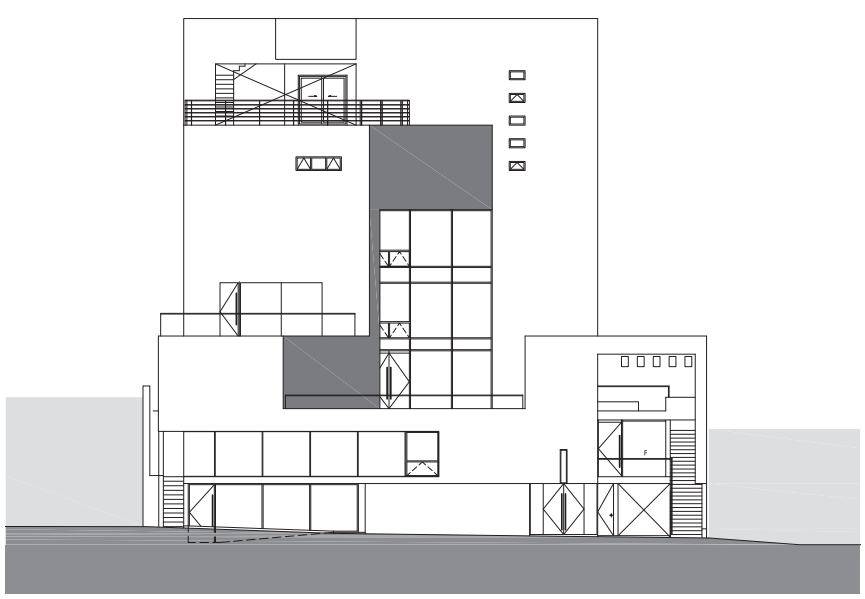
0 2 5 10m

지하1층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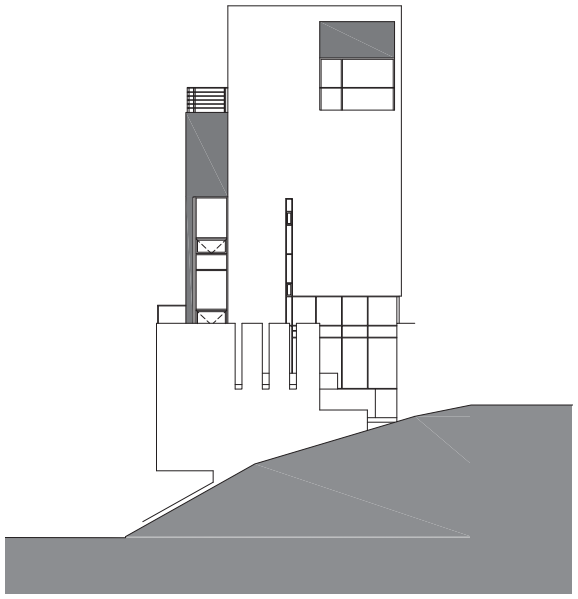
5층 데크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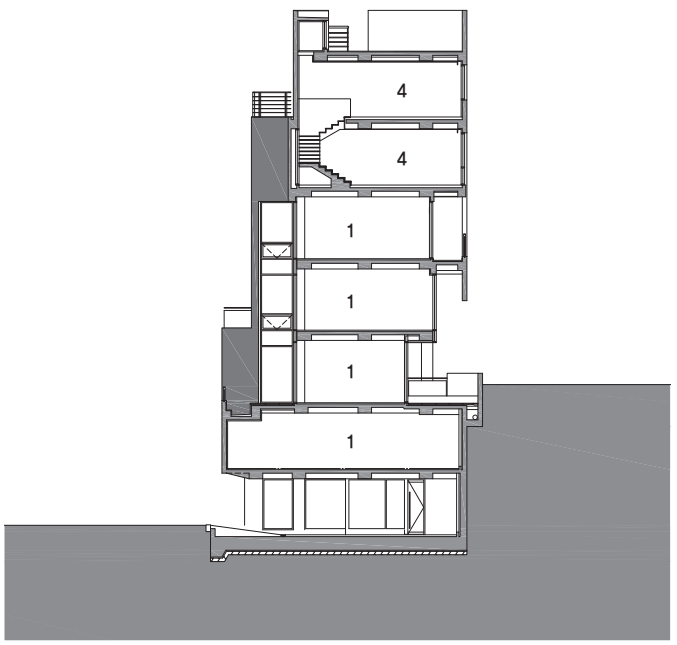
4층 거실



정면도


우측면도

1. 근린생활시설 2. 기계실 3. 주차장 4. 거실 5. 방 6. 서재



종단면도

횡단면도

5층 게스트룸

주택 내부계단

회원작품.

계룡건설 사옥
KyeRyong Headquarter Office

설계자 | 이의구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창건축 대표이사이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건축사회 회장,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건축학회 이사,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건설교통부 장관상,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설계자 | 이종건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영남대학교 건축과와 홍익대학교 건축과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주)창건축의 대표건축사를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SK Telecom 대전사옥,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상복합 Ⅰ·Ⅱ, 고양삼송지구 · 대전도안신도시 · 노은지구 및 학하지구 계룡리슈빌 APT, 구미옥계지구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우미린 APT, 서초동 KR산업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있다.

- 설계팀 : 이승복, 정동수, 이지웅, 박찬식, 윤승균, 추승필, 이종민, 최병국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T-SEC 그룹
  - 기계/전기설비 분야 : ㈜우원M&E, 석우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주식회사 다산이엔지

건축주 | 계룡건설산업㈜
시공사 | 계룡건설산업㈜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47, 648번지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887.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53.26㎡
연면적(Gross Floor Area) | 34,301.1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5.29%
용적률(Floor Area Ratio) | 601.5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4층 ~ 지상16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THK.3 아노다이징 AL.패널, THK.24 칼라로이복층유리, THK.20 세라믹 타일, THK.30 고흥석 혼드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8 ~ 2012.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3 ~ 2013. 12
사진(Photographer) | 채수옥(Chae, Soo-Ok)

Client | KyeRyong Construction Industrial Co., Ltd.
Architect | Lee, Eui-koo / Lee, Jong-geon
Project team | Lee, Seung-bok / Chung, Dong-soo / Lee, Ji-woong / Park, Chan-sik / Yun, Seung-kyun / Choo, Seung-pil / Lee, Jong-min / Choi, Byoung-kook
General Contractor | KyeRyong Construction Industrial Co., Ltd.
Location | 48 Munjeong-ro 48Bean-gil, Seo-gu, Daejeon, Korea
Structure | S.C + R,C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T-Sec Group Co., 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Woowon M&E Co., Ltd.
Electrical Engineer | Sukwoo Engineering Co., Ltd.
Civil Engineer | Dasan Engineering Co., Ltd.
Finishing Materials | THK.3 Anodizing Aluminum Panel, THK.24 Low-E Double Glazing, THK.20 Ceramic Tile, THK.30 Honed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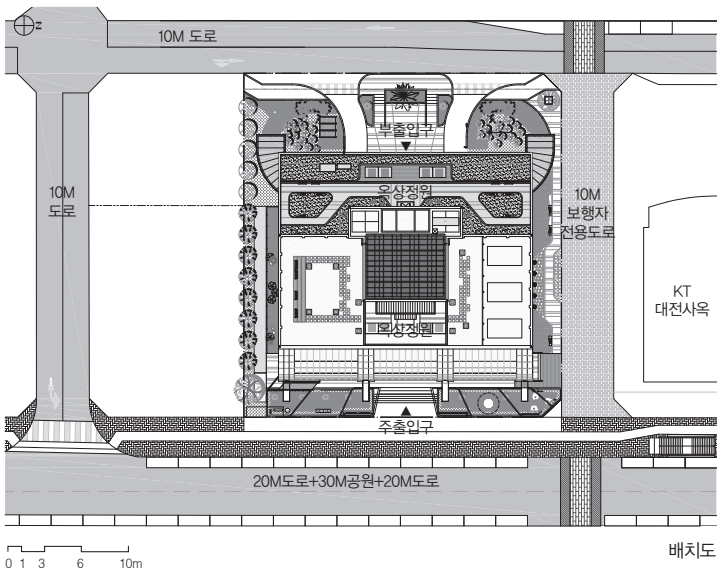
대전시 서구 둔산신도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시가지와 맞물려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도시가로를 활성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설계가 요구된 프로젝트였다.

Interaction
둔산지구 탄방공원에서 인지되는 정면은 Cube형 유리매스와 생동감 있는 사선 기둥이 대조되어 도시 내 불특정 다수가 소통하고 싶은 흡입력을 가지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대전시청으로 이어지는 공공조경축의 연속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입체화시킨 아케이드 몰은 시민들에게 다이나믹한 Activity를 제공하게 된다.

Flexibility
미래의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친근한 곡선 윤곽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기업의 풍부한 변화와 유연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외피의 유리벽면율을 45% 이하로 낮추고 태양광 축열시스템을 갖춰 대전지역을 선도하는 기업의 사옥으로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였다.

Momentum
기존 거리의 흐름을 이어나가되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이미지로 각인되기보다는 움직이고 성장해 가는 건축물의 생동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단순하게 절제되어 있는 타워매스는 랜딩기어를 접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막 이륙(Take Off)하려는 첨단기업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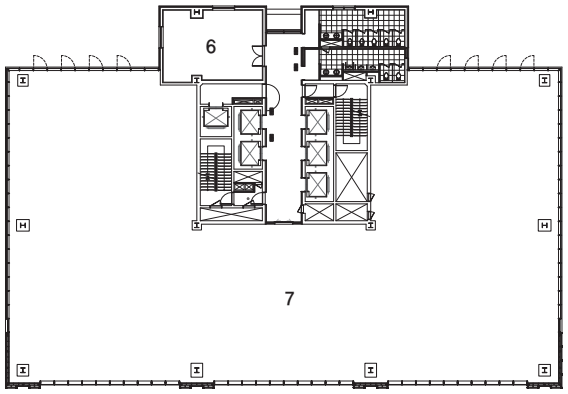
본 건물이 지역의 가로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Green Building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기억되며, 더불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무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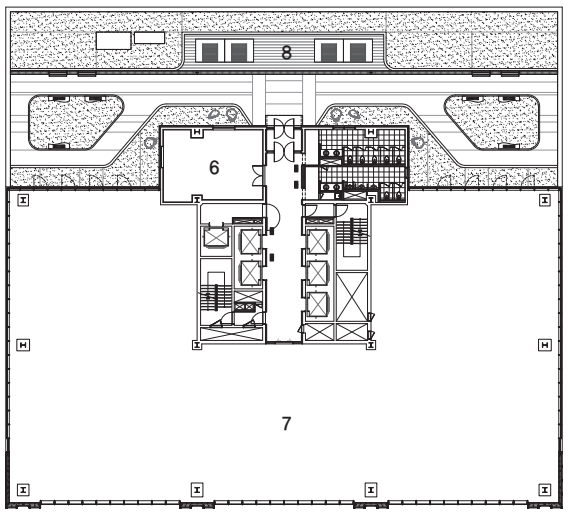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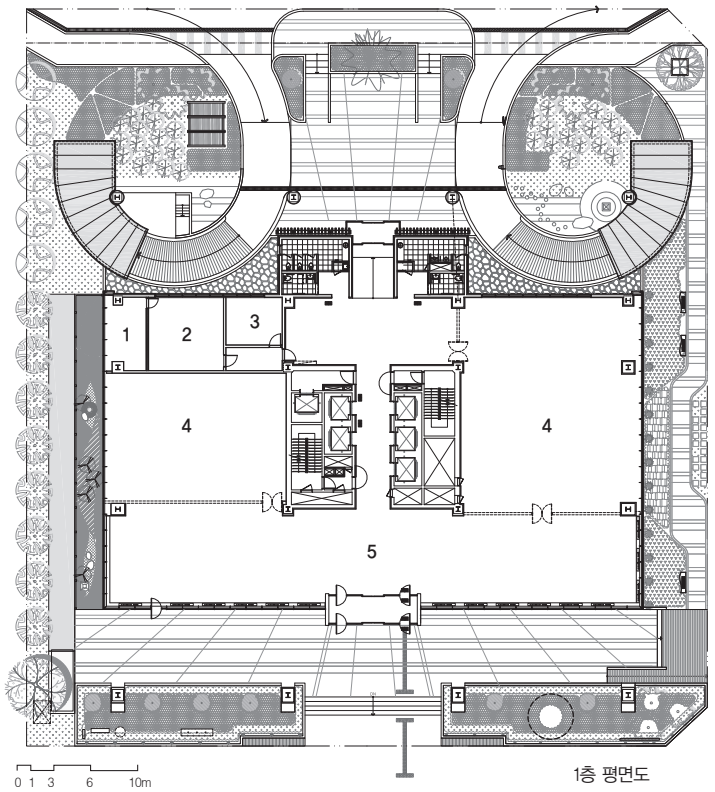
1. MDF실
2. 방재센터
3. 기사대기실
4. 근린생활시설
5. 로비
6. 공조실
7. 업무시설
8. 옥상정원
9. 식당
10. 강당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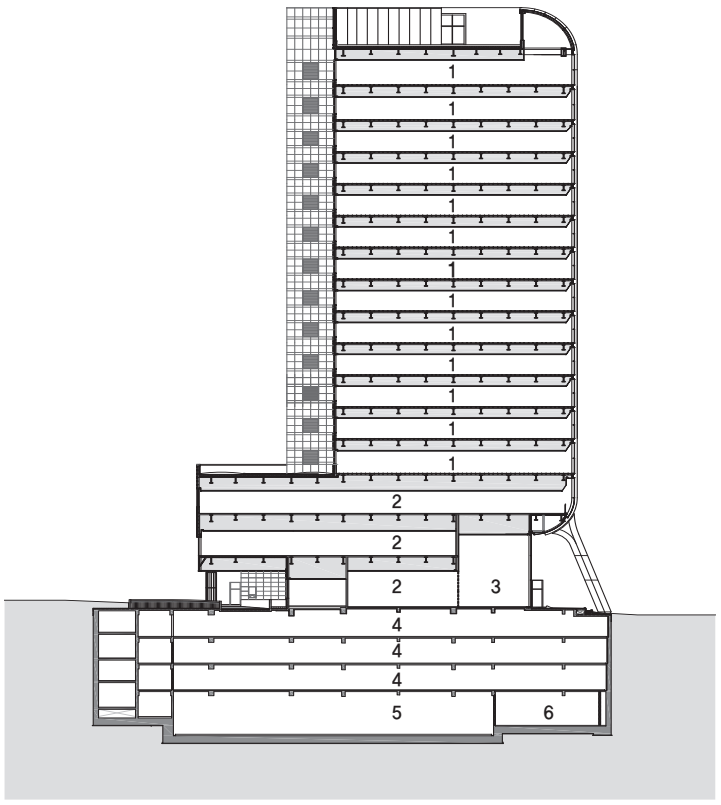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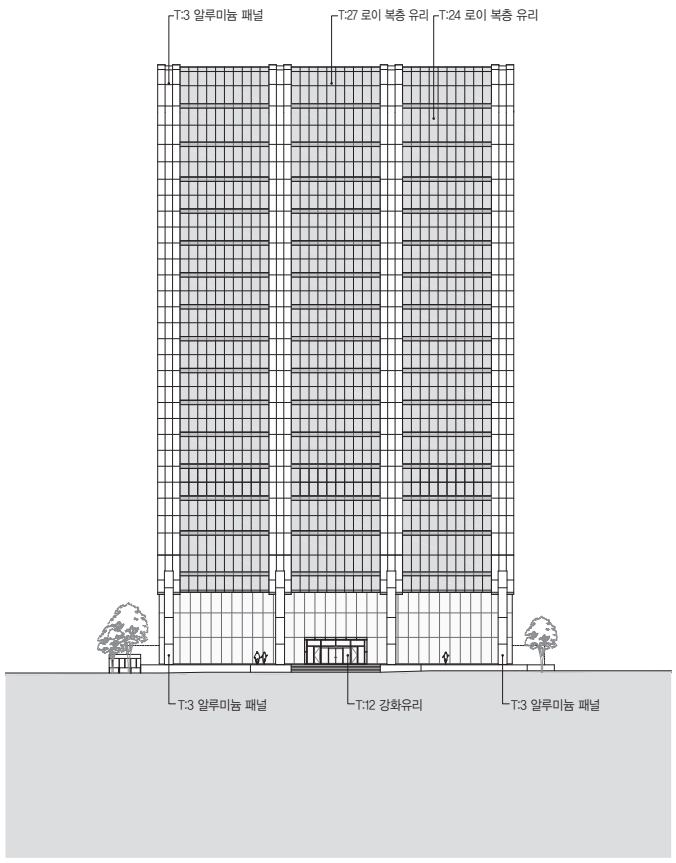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업무시설 2. 근린생활시설 3. 로비 4. 주차장 5. 기계실 6. 전기실



0 1 3 6 10m

단면도


T:3 알루미늄 패널
T:27 로이 복층 유리
T:24 로이 복층 유리
T:3 알루미늄 패널
T:12 강화유리
T:3 알루미늄 패널
0 1 3 6 10m

정면도

회원작품.

노량진 신성교회

Noryangjin Sinseong Church

설계자 | 여세현_KIRA | ㈜고려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1964년 영남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이후 1969년까지 건설부 주택도시국에서 근무했다. 1992년에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996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을 역임했다.

- 설계팀 : 강병록, 이석진, 신세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예영건축구조연구소
  - 기계설비 : ㈜건창기술단
  - 전기분야 : ㈜건창기술단

건축주 |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지재단 신성교회
감리자 | ㈜고려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신화종합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14-142 외 2필지
주요용도 | 종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812.71㎡
건축면적(Building Area) | 483.16㎡
연면적(Gross Floor Area) | 3,757.8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45%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8.82%
규모(Building Scope) | 지하4층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화강석, 칼라복층유리, 적삼목, 마천석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9 ~ 2012.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9 ~ 2014. 03

Client | Sinseong Church
Architect | Korarc Architectural Design
Project team | Yeo, Se-hyeon / Gang, Byeong-rock / Lee, Seok-jin / Shin, Se-kwang
General Contractor | Mythology General Construction
Location | 214-142, Noryangjin 1-dong, Dongjak-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Yeyoung Structure
HVAC & Eletrical Engineer | GeonChang Gisuldan
Electrical Engineer | GeonChang Gisuldan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Color Glass, LED lighting

대지에는 과거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준공건축물 대상을 수상한 교회가 있었다. 교회 입구에는 대상을 수상했다는 동판도 있었다. '후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잠시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교회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외관과 달리 내부는 노후한 건물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주변에 더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신축되면서 교회의 어려움이 갈수록 더해졌고, 교회에 건축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신축을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대지는 단풍잎을 반으로 나누어 놓은 듯 요철이 심한 형상이었다. 더불어 남고북저의 차이가 8m 이상이었고, 서측을 제외한 삼면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북측도로는 경사가 심했다. 다행이라면 대지의 동측에 시유지인 자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었고, 소공원 계획부지라 그나마 답답함의 덜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대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규모나 기간도 그렇고 민원문제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결국 교회 단독으로 뉴타운사업의 절차에 따라 몇 번의 심의와 허가과정을 거쳐 새로운 성전건축을 완성했다.

기존 교회의 십자가탑은 철거해서 폐기하기보다는 어디에라도 이전해서 보존하고 싶은 탑이었다. 신축 교회의 십자가탑에는 무엇을 담을까? 십자가탑에 특별한 디자인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나 상징성을 부여하면 교회의 특징이 될 수도 있기에 친환경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광 모듈로 외관을 계획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관에 특징을 가진 십자가탑이며, 밤에 십자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라도 생산하자는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됐다.

지하2층과 지하1층에 설치된 대예배실의 형상은 요철이 많은 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었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반원 형태로 2개 층을 오픈한 대예배실은 교회 측에서도 가장 원하던 안이었으며, 15m 경간에 기둥 2개만 노출됨으로써 중층형 공간에서 시야를 가리는 기둥의 수를 줄였다. 게다가 5층의 소예배실과 교육실의 기둥까지 고려된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 교회에 처음 가본 사람이라면 건물의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대공간이 건물 안에 있을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지의 8m 단차와 북측의 15m 경사도로는 지하3층~1층의 4개 층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주출입구와 유사시 대피출입구를 설치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주차장은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층과 지하3~4층에 분리·배치했으며, 지하3층과 지하4층에 카 리프트를 두어 자가 운전에 의한 주차를 가능하게 했다. 예배 후 5층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105m/min의 20인승 전망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밖에 넣을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었으나 대형의 엘리베이터를 전망용으로, 게다가 이동속도를 가능한 최대로 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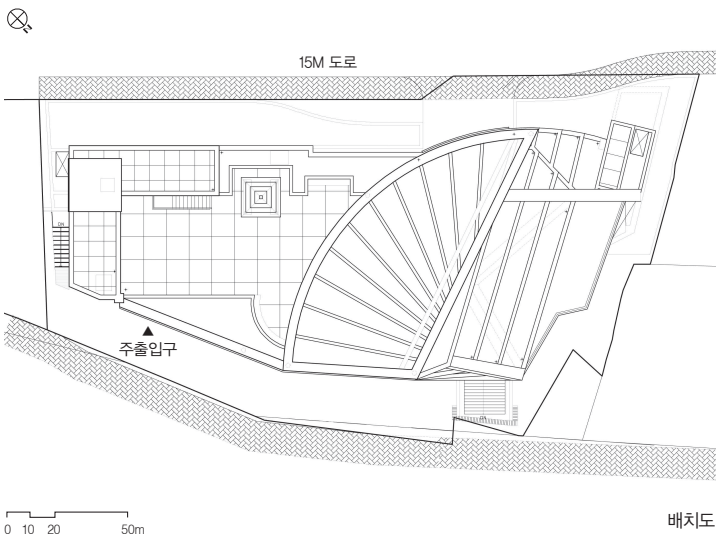
기존 교회의 아쉬운 점이 낙후된 시설과 교육공간의 부족이었다면, 신축교회의 지상에는 유아부실, 유치부실, 소예배실 겸용의 아동부실, 중고등부실, 청년부실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교회를 신축함에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옥상 공간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휴게공간 외에 옥외 소예배공간을 겸할 수 있는 친교공간으로 구성했다. 지붕 역할을 하는 철 구조물 위에는 정남향에 30도 경사각으로 효율을 높인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는데, 소량이나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의 설치는 건축위원회 장로님들의 역량과 열린 사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교회 외관과 마감에도 자연재료를 사용해 다시 한 번 친환경 건축물이 되고자 노력했다. 지하부분의 외부 마천석은 건물에 안정감과 중후함을 주고, 지상층의 포천석 고운 다듬은 50%의 반사유리 커튼월과 조화를 이루며 교회의 색다른 멋을 내려는 시도의 흔적이다. 전면의 수평 바를 강조하는 커튼월창호와 후면의 라운드 형태로 된 커튼월창호는 자연채광의 확보와 개방감 그리고 하이테크 이미지라는 건축적 포장보다, 건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창호 디자인이었고 기존사례 답사의 결과임을 밝힌다.

전경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설계자도 좋아한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만은 그랬다. 교회 좌측의 계단부 커튼월창호는 모자이크 유리의 성화를 넣을 예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면부다. 이 부분은 교회 좌측의 교차로에서 입면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라 계단부이지만 아치형창호, 큰 커튼월창호, 작은 사각창호를 조합해 정연하면서도 고전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가미했다. 교회 측에서 자리를 내어준, 앞으로 완성해 나갈 빈 공간으로 정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상의 특이한 공간으로는 2층과 3층 사이에 배치한 유치부실과 아동부실, 수직으로 연결하는 테라스와 계단이 있다. 이 공간은 목재 수평루버를 설치해 색상이나 형태적으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유사시 대피를 위한 수직통로인 계단을 2개 층 사이에 만들자는 건축위원회의 제안이었으나, 대피층이 아닌 2층과 3층을 연결해 테라스와 외부계단의 층간 이동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했다. 보는 사람과 사용자의 입에 한동안 오르내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해보니 좋은, 차 한 잔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테라스 한켠에 앉아서 사색 또는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이라 희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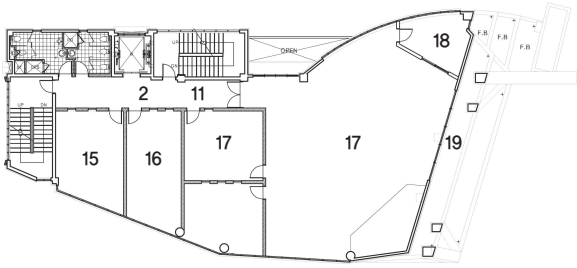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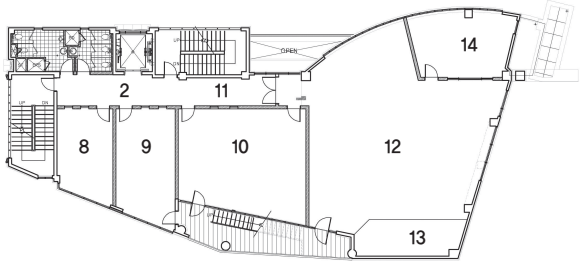
우측 입면

좌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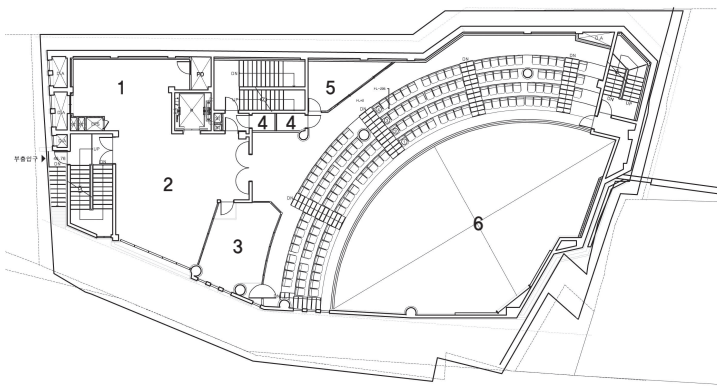
1. 휴게공간
2. 홀
3. 유아실
4. 창고
5. 방송실
6. 대예비실
7. 주차장
8. 사무실
9. 교역자실
10. 권사실
11. 복도
12. 유치부실
13. 무대
14. 유치부교사실
15. 남선교회실
16. 청년부실
17. 중고등부실
18. 중고등부교사실
19.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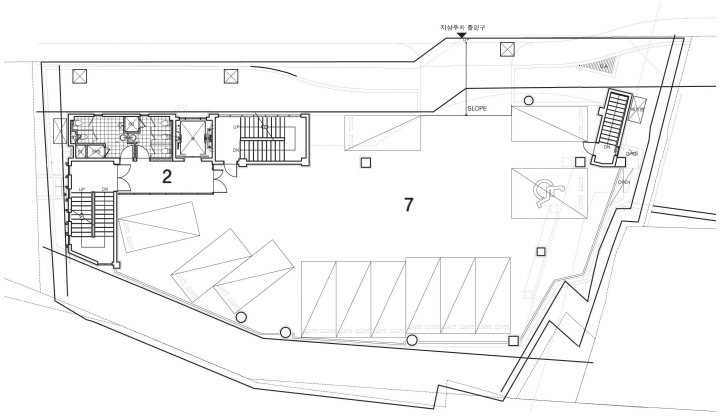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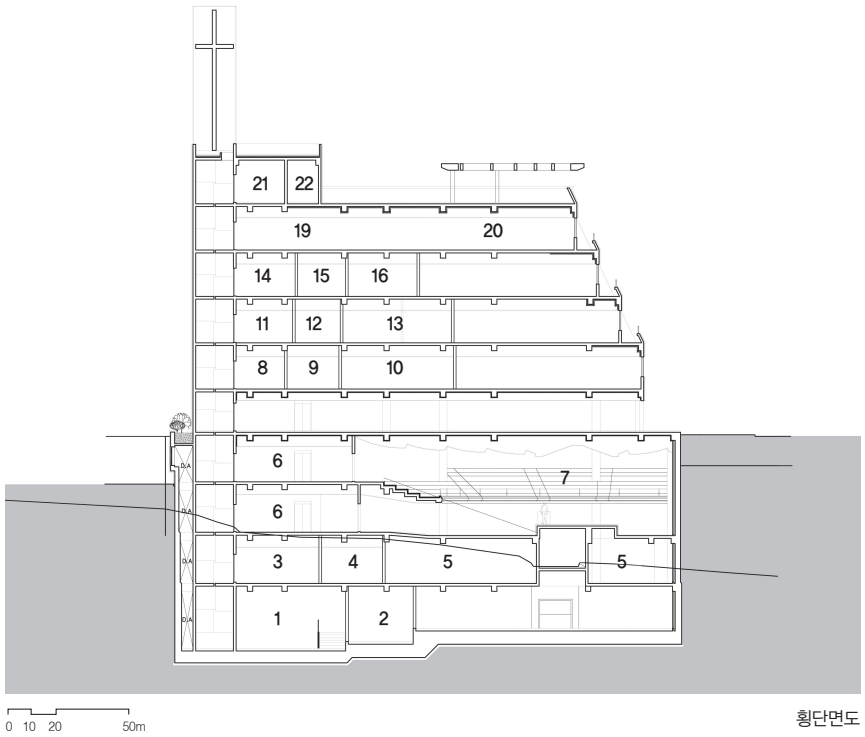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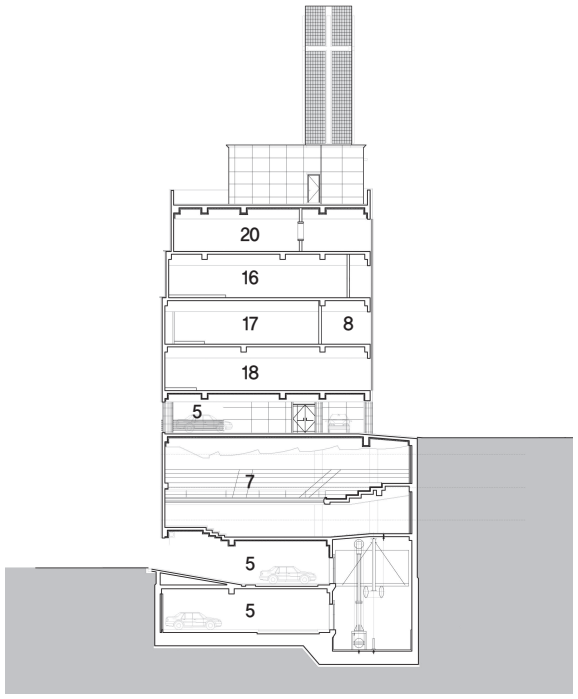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예배실

1. 기계실 2. 전기실 3. 찬양대연습실 4. 룸 5. 주차장 6. 홀 7. 대예배실 8. 사무실 9. 교역자실 10. 권사실 11. 당회장실
12. 당회장실 13. 여선교회실 14. 남선교회실 15. 청년부실 16. 중고등부실 17. 아동부실 18. 유치부실 19. 커피숍 20. 식당 21. 물탱크실 22. EV기계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50 WORKS

회원작품.

진송메탈 사옥 및 공장

Jinsong Metal Company Building & Factory

설계자 | 김성곤_KIRA | 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건축사회 건축학술위원장,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월간 〈우리주택〉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맨 운영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인력개발원 현상설계경기에 당선된 바 있으며, 2013 창원건축대상제 표창장, 동래건축상 우수상, 사하건축상 금상, 부산건축대전 동상 3회(제9, 10, 11회)를 수상했다. 그의 글과 스케치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sg8883)를 통해 볼 수 있다.

- 설계팀 : 남충헌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원구조
  - 기계설비 : 금정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금정엔지니어링

건축주 | ㈜진송메탈

감리자 | 서진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우호건설주식회사

대지위치 |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187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57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23.1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164.9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8.54%

용적률(Floor Area Ratio) | 84.04%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조

주요마감재 | 실외 : 문경석 버너구이, 문경석 물갈기, 적삼목

실내 : 보티치노, 석고보드(2ply)위 지정벽지, 폴리싱 타일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4 ~ 2013.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10 ~ 2014. 03

사진(Photographer) | 성 종합건축사사무소(Sung Architects Group)

Client | Jinsong Metal Corporation

Architect | Kim, Sung-gon

Project team | Nam, Chung-heon

General Contractor | Wooho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187, Mieumsandan 4-ro, Gangseo-gu, Busan, Korea

Structure | R.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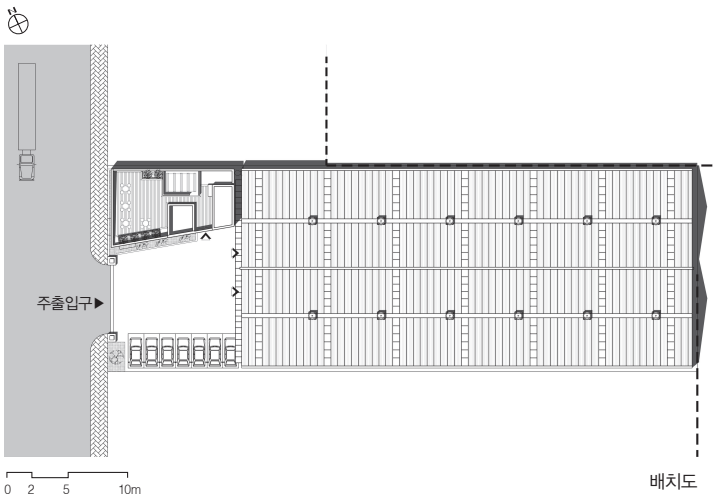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Won Engineering

HVAC & Eletrical Engineer | Geum Jeo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Geum Jeo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Mungyeong Stone, Red Cedar

Botticino, Plaster Board, Polishing Tile



배치도

전경

공장의 공사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공사비를 절감해야 하니 건축 재료는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공간과 디자인으로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본 대지는 전면 폭은 좁고 깊이는 전면의 3배쯤 되는 "ㅡ"자형이다. 공장동 전면에 대형 출입문 2개소를 설치하고 나면 사무동의 폭은 너무나 좁아진다. 해결책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각도 등을 조절한 결과, 사무동의 평면매스는 사다리꼴이 됐다. 하지만 사선형태의 외관은 착시현상으로 사선임을 느껴지지 않게 한다. 외관의 컨셉은 공장의 출입문을 열면 "ㄱ"자형 입면이 된다는 것이다. 사무동과 출입구 문주도 "ㄱ"자형으로 디자인을 하여 기업 발전의 이미지와 함께 통일감을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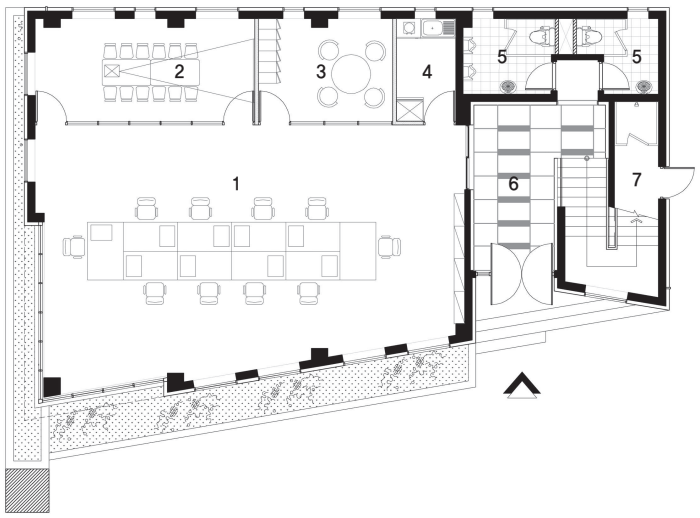
공장동은 천창을 설치하여 공간을 밝고 쾌적하게 만들고, 사무동은 1층은 업무전용공간으로, 2층은 임원 및 업무보조공간의 영역으로 기능을 분리시켰다. 꽉 채워진 사무동의 2층 전면 일부를 비워 자연과 건축과 사람이 더불어 호흡하며 소통할 아담한 데크마당을 만들었다.

이 운치 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다실을 배치했다. 차 마실 공간이 꼭 클 필요는 없다. 다소 좁은 듯 아담하면 된다. 서정적인 공간이면 더 좋다. 이 다실이름을 다헌(茶軒)이라하고, 마당을 다정(茶庭)이라 하자.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리라"고 한 다산(茶山) 선생의 차 사랑 문화는 소통과 평등의 정신문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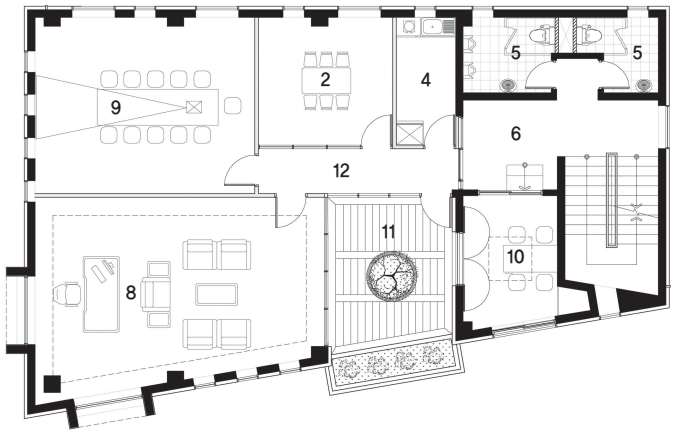
직원과 고객과 C.E.O와의 소통은 상호관계 개선과 함께 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간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 공간이 중요한 이유다. 이 다헌은 때론 양호실로 직원들이 편히 누워 쉬기도 하고, 손님 숙소로 활용해도 좋을 다용도의 공간이 될 것이다. 탁 트인 마당 전면의 프레임에는 발코니형 화단을 만들고 소나무 한 그루와 키 낮은 상록관목을 식재했다. 이 소나무는 (주)진송메탈, 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무동 전경

1. 사무실 2. 소회의실 3. 탈의/휴게실 4. 탕비실 5. 화장실 6. 홀 7. 샤워실 8. 사장실
9. 대회의실 10. 다헌 11. 다정 12. 복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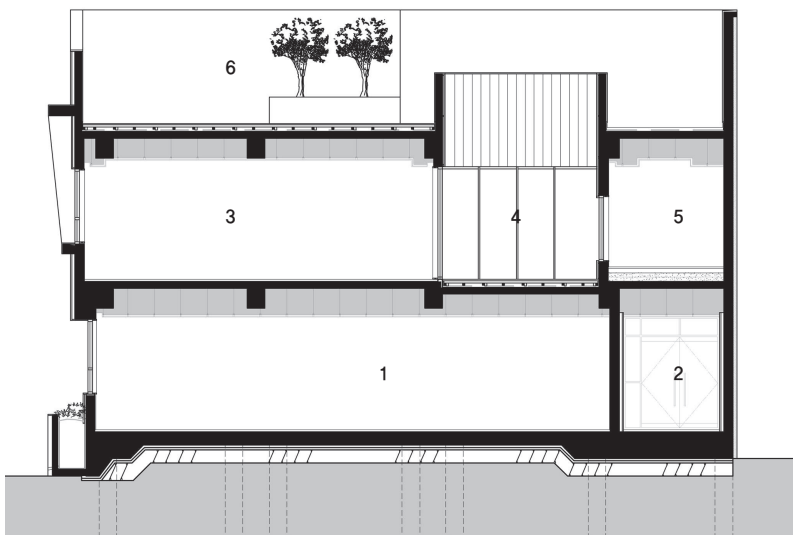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사무동 데크마당 '다정(茶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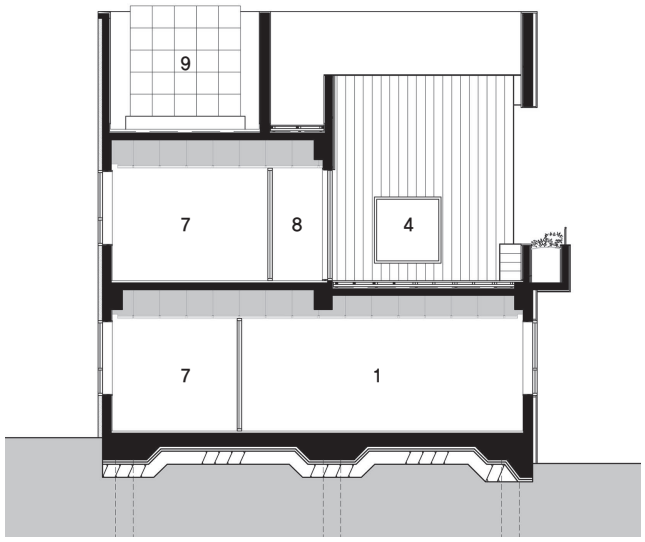
사무동 다실 '다헌(茶軒)'

1. 사무실 2. 주출입구 3. 사장실 4. 다정 5. 다헌 6. 휴게마당 7. 소회의실 8. 복도 9. 옥상수조



0 2 5 10m

사무동 횡단면도



사무동 종단면도

동탄2신도시 초9 학교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당선작

Dongtan 2 New City Elementary School 9 Block Resident complex center

발주자 : 동탄신도시

설계자 : 조도연 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하홍원, 김재경, 이태희, 엄준식, 최 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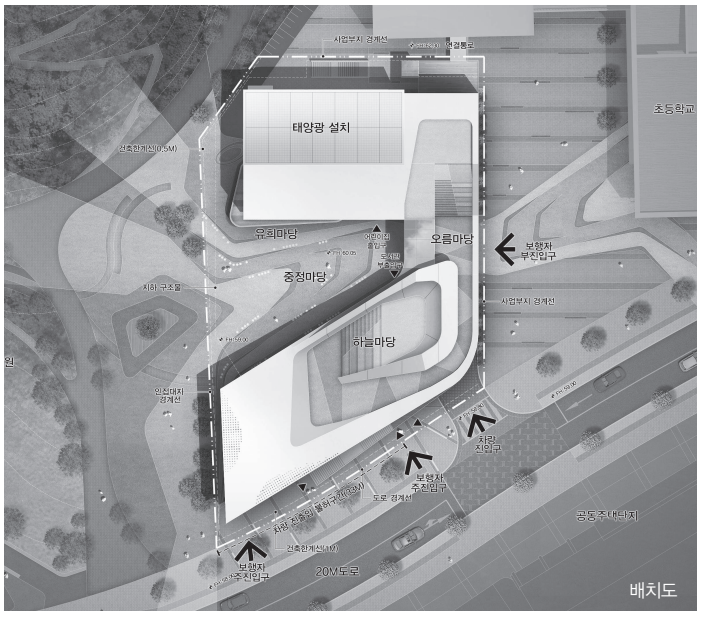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신화에스디지
– 기계/기계소방/정보 · 통신/전기/전기소방 : ㈜수양엔지니어링
– 토목 : ㈜나우엔지니어링
– 조경 : 스튜디오 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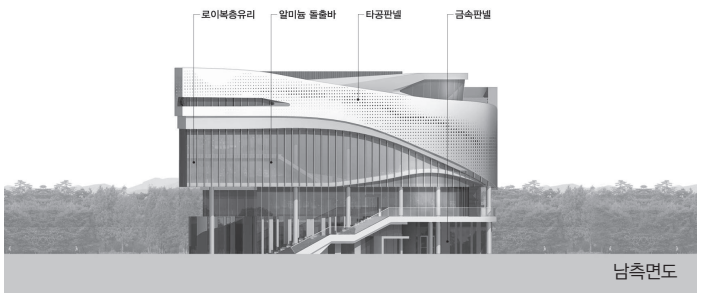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10번지 일원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701㎡(전체 11,003㎡)
건축면적 1,539.18㎡
연 면 적 10,249.93㎡
건 폐 율 53.25%
용 적 률 172.78%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2층 ~ 지상5층
주요마감 로이복층유리, 복합패널, 타공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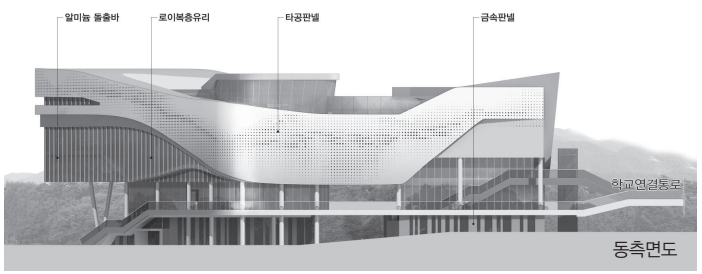
· **Inter_Change + Generation** 미디어 중심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 내외부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건축적 구성요소인 마당은 각각의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교류의 공간들로 채워진다. 수평 · 수직적으로 세대 간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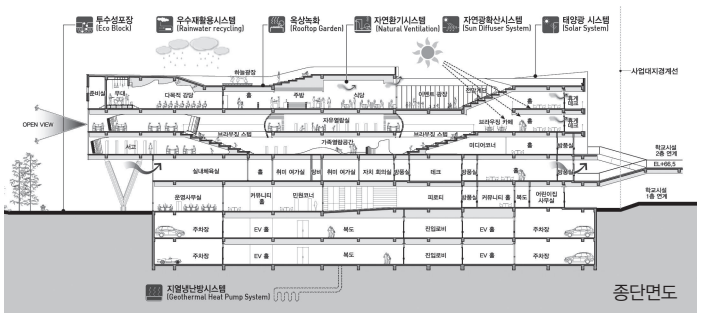
· **Welcome + Community**
Wellness + Wellbeing : 지역주민 모두를 환영하며 함께 소통하는 복합문화시설, 도서관+교육+보육+여가 등이 어우러진 동탄 옛 마을의 정서와 이웃 간에 정감이 넘쳐나는 사람 사는 마을 어귀로서의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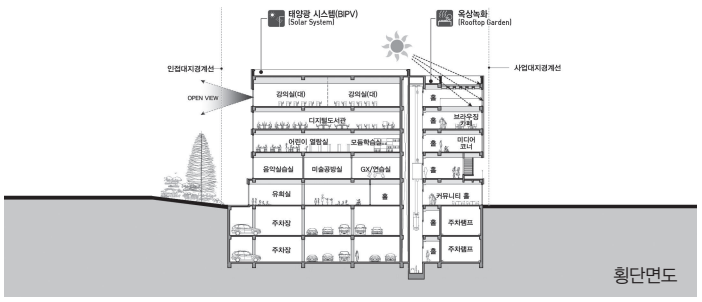
최대한 남향배치를 고려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학생과 주민개방 영역을 분리했다. 대지 지형의 융통성 있는 활용 및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건물 안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며, 인접 학교와 어울리는 배치를 계획했다.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에 속해 있는 대지로서 초9 진입로 좌측에 위치하며, 주요 프로그램인 미디어 중심 공간에 의해 독립된 두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2F)과 어린이도서관(3F)에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적극으로 연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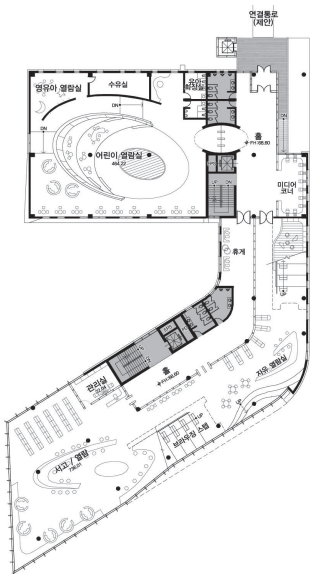

태양광 설치
초등학교
유희마당
오름마당
중정마당
하늘마당
보행자 부진입구
보행자 주진입구
차량 진입구
공동주택단지
20M도로
배치도


로이복층유리
알미늄 돌출바
타공판넬
금속판넬
남측면도


알미늄 돌출바
로이복층유리
타공판넬
금속판넬
학교연결통로
동측면도


투수성포장 (Eco Block)
우수재활용시스템 (Rainwater recycling)
옥상녹화 (Rooftop Garden)
자연환기시스템 (Natural Ventilation)
자연광확산시스템 (Sun Diffuser System)
태양광 시스템 (Solar System)
사업대지경계선
OPEN VIEW
지열냉난방시스템 (Geothermal Heat Pump System)
종단면도


태양광 시스템(BIPV) (Solar System)
옥상녹화 (Rooftop Garden)
인접대지경계선
사업대지경계선
OPEN VIEW
강의실(대)
디지털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음악상습실
미술공방실
GX/연습실
유희실
주차장
주차램프
횡단면도


연결통로 (제안)
영유아 열람실
수유실
어린이 열람실
미디어 코너
휴게
자유 열람실
사무실 / 열람
3층 평면도

연결통로 (수립플로어)
미디어 스튜디오-1
미디어 스튜디오-2
동아리실동아리실 -1
동아리실동아리실 -2
STEAM Zone
음악상습실
미술공방실
GX/연습실
너른 마당
자치 회의실
취미 여가실-1
취미 여가실-2
실내체육실-1
실내체육실-2
2층 평면도

사업부지 경계선
수면실
자료실
원아실 1
원아실 2
교사실
유희실
어린이집
건축한계선(0.5M)
공원
어린이집 출입구
어린이 도서관 출입구
보행자 부진입구
도서관 부출입구
지하 구조물
사업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운영사무실
차량 진출입구
보행자 주진입구
보행자 주진입구
20M도로
건축한계선(1M)
도로 경계선
1층 평면도

동탄2신도시 초9 학교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가작

Dongtan 2 New City Elementary School 9 Block Resident complex center

발주자 : 동탄신도시

설계자 : 한상묵 KIRA | ㈜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김동훈 KIRA | ㈜진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보회, 정순원, 고경곡, 백경욱, 박진용(에스디파트너스)
김홍안, 김수원, 최공은, 윤현승(진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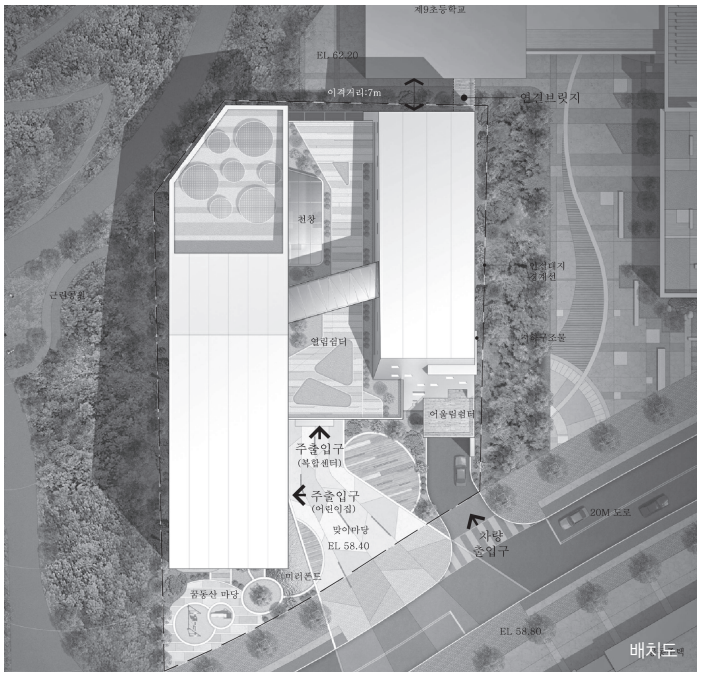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 : 티섹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전기/통신/소방 : 수양엔지니어링
– 토목 : 율현기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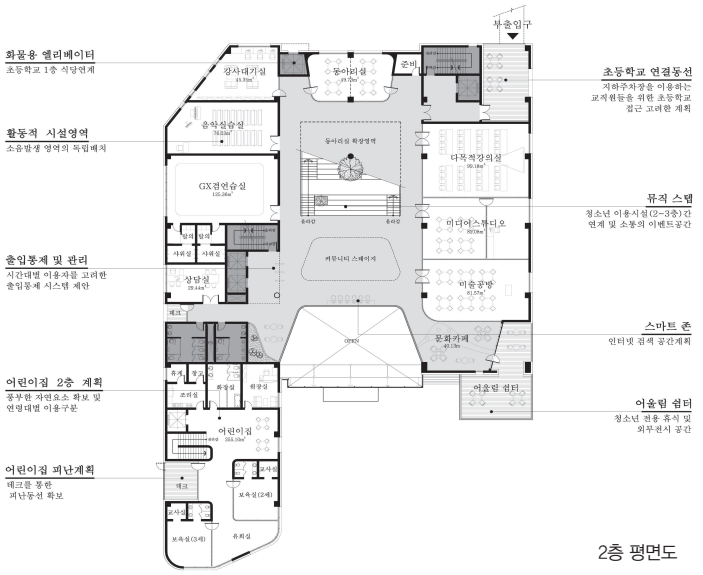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10번지 일원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1,003.00㎡(복합화시설 2,701.00㎡ / 학교시설 8,302.00㎡)
건축면적 6,116.47㎡(복합화시설 1,796.47㎡ / 학교시설 4,320.00㎡)
연 면 적 22,832.50㎡(복합화시설 10,326.50㎡ / 학교시설 12,506.00㎡)
건 폐 율 55.59%
용 적 률 170.50%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2층 ~ 지상5층
주요마감 백색컬러콘크리트, 고밀도목재패널, 금속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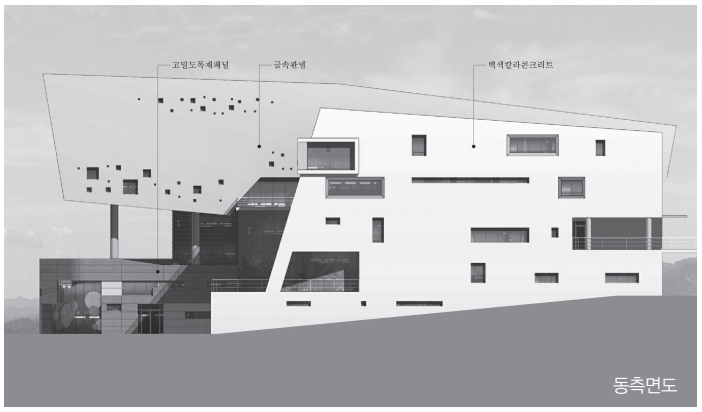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초등학교9블록 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가하는 문화,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주민 간, 세대 간의 교류 감소로 낮아진 지역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학교와의 복합화를 통한 토지이용효율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시설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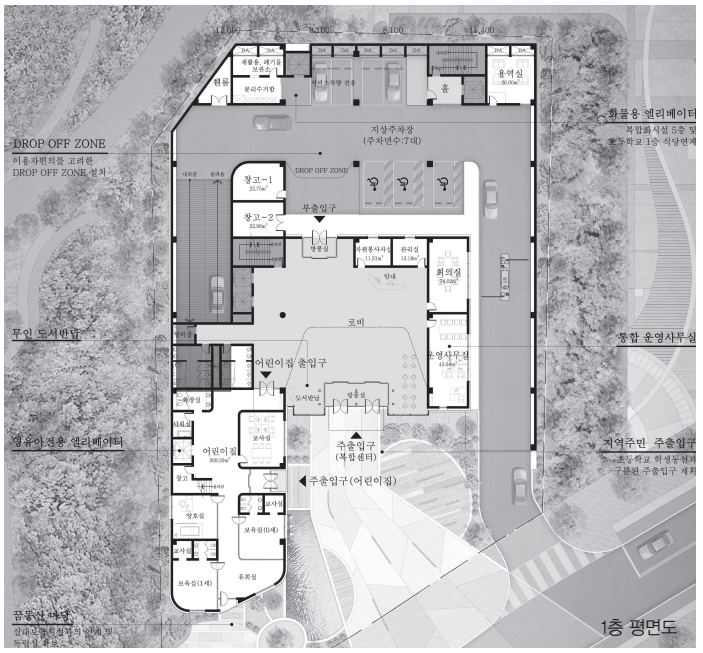
계획안의 개념인 "이음"을 통하여 세대와 세대, 학교와 주민,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소통과 교류의 중심시설을 계획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증대를 위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내 · 외부 공간 및 매스의 구성도 기능 간 연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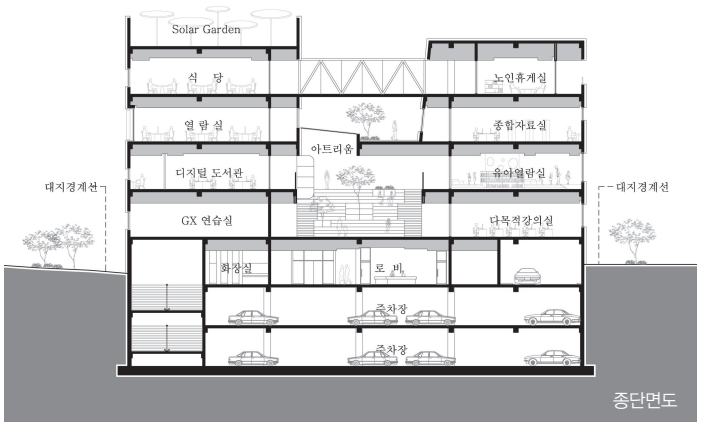
계획안의 주안점은 중심공간인 중앙 아트리움, 커뮤니티 계단 등의 공용부 계획으로 시설별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이용 대상을 고려한 수직 및 수평조닝에 의한 기능별 명확한 조닝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하고, 초등학생과 일반인의 동선 교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및 시스템을 구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설계기법의 적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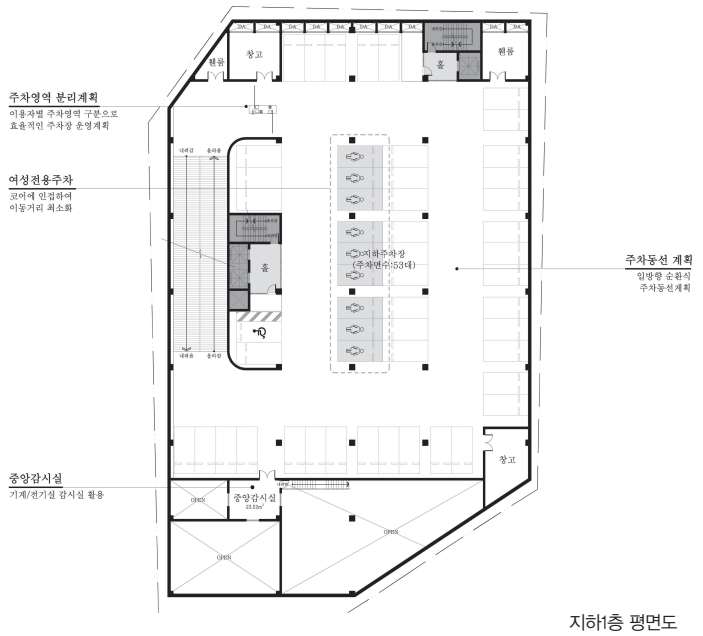

제9초등학교
EL 62.20
이격거리:7m
열섬브릿지
천창
열섬대지
경계선
근린광회
열림쉼터
어울림쉼터
주출입구
(복합센터)
주출입구
(어린이집)
맞이마당
EL 58.40
차량
출입구
20M 도로
미러폰드
꿈동산 마당
EL 58.80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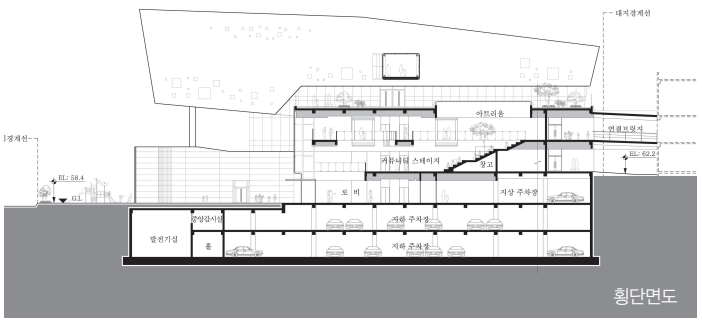

화물용 엘리베이터
초등학교 1층 식당연계
활동적 시설영역
소음발생 영역의 독립배치
출입통제 및 관리
시간대별 이용자를 고려한
출입통제 시스템 제안
어린이집 2층 계획
풍부한 자연효소 확보 및
연령대별 이용구분
어린이집 피난계획
테크를 통한
피난동선 확보
부출입구
초등학교 연결동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초등학교
접근 고려한 계획
뮤직 스탭
청소년 이용시설(2~3중)간
연계 및 소통의 이벤트공간
스마트 존
인터넷 검색 공간계획
어울림 쉼터
청소년 전용 휴식 및
외부전시 공간
2층 평면도


고밀도목재패널
금속판넬
백색칼라콘크리트
동측면도


DROP OFF ZONE
이용자편의를 고려한
DROP OFF ZONE 설치
무인 도서반납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복합화시설 5층 및
초등학교1층 식당연계
종합 운영사무실
지역주민 주출입구
초등학교 학생동선과
구분된 주출입구 계획
지상주차장
(주차댄수:7대)
부출입구
어린이집 출입구
주출입구
(복합센터)
주출입구(어린이집)
로비
회의실
운영사무실
창고-1
창고-2
어린이집
보육실
1층 평면도


Solar Garden
식 당
노인휴게실
열 람 실
종합자료실
아트리움
디지털 도서관
유아열람실
대지경계선
GX 연습실
다목적강의실
화장실
로 비
주차장
주차장
종단면도


주차영역 분리계획
이용자별 주차영역 구분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계획
여성전용주차
코어에 인접하여
이동거리 최소화
주차동선 계획
일방향 순환식
주차동선계획
중앙감시실
기계/전기실 감시실 활용
지하1층 평면도


대지경계선
아트리움
연결브릿지
EL: 62.2
EL: 58.4
GL
로 비
지상 주차장
중앙감시실
발전기실
홀
지하 공원장
횡단면도

충청남도건축사회 회관 당선작

The KIRA Chungnam A Chap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Office Building

발주자 : 충청남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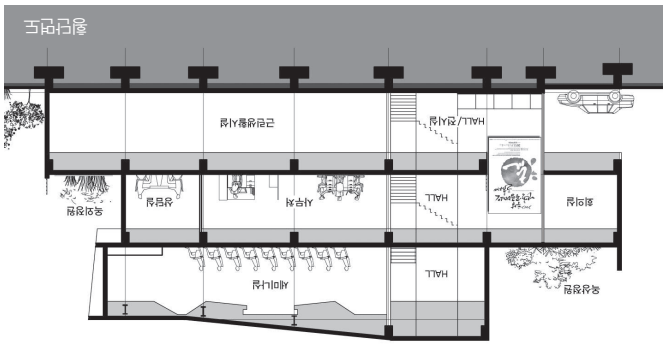
설계자 : 서광원 KIRA | ㈜예가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이은숙, 조흥태, 송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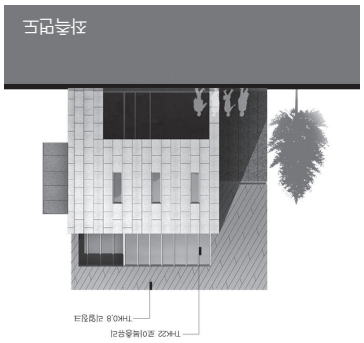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47-9번지
주요용도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850.00㎡
건축면적 335.84㎡
연 면 적 543.90㎡
건 폐 율 39.51%(법정 : 40%)
용 적 률 63.98%(법정 : 100%)
규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상2층
주요마감 화강석, 적삼목, 로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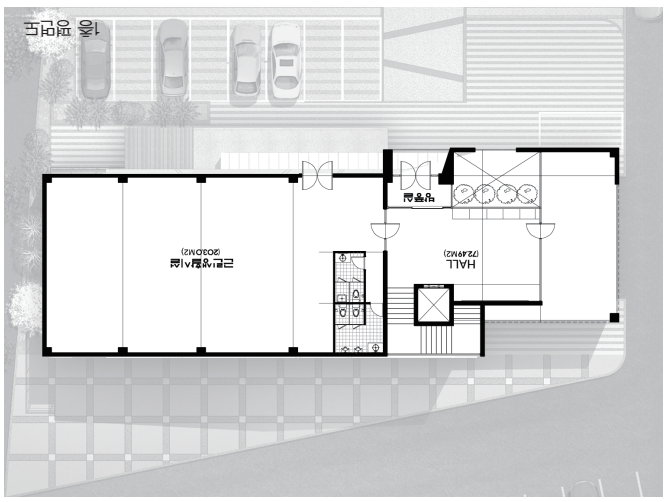
충남도청이 2013년 내포신도시(홍성, 예산)로 이전함에 따라 충남건축사회는 대전 50여년 역사를 마감하고 충남 예산(삽교읍 신리 347-9번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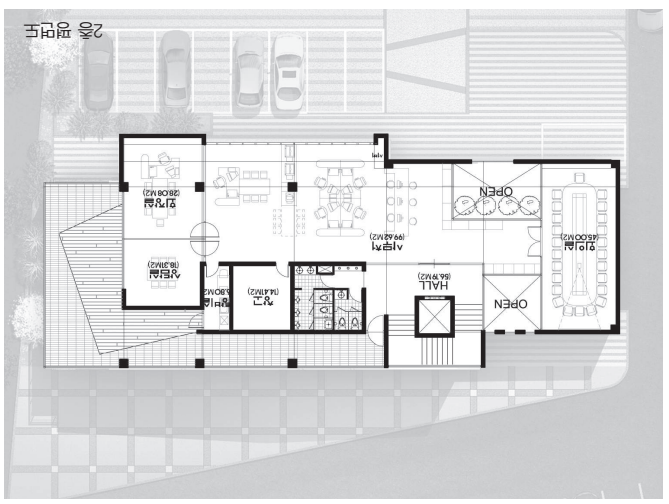
새롭게 탄생할 충청남도건축사회 회관은 사회가 건축사를 바라보는 시각인 관념의 창(窓), 건축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인 통찰의 창(窓), 그리고 협회는 건축사와 사회를 유기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소통의 창(窓)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어 지상 2층(3층으로 증축 예정), 연면적 543.90㎡(200㎡ 세미나실 증축 예정)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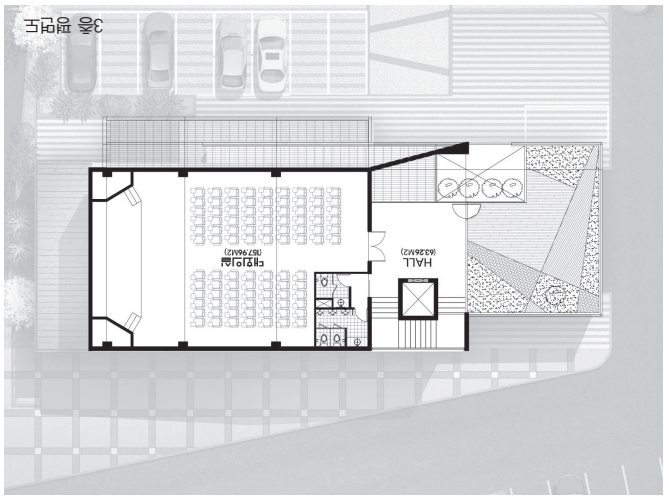
제한된 사업규모와 사업지 여건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고 업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공용공간을 집약 계획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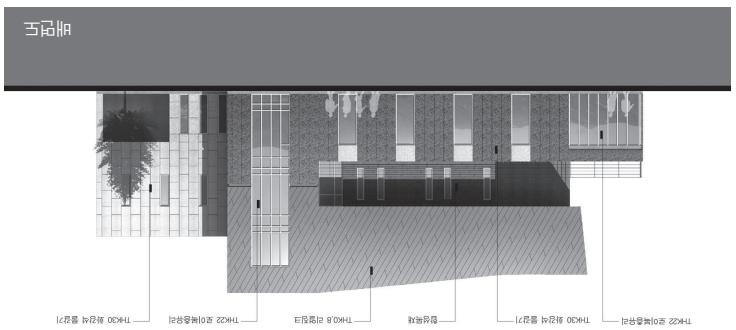

옥외정원
서비스실
HALL
HALL
사무처
회의실
상담실
옥외정원
근린생활시설
HALL/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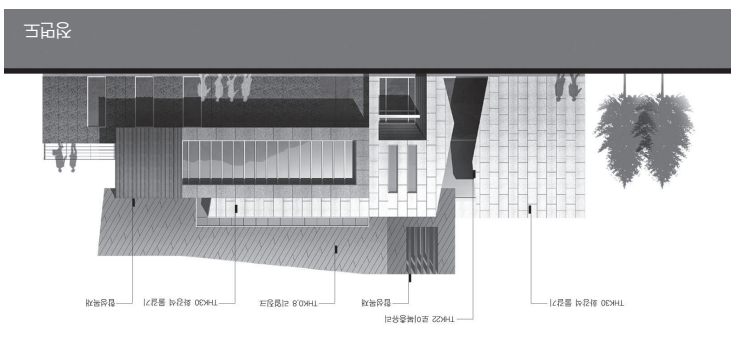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0.8 리벌침크
THK22 로이복층유리
THK0.8 리벌침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0.8 리벌침크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0.8 리벌침크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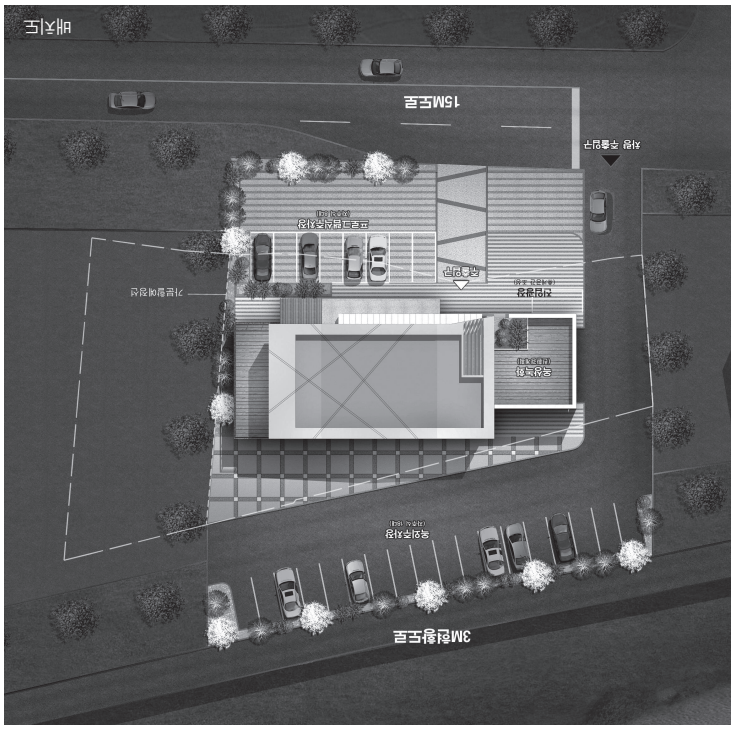

HALL
(224㎡)
보일러실
근린생활시설
(203.0㎡)


OPEN
HALL
(54.97㎡)
사무처
(99.42㎡)
회의실
(45.00㎡)
휴게실
(18.23㎡)
창고
(14.17㎡)
휴게실
(28.08㎡)


HALL
(63.28㎡)
다목적홀
(157.96㎡)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0.8 리벌침크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22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0.8 리벌침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30 화강석 물갈기


3M현황도로
옥외주차장
(4대 주차 가능)
기존블록담장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
(4개호 소유)
15M도로
차량 주출입구

사소한 일상의 정석,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Trifling Everyday's Formulas, What are Yours?

연필 깎기의 정석 데이비드 리스 지음 | 정은주 옮김 | 프로파간다

당신은 일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정신없이 일과를 보내고 하루하루를 살다보니 꽃에 물을 주는 일도, 청소를 하거나 이불의 먼지를 터는 일도 귀찮아지고 쉽게 며칠을 넘기게 된다. 그러다보면 시든 꽃과, 먼지 쌓인 책장을 통해 스스로의 게으름을 확인하는 동시에 바쁜 일상을 확인하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다.

키우는 식물이 싹과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생의 의지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보송보송하게 햇빛 아래에서 팡팡 이불먼지를 털면서 즐거운 오후라고 생각하는 기쁨이 결코 나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여기에 제목만 보아도 쇼킹한 책 한 권이 있다. 〈연필 깎기의 정석〉이 바로 그것.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샤프나 볼펜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 책을 만나면서 잊고 있던 연필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필을 깎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혹은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정치 풍자 만화가로 부시 행정부 시절 친구들에게 '겟 유어 워 온(Get your war on)'을 보내어 유명세를 타게 된 저자는 독특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이자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이자 일상을 돌아보라는 일종의 재미있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책을 들여다보면 연필을 올바르게 깎는 방법과 연필을 잘 깎기 위해 고민했던 그의 정직한 노력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HB 연필 한 자루를 잘 깎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와 도구도 적혀 있으며, 만약 아이의 놀이의 일환으로 연필을 깎는다면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도 소개되어 있다. 직업별 연필 깎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써 있기도 하며, 부록으로는 연필 맛이 나는 와인이나 연필 전문 사이트, 연필애호가들의 성지 같은 관련 정보들까지, 재미가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사전처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책을 왜 쓰게 된 것일까.

저자의 후기에는 그가 책을 쓰도록 영감을 준 1940년에 출간된 선박설비 입문서의 한 구절이 나와 있다. 지어질 배의 입장에서 쓰인 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를 올곧게 지어주오, 오 솜씨 좋은 명인이여. 튼튼하고 강한 배를 지어주오. 온갖 재난이 닥쳐도 끄떡없고 모진 풍파를 만나도 당당히 맞서 싸울, 그런 훌륭한 배를 지어 주오."

저자가 괴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는 연필 깎기의 장인이다. "수학의 정석"처럼 연필 하나를 깎는 데 있어 진짜 정석 책을 만들어내었다. 아무것도 아닌 연필깎기가 그에겐 예술가의 혼과 정성이 깃든 예술작품인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아낌 받길 원하 듯, 연필이라면 나를 훌륭하게 깎아 쓰고 아껴주고 생각해 주길 바라지 않을까하는 마음을 읽어낸 듯하다. 현대인은 모두 외로움을 필수불가결하게 안고 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변에 항상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듯하다.

프렌치 라벤더를 잘 키우는 방법이나 설거지를 잘하는 방법, 혹은 이불을 잘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키우는 식물, 예쁘다고 하나씩 모아온 그릇, 혹은 항상 내 잠자리를 포근하게 하는 이불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바쁨을 핑계 삼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글 | **변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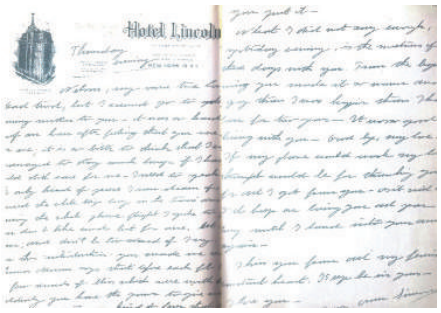
연애편지를 읽다 열 두번째 이야기

글. **정이숙_** Jeong, Yi-suk
비트윈커뮤니케이션 대표

"당신을 실제로 팔에 안을 수 없다는 것이 자주 고통스러워요. 넬슨, 나의 남편, 나의 연인."*

I am Often in Anguish, for I Can Not Actually Embrace you in My Arms. Nelson, My Hus, My Dear.

계약결혼한 상태에서 뜨거운 사랑을 앓았던 보부아르의 연애편지



『연애편지』에 실린 보부아르의 편지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는 스물한 살이던 1929년에 스물네 살의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를 만나 계약결혼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계약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들의 계약결혼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명합니다. 그 조건은 첫째,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서로 허락한다. 둘째,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 셋째,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학교수 시험에 수석과 차석으로 나란히 합격할 정도로 똑똑했고, 서로를 지식의 훌륭한 반려자와 완벽한 대화상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결혼 생활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 주변의 여자들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르트르가 자신의 여성 편력을 보부아르에게 모두 말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부아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여성 편력과 남성 편력을 펼치며 수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계약결혼은 사르트르가 죽을 때까지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1947년 보부아르는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때 넬슨 앨그렌(Nelson Algren 1909~1981)이라는 미국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전략)… 잠자러 가기 전에 당신 책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제가 당신에게 매우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중략)… 저는 당신과 함께 행복했었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어쩌면 제 생애에 다시 못 만날 이별의 인사 '아듀'를 고한다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어요. …(중략)… 안녕이건 아듀건, 저는 시카고에서 보낸 이 이틀을 잊지 않겠어요. 제 말은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947년 2월 23일 토요일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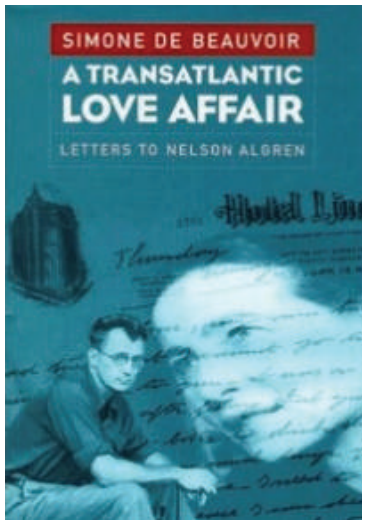
보부아르가 앨그렌을 처음 만나 하루 저녁과 다음 날 오후를 함께 보낸 후에 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녀는 앨그렌을 통해 남녀의 사랑이 얼마만큼 뜨거울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앨그렌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며 1964년까지 17년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프랑스어를 모르는 넬슨을 위해 영어로 편지를 쓴 보부아르는 실존주의와 페미니즘 여전사의 모습보다는 정열적이고 관능적이며 다정다감한 여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넬슨, 단 하나의 내 사랑. 이별 중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가장 달콤했던 것은 당신의 따뜻하고 귀중한 사랑을 그처럼 강하게 느꼈던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속해 있고 대양을 넘어서 결합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당신의 선하고 진정 어린 마음속에 안전하게 있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들에게 키스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는 가슴도, 그리고 제 입술만큼 정다운 입술도 당신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후략)…

1949년 9월 13일 화요일 저녁

앨그렌과 보부아르 | Sun-Times File Photo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미국판 『연애편지』의 표지

2014년 4월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보부아르의 편지들

…(전략)… 나의 달콤한 연인, 어떤 집을 골랐나요? 당신의 선하고 따뜻한 가슴 속에 저를 위해 자리를 하나 간직해 두기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당신을 탐욕스럽게 원해요. 매일 밤 저는 당신의 두 팔 안에서 잠을 잔답니다.

1950년 5월 21일 일요일

그녀의 편지에는 연인에 대한 감미롭고 뜨거운 사랑, 자신의 독서 편력과 여행에 대한 열망, 사르트르와 자신의 관계, 당시 파리 지식인들의 삶 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거의 모든 편지에 보부아르의 계약결혼 상대인 사르트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보부아르의 미국 방문은 여러 번 이어졌고, 앨그렌은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보부아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앨그렌과 살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주부 노릇도 받아들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 빠졌었지만 청혼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앨그렌은 떨어져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하지만, 그 뒤로도 10년 이상 편지교환은 이어졌습니다. 사르트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별 얘기를 하지 않았고, 보부아르의 편지를 보면 죽기 전에 다시 만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보부아르가 앨그렌에게 쓴 편지 304통은 보부아르의 양녀이자 철학교수인 실비 르 봉 드 보부아르(Sylvie Le Bon-de Beauvoir)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997년 『Lettres Nelson Algre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됩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Love Affair』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부아르가 앨그렌에게 보낸 편지는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 대학이 한 경매에서 입수하였고, 앨그렌이 보부아르에게 보낸 편지들은 보부아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낸 편지들을 순서대로 교차시켜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예정이었으나, 앨그렌의 미국 대리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보부아르의 편지만 출판되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당신. 어떤 편지도 부치지 않고, 어떤 편지도 도착하지 않는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당신에 관한 몇 가지 소식들이 새어 들어왔어요. …(중략)… 사르트르는 놀랍도록 잘 지내고 있어요. 그는 몸이 아주 말랐어요. …(중략)… 전 당신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낼 거예요. …(중략)… 소중한 늙은 바보, 멋 내느라 너무 바쁘지만 않다면 소식 좀 보내줘요. 언제나처럼 큰 사랑을 보내요.

1964년 11월

두 사람의 교류는 1964년 앨그렌이 미국에서 출판된 보부아르의 회고록 『사물의 힘』에 공개적으로 적개심과 공격성을 표현한 이후에 완전히 끝납니다. 앨그렌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보부아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합했다면, 그래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상을 공유했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절절한 연애편지는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겠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일부러 이루지 않은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 1947년 12월 27일 보부아르의 편지 중에서
** 보부아르의 계약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전광배 지음 | 살림출판사 2007)을 참조했습니다.
*** 보부아르의 연애편지는 『시몬 드 보부아르 연애편지』(이정순 옮김 | 열림원 1999)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일조방해

Blocking Sunlight

일조방해는 보통 인접한 남쪽토지 이용자가 그 위에 건물 등을 설치하여 북쪽토지 이용자가 남쪽토지 위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는 일조권(日照權)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일조방해를 당한 토지이용자는 이로 인해 신체 · 정신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거나 난방비 · 조명비 등의 추가 부담, 토지 · 건물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조방해를 당한 토지이용자는 이에 대한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조방해행위가 있다 하여 모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그 판단기준으로 이른바 수인한도론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일조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일조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다만, 판례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입장이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참조) 일조시간이 반드시 수인한도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참조).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건물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전비용이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비용 상당액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도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 청구하는 경우 장래 공작물 등을 사용 · 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글. **전영백**_ Chun, Young-pai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정교수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 : 현대 작가(Contemporary Artist) 6人의 '건축적' 미술작업

1.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건축과 미술의 친밀한 관계

현대미술을 이끄는 전방의 작업들은 무척 다양하지만, 그 대표적 작업들에선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규모가 크고, 공간과의 연계가 밀접하며 건축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작품을 대하는 관람자는 독특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작업에의 몰두(Absorption)를 넘어 '침잠(Immersion)'하게 된다는 점이다. 작품을 관조하거나 시각적으로 몰입하는 지각 방식은 이미 옛말이다. 거리를 두고 눈으로 보기보다 이젠 작품을 몸으로 느끼고 공감각적으로 체험한다. 이 때 공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공간에 얽힌 주체의 기억이 작업의 테마로 자주 등장한다. 작품을 공간적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작품 주위를 돌거나, 심지어 작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건축적 체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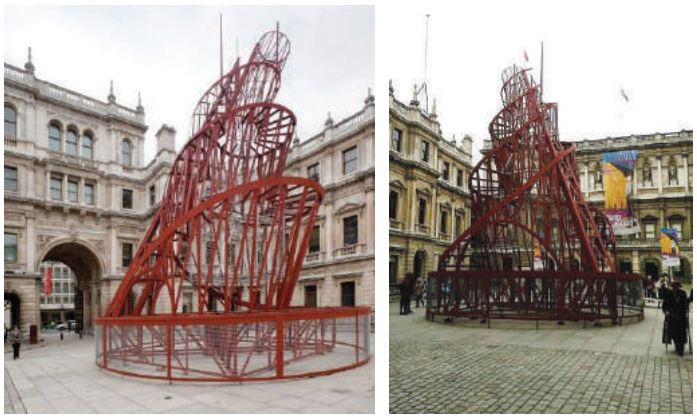
도1) Marino Auriti, Il Enciclopedico Palazzo del Mondo(The Encyclopedic Palace of the World), c.1950s, Installation View, Arsenale. Courtesy : La Biennale di Venezia(2013)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 이래 영국(런던) 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외출판(Blackwell, Routledge 등)에 주력해 왔다. 『세잔의 사과』(문광부선정 우수학술도서)와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등 10권의 저서와 17편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러한 건축과 미술의 흐릿한 경계를 체감하게 한 적절한 기획이었다. 비엔날레 주제의 상징으로 제시된 것은, '백과사전식 궁전 The Encyclopedic Palace'이라는 이탈리아계 미국 작가 마리노 오리티(Marino Auriti)가 제작한 동일한 제목의 건물모형**(도1)**이었다. 136층의 이 건물은 그가 1955년, 700m 높이로 워싱턴 D.C.의 16개 블록을 차지하도록 계획했던 거대한 가상 모형이었다. 이 야심만만한 오리티의 계획은 범우주적 박물관, 즉 바퀴에서 위성까지 인류가 발명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식의 박물관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유토피아적 구상이 실현될 수 없던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 건축디자인의 의미는, 그리고 이를 비엔날레의 주제로 가져온 이유는 그보다 다층적이라 생각된다. 지식의 총체를 수집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전형적인 (미국식)모더니즘의 단면을 보여주며 포스트모던의 시기를 성찰하려 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오리티의 건축조형은 그렇듯 당찬 구상을 가질 수 있던 모더니즘 시기, 지적 자신감이 턱없이 충만했던 미국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상징한다. 때문에, 나는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모더니즘의 환상, 혹은 신화를 오늘날 미술적으로 되돌아본 계기였다고 정리한다. 유토피아의 꿈은 그것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류의 지식과 예술을 모두 모으려는 백과사전적 비엔날레는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포했다. 오리티의 조형물을 시작으로 전시된 끝없이 많은 작품들을 관람하는 동안, 유토피아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비판이 계속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티의 건축조형을 도입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렇듯 상징적 건축물을 미술기획의 핵심 소재로 활용한 최근의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건축은 고대부터 미술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 현대로만 국한할 때, 건축은 20세기 조각의 발달과 해체에 중요한 참조가 되어 왔다. 구축주의의 이성적 실험이나 다다의 흥분 어린 모험은 구체적인 건축물로 구현되곤 하였다. 그 중,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Tatlin)의 〈제3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물〉**(도2)**은 이루지 못한 사회주의 혁명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구축주의 미술의 개념이 사회주의 혁명이념에 부응하여 제작된 이 조형물은 1920년에 모스크바에서 전시되었다. 빠르게 진보하는 혁명기 러시아 사회의 역동성을 소용돌이 구조로 나타낸 이 작업은 실현을 목표로 기능성을 겸비한 건축물이었다.


도2) The Tatlin's Tower model at the Royal Academy in London, 2011

건축에 조각이 개입하는 양상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더욱 두드러졌다. 현대의 포스트모던 미술 흐름에 뼈대를 이루는 미니멀리즘, 포스트미니멀리즘, 프로세스 아트, 대지미술, 개념미술, 퍼포먼스 아트, 제도 비판, 설치미술, 그리고 장소 특정적 미술은 대부분 공간과 밀접하게, 또 건축과 연계되어 진행돼 왔다. 더구나 요즈음 현대미술에서 설치작업이 대세가 되면서, 전방위 작업들은 건축적 구성과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작업은 그것이 놓이는 설치공간과 하나로 통합되고 건축-공간-작업은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다. 그러한 현대미술의 경향을 시작한 작가는 누구일까? 미술사가에게 당연히 떠오르는 작가는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 : 1939~)**(도3)**이다. 세라의 조각설치 작

도3) Artist Richard Serra Stands in front of "Pacific Judson Murphy"(1978) one his Many Pieces on Display in a Retrospective Show of Drawings at the Modern Musuem of Art, 2011

업은 건축전문가에게 미적 영감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연구(Case Study)라 생각된다.

최근의 세라 : 2014년, 뉴욕 맨하튼의 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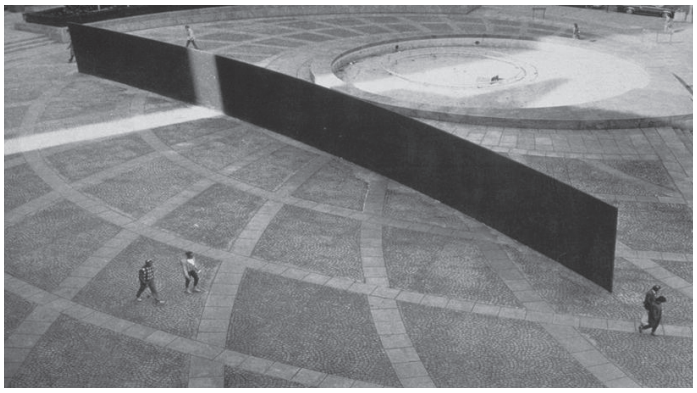
필자가 세라를 본 가장 최근의 전시는 뉴욕 맨하튼 첼시의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 개인전이었다. 세계적 선두주자인 가고시안이 첼시의 두 곳에서나 세라를 대대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사설 갤러리라기보다 미술관급 기획으로, 전시공간을 온통 완전히 세라의 작품으로 가득 채운 충격적 전시였다. 〈뒤집기 Inside Out〉(2013)**(도4)** 역시 세라다운 센세이션이었다.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연속적인 한 덩어리로 가득 들어가 있는 세라의 작업은 조각이 아니라 건축임을 드러냈다. 사실 그의 설치작은 조각과 건축의 구분을 무색하게 한 작업이었다. 그의 시그니쳐 재료인 녹슨 강철판은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압도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거대한 강철판의 유선형 굴곡과 그 맺음, 그리고 공간을 애무하듯 어우르는 곡선의 흐름은 가히 공학과 미학이 만난 산업적 아름다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특유의 절제와 간결함이란! 이 〈뒤집기 Inside Out〉는 위에서 내려 보아, 철로 된 두 개의 리본이 서로 얽혀 있는 모양이지만, 관람자 입장에서는 회오리 형태의 타원형이 만든 좁은 통로를 걸어가며 공간에 대한 몸의 체험을 감지하게 된다. 세라는 이렇듯 건축적 조각의 유선형 구조와 연관하여, 바로크 성당이나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채플, 그리고 이스

도4) Richard Serra, Inside Out, 2013, Weatherproof Steel, 158 x 982 x 482 1/2 inches(401.3 x 2,494.3 x 1,225.6 cm), Gagosian Gallery

탄불의 하기아 소피아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맞은 편 24가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열린 또 다른 전시에서 대면하는 거대 설치작 〈7개의 판, 6개의 각도 7 Plates, 6 Angles〉(2013)**(도5)**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세라를 오늘날로 '업데이트한 세라'로 보여준 듯 했다. 지그재그 구성된 철판

도5) Richard Serra, 7 Plates, 6 Angles, 2013, 7 Plates, Weatherproof Steel, Each Plate : 8′ x 40′ x 8″; Overall Dimensions : 8′ x 44′ x 81′, Gagosian Gallery



도6) Richard Serra, Tilted Arc, 1981, Sculpture, Steel, New York City(Destroyed)

이 공간을 분할하며 가득 메우는 설치였는데, 이전과 동일한 작품의 원리를 가졌으나 규모가 커지고 스펙터클 해졌다고나 할까. 더구나 미술관에서나 만나던 세라의 대작을 갤러리 공간에서 가깝게 접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그의 유명한 〈기울어진 호 Tilted Arc〉(1981)**(도6)**를 다시 대변하는

일종의 '데자뷔(Deja-vu)'를 제공했고, 충격은 강렬했다.

그렇다면, 〈기울어진 호 Tilted Arc〉를 비롯, '세라'라는 명성(Big Name)을 갖게 한 그의 지적 · 미술적 배경을 요점만 살펴보자.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세라는 1986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가지면서 세계적 작가로서의 정점을 찍었다.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영문학을 공부, Yale University School of Art and Architecture 석사과정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서부에 있을 때 강철 공장에서 작업하며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후기작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부친이 파이프 수리를 했던 샌프란시스코 선착장에서 재료에 관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1968년부터 자신의 독특한 재료로 납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뉴욕에 거주하여 작업해 왔는데, 이 때 함께 활동하던 작가로는 칼 앙드레, 월터 드 마리아, 에바 헤세, 솔 르윗, 그리고 로버트 스미드슨과 같은 현대미술의 대표주자들이 있다.

세라는 대지미술가 스미드슨을 보조하면서 환경미술을 접했는데, 그 과정에 장소 특정성이나 환경에 통합된 부분으로서의 미술작업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작품을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서, 그는 작품과의 물리적 · 시각적 관계뿐 아니라 작품이 창출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때문에 그의 작품을 대할 때, 관람자는 작품 주위를 걸으며 시각뿐 아니라 몸의 감각을 활용하게 되고, 작품과 공간이 만들어 내는 미적 체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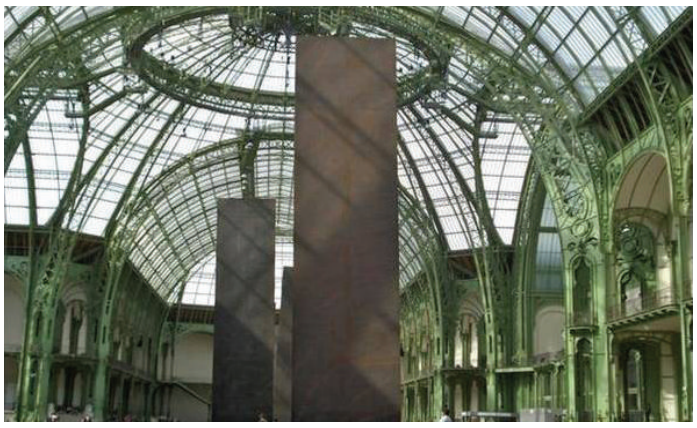
공간에 개입하는 세라의 작업은 도시의 일상공간에 대담하게 설치되며 공공미술의 쟁점을 불러 일으켰다. 1981년, 맨하튼 연방 플라자의 분주한 공간에 설치된 그의 대규모 작품 〈기울어진 호 Tilted Arc〉는 미술사에 남는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 그 유명세가 작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도 기인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은 세라의 작가 경력에 "악명 높은" 평판을 남겼다. 플라자 공간을 가로질러 건물을 향해 바삐 들어가야 하던 사무원들은 늘 다니던 행로를 막아 버티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강철판을 환영했을 리 없다. 건물로 향하는 직선코스를 흉물스런 조형물로 인해 불필요하게 돌아가야 했고, 또 이렇듯 실용성이 없는 녹슨 철판 설치는 그 외관마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비난과 그에 따른 법정 소송 및 공청회는 당시 현대미술의 이슈에 일반 사회의 주목을 집중시킨 센세이션이었다. 여기서 이슈가 된 것은 '장소 특정성(Site Specificity)'이었다.

이러한 장소 특정성은 현대미술과 건축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특히 부각된 이 개념으로 인해 친밀해진 미술과 건축의 관계는 오늘날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 연관을 맺고 있다. 그 법정 공방 중, 세라는 장소 특정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작품을 그 설치된 장소에서 제거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공적 공간의 현대미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그에 대한 대중 의견의 역할을 활성화시켰다. 청문회 결과, 법정은 〈기울어진 호〉를 플라자에서 영구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세라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치작은 1989년 최종 해체되어 연방 플라자에서 철거되었다.

세라와 그랑 팔레(Grand Palais)의 모뉴멘타(Monumenta)

세라의 작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포스트모던 미술의 선두주자로서 장소 특정적 조각의 경향을 이끌어 왔다. 그는 공간과 조각, 그리고 관객 체험 사이의 3자 구조에 기반한 미적 개념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된다. 말하자면 구조적 기획이 돋보이는 조각 작업이다. 관람자에게 '현장의 작업(Work in

도7) Richard Serra, Promenade, 2008, Monumenta, Grand Palais, Paris



도8) Richard Serra, Promenade, 2008, Monumenta, Grand Palais, Paris

Situ)'을 신체적으로 체험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이성적, 비판적 인식이 아닌 현상학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라 작업에서 보는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한 주체의 '침잠'은 조각이 점차 건축에 의존하게 된 근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람자의 침잠을 의도하여 본격적 작업을 보여준 기획은 역시나 2008년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린 모뉴멘타(Monumenta) 전시였다.**(도7,8)** 프랑스에서 매년 한 번씩 세계적으로 중요한 작가를 선정, 단독 전시의 기회를 주는 영예로운 모뉴멘타에서 세라는 놀라운 단순함과 대담한 간결함으로 그랑 팔레의 우아한 건축을 십분 활용하였다. 〈산책 Promenade〉이라는 작업의 제목이 시사하듯, 작업은 관람자가 발로 걸으며 체험하는 신체적 움직임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중의적으로 이 제목은 인상주의 회화에 내재된 '산책'의 사회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모더니티를 '산책자(Flaneur)'의 시각으로 제시하며 인상주의와 모던 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한 보들레르를 떠올릴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00년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건설된 그랑 팔레는 복합적인 석조 전면(Facade)과 함께, 철과 유리로 된 경쾌하고 명료한 내부의 홀을 자랑한다. 자신만만한 공학적 쾌거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료와 테크놀로지로 볼 때 그 시기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 건물의 수평성이 에펠 탑의 수직성을 보완하며 파리라는 도시의 균형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 우아한 건물에 전시된 그의 〈산책 Promenade〉은 서구의 초기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의 랑데뷰를 구현한다. 그랑 팔레와 세라의 작업은 이질적 조화를 과시했다. 그랑 팔레는 모던한 산업 건물을 화려한 아르누보식 구조로 미화시켰던 반면, 세라의 작업은 그러한 미화를 배제한 채, 단지 조각의 확장된 언어로서의 산업적 구조물을 제시했다. 이 절묘한 대조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속성의 보완을 이룬 듯 했다. 그랑 팔레의 여성적 아름다움은 듬직하고 단순한 세라의 미니멀리즘으로 더욱 돋보였던 것이다. 마치 발레리나의 화려한 부상을 받치는 든든한 발레리노의 팔뚝이 주는 안정감이라고나 할까.

세라의 설치조각은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다. 그것이 놓인 전시공간인 그랑 팔레와 직결돼 있는데, 이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작업의 개방적 특징을 드러낸다.(모더니즘 작업은 자족적이며 스스로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상기한다.) 작업이 놓인 공간, 그랑 팔레는 센느강을 따라가며 만나는 오르세이 미술관(Musee d' Orsay)과 정확히 동시대 건축물이다. 본래 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미술관과 거대한 홀을 구현하는 궁전(팔레)은 19세기의 성당처럼 보였고 종종 기둥, 아치, 궁륭과 뼈대를 드러내며 네이브(nave)를 갖춘 종교적 구성을 갖췄다. 〈산책 Promenade〉은 그러한 역사의 증거인 그랑 팔레가 가진 고고학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세라 작업의 '장소 특정성'이 갖는 확장된 의미다.

세라 작업의 개념 : 공간을 드러내고, 규명하고, 구분하기

세라의 조각설치 작업은 건축과 근본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공간의 지각이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버팀 작품 Prop Pieces〉을 만든 이후 공간의 연속계(Continuum of the Space)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작품을 공간의 연속성에서 지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가는 오브제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공간을 선언하고(Declare) 분

도9) Richard Serra, Torqued Ellipse IV, 1998, Weatherproof Steel, 12' 3" x 26' 6" x 32' 6"(373.4 x 807.7 x 990.6 cm),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할하는(Divide) 것"이라 천명했다. 장소로부터 작품의 지각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세라 작업의 전제이다.

때문에 그의 작업을 보면, 조각이 전시공간을 대담하게 점유하고 관계하기에 거의 신비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전시공간으로 발을 들이면, 관람자는 이미 작업 속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세라는 공간을 제시하고, 규명하고, 구분한다(Declaring, Defining, and Dividing the Space). 그는 말한다. "나는 당신이 작업 안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주위를 둘러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자연으로 열리게 하고 싶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험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까를 고민했다."

세라에게 건축은 구조의 논리이자, 조각의 '상실된 원리'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작품인 그의 〈회전 타원 Torqued Ellipses〉 (도9)은 1998년, LA 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는데, 주요 미술이론가들은 '공간 경험의 교향악'과 같이 조합된 작품이 제공한 큰 감동을 피력했다. 극도로 단순하고 간단한 그의 설치작품이 어떻게 그리도 감동적일 수 있는가? 그것은 전시공간을 대담하게 차지하고 있는 물적 존재감일 수도, 혹은 조형적인 공간구성이 주는 미감(美感)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조각을 탈(脫)신비화하려던 구축주의자와는 달리 이를 신비화하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배격인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나 안소니 카로(Anthony Caro)의 뒤를 잇는다고 보기도 한다.

그는 재료에 있어 변함없이 강철을 쓴다. 생애를 같이 해 온 재료라 말할 정도이다. 재료의 선택은 작가의 감각과 직결된다고 보았던 그다. 형태와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세라의 작업은 "볼륨을 만드는 공간"을 창출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에 그는 "지난 50여 년 간 대부분의 건축은 곡선, 원뿔 혹은 원기둥을 다뤄왔으나 누구도 회전 타원(Torqued Ellipse)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전식 모양을 만드는 것을 고안한 그는 볼티모어의 강철 공장을 인수, 독일의 기술을 찾아 활용했다고 한다.

세라 작업의 미적 근거 : 현상학과 동양미학

세라에게 신체의 지각(Bodily Perception)은 중요한 화두이고, 이는 주로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에서 가져온다. 그는 "어떻게 우리의 몸이 시간과 관계하여 공간을 지각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근거를 메를로 퐁티에서 찾는다. 몸이 우리 지각의 측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의 『지각의 현상학』은 1960년대 후반 세라를 포함한 미국 미니멀리스트들에게 결정적 미학을 제시한 책이었다.

또한 세라는 자신이 47년 전, 1970년대 초 일본 교토에 갔을 때 받은 미적 충격이 그의 작업 전반에 영향을 준 것이라 회고한다. 교토 사당(Temple)의 정원을 거닐면서 스스로 드러내는 건물과 그 정원이야말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움직임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지각 체험은 그에게 중요한 영감이 되었다. 그는 중앙을 집중적으로 구성하는 서양의 르네상스 공간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동양의 공간미학에서 발견하였다. 말하자면, 서양에서 갖는 관람자와 오브제의 개별적 관계와 전혀 다르게, 동양미학은 '시간과 공간에 놓인 오브제'에 관계하는 주체(the Subject Relating to an Object in Time and Space)를 상정하는 것이다. 세라 작업의 핵심적 특성이 된 지점이다.

나가며

포스트모던 시기로 들어선 1960년대 이후, 설치작업을 관람할 때는 작품과 전시공간을 하나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기여한 1등 공신이 바로 세라라는 점은 현대미술의 전공자가 아니면 모를 수 있다. 미술사에서 미니멀리즘과 포스트미니멀리즘에 걸쳐 있는 조각가 세라의 작업은 관람자가 작품을 둘러싼 공간을 반드시 느끼도록 한다. 작품을 둘러싼 공간이 작품의 구성이기에, 엄밀히 말해 그의 작업을 '조각'이라 하기엔 적절치 않다.

세라의 '건축적 설치작업'은 한마디로 공학과 디자인의 훌륭한 만남이다. 그의 설치는 공간을 실제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업 중 하나라 일컫는다. 그래서인지 세라의 작업은 모더니즘의 지각을 포기하지 않는 듯하다. "스테로이드를 맞은 모더니즘(Modernism on Steroids)"이라는 뉴욕 타임즈 기자의 말이 상당히 재치 있게 들린다. 세라는 미술과 공학(테크놀로지), 그리고 관객 참여라는 삼단 구조를 균형 있게 잡는다. 그리고 그의 오래된 작업은 "더 크고, 더 굉장한 스펙터클"을 원하는 오늘날의 미적 감각에 뒤떨어지기는커녕, 젊은 작가보다 오히려 훨씬 묵직하고 대담하게 나가는 노장의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연재. 건축과 삶(6/6)

글. **유현준**_ Yoo, Hyunjoon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어떤 거리는 왜 더 걷고 싶은가?

Why do We Prefer to Walk Down On a Certain Street?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하버드대 졸업 후 리차드 마이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장과 MIT 교환교수를 역임하였고,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한국건축가협회 베스트7, 젊은건축가상, 건축문화공간 대통령상 외 5번의 국제현상설계에서 수상했다. 미국 건축사(AIA)이며, 현재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다.

걷고 싶은 거리와 이벤트 밀도

걷고 싶은 거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걷고 싶은 거리와 성공적인 거리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강남의 테헤란로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는 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반면, 명동 같은 거리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걷고 싶은 거리이기도 하다. 걷고 싶은 거리는 대부분 성공적인 거리이지만, 성공적인 거리라고 해서 반드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먼스케일의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성공적이지만 걷고 싶지 않은 거리들은 대부분 휴먼스케일 수준에서의 체험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거리는 대부분 압도적인 스케일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거리이다.

걷는다는 행위는 평균시속 4km/hr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이 보행속도는 시속 60km/hr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끼는 경험과는 사뭇 다른 체험이다. 따라서 과연 보행속도에 맞추어서 체험하는 변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가를 정량화 해볼 필요가 있다.

휴먼스케일의 체험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가로수의 크기, 인도의 폭, 평행해서 가는 차도의 폭, 거리에 늘어선 점포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보행자가 걸으면서 마주치는 거리 위의 출입구의 빈도수와 걷고 싶은 거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어느 건축사가 미국과 유럽의 도시구조를 비교한 적이 있었다. 그의 비교방법은 간단했다. 동일한 단위면적에 있는 두 도시의 블록코너 개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유럽도시가 단위면적당 블록의 코너 개수가 더 많았다.

실제로 임의의 바르셀로나 구도심과 시카고 도심의 4㎢당 블록코너의 개수를 조사해보았더니 바르셀로나 구도심은 2,025개, 시카고는 1,075개로 그 숫자가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느냐, 곡선으로

테헤란로/출처_ 블로그 Forte(genesis7510)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이나 '격자형 도로망이냐, 방사형 도로망이냐'와 같은 형태상의 차이점, 그리고 '블록의 크기가 반복적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변화하느냐' 등의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단위면적당 블록코너의 개수를 셈으로써 도시의 구조를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비교연구방법을 찾았다는 점에 이 연구방식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자동차가 발명되기 오래전부터 생성된 것으로, 도시 내 도로망들은 사람 혹은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약간 더 빠른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이동수단은 느렸고, 그 느린 이동수단 때문에 사람들의 시간거리가 길게 되고, 따라서 물리적인 도시의 도로망은 짧은 단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로의 결절점이 더 자주 만들어지게 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는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거리가 짧아지고, 따라서 자동차를 위한 교차로는 가끔씩 있어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블록이 크게 구획되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도시에 비해서 보행자가 유럽도시를 걸을 때 더 자주 교차로를 마주치게 되고, 그만큼 보행자는 더 다양한 선택의 경험 혹은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난 도로의 공간감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다.

교차로가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날수록 그 도시는 우연성과 이벤트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보행자들이 거리를 걷게 되면 거리를 따라서 상점들과 건물의 입구가 나타나게 된다. 상점의 입구를 지나게 될 때 보행자는 가게를 들어가거나 혹은 계속해서 길을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한 번 나올 경우, 보행자는 가게를 들어갈 경우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나게 되므로 이벤트 경우의 수는 2번이 된다. 만약에 출입구가 2개 나와서 결과적으로 선택의 경우가 2번이 나오게 되면, 둘 다 안 들어가고 지나치는 경우, 앞의 가게만 들어가는 경우, 뒤의 가게만 들어가는 경우, 두 가게 모두 들어가는 경우, 총 4번의 이벤트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점의 수가 'n'이라면 보행자가 겪을 수 있는 이벤트 경우의 수는 '2^n'이 된다.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말은 보행자가 다른 날 다시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다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뜻함과 동시에 하루를 걷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를 만날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위거리 당 출입구의 수는 거리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단위거리 당 상점의 출입구 숫자가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는 보행자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간의 주도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의 세상(a world)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 먹고, 걷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쉬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간다. 그리고 매 순간 결정하는 각각의 행위들은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 혹은 세상을 결정한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고,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카페에 들어갈 것인가'와 같은 의사결정이 모여서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그날의 세상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도적 선택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오락보다는 자신이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내러티브적인 오락을 선호한다. 또한 수동적으로 고정된 채널의 TV를 보기보다는 여러 개의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는 것을 더 즐겨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상에서 웹서핑하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내용을 주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거리를 걷는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보행자가 선택권이 없는 길을 걷는다면, 이는 마치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TV처럼 수동적이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반면, 출입구를 통한 선택권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거리는 보행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체험을 제공해주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에 다양한 상점입구의 수는 TV의 채널수나 인터넷의 하이퍼링크(Hyperlink)의 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는 보행자에게 변화의 체험을 제공한다. 점포의 출입구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은 조금만 걸어도 새로운 점포의 쇼윈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5m에 한 번씩 점포의 출입구가 나온다는 것은 보행자의 속도를 시속 4km/hr로 보았을 때 4.5초당 새로운 점포의 쇼윈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쇼윈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는 신상품 옷일 수도 있고 식당에 앉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TV를 시청하면서 특별히 볼 채널이 없을 때 2~3초에 한 번씩 채널을 바꾼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특별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서로 다른 채널의 화면 속 영상들이 새로운 시퀀스로 편집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단순하게는 다른 채널로 바뀐다는 변화의 리듬감 때문에도 끊임없이 TV앞에 앉아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4.5초당 점포가 변화된다는 것은 4.5초당 케이블 TV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셋째,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는 매번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체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세종로의 미국대사관 앞 거리에는 정문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보행자는 대사관을 들어가는 경우와 그냥 지나치는 경우 두 가지만 가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홍대 피카소거리/출처_ 대한민국 구석구석

경우 우리는 그냥 지나치게 된다. 이는 세종로의 미국대사관 앞의 길은 항상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제공하는 거리라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길이의 홍대앞 피카소거리를 걸을 때는 매번 다른 기억을 가질 수가 있다. 오늘은 '마포나루'에서 식사를 하고 그 옆의 옷가게를 들어갔지만, 내일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그 옆의 노래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홍대앞 거리에는 다양한 선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선택을 통해 다른 체험이 가능해진다. 이벤트 밀도는 그 거리가 보행자에게 얼마나 다양한 체험과 삶의 주도권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필자가 경험의 밀도를 계산해보니 "명동거리 = 가로수길 〉 홍대앞 피카소거리 〉 강남대로 〉 테헤란로"의 순으로 되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최고값을 가지는 명동거리와 가로수길은 최저값을 가지는 테헤란로의 4.5배 정도 높은 경험의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수치를 해석한다면 가로수길은 테헤란로보다 4.5배 더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명동거리와 신사동의 가로수길이 각각 강북과 강남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량적인 수치와 정성적인 느낌이 비교적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행자의 체험으로 보았을 때 명동거리

신사동 가로수길/출처_ 대한민국 구석구석

와 가로수길은 4.5초당 채널이 바뀐다면 테헤란로는 11초당 채널이 바뀌는 TV에 비유될 수 있었다.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거리의 분위기 차이는 그 거리가 위치한 지역이 형성되었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경우 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문화 및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거리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리가 소규모 민간자본에 의해서 작은 필지에 지어진 작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 때문에 단위거리당 점포의 수가 많아지고 보행자들은 가게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높게 나왔다. 반면, 도시계획에 의해 큰 스케일의 필지와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정비된 지역에서는 거리를 구성하는 단위건물의 규모가 크다. 따라서 단위거리당 보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조건은 도시계획상의 필지 구획규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가장 재미난 경우는 단위거리당 가장 높은 건물수를 보유한 명동이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명동거리 필지의 프로포션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로변으로 접한 면이 좁고 세로로 긴 형태라는 점 때문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도시계획가에 의해서 건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전통식 도심거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좁고 긴 필지라는 조건 이외에도 인접한 건축물과 합벽의 형태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없어 단위거리당 건물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 명동 거리의 특징이다.

이는 주택가로 구성된 홍대앞과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홍대앞의 경우도 주거지역으로서 작은 필지를 구성하고 있지만 단위거리당 건물의 개수는 홍대앞에 8개가 있는 반면 명동에는 15개의 건물이 만들어져 거의 2배에 이른다.

또한 명동거리가 1950년대에 재건축이 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본시장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융권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PF를 통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신 작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 시절 구획된 필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좁은 건축입면이 유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위거리에 더 많은 건물이 들어서는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명동의 단위거리당 건물의 수가 홍대앞이나 가로수거리의 2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의 120m에 있는 입구의 수는 22개로 홍대앞의 20개와 큰 차이가 없으며, 가로수거리와는 같다.

이 같은 이유는 건물의 입면은 좁았지만 결국 한 개의 점포가 입구와 쇼윈도우를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점유해야 하는 폭(약 5m)은 거리에 상관없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점포입구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명동거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사한 5개의 거리 중 유일하게 보행자전용거리(폭 10m)를 형성하고 있어서 건너편 상업가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걷고 싶은 거리는 결국 얼마나 자주 다양한 가게가 들어서 있느냐의 물리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 콤플렉스 건물을 만들더라도 거리와 접한 면은 작은 소규모 가게들과 입구가 높이게 디자인 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과 삶」 연재를 마칩니다. 좋은 글을 본지에 실어주신 유현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고.

글. **김득수**_ Kim, Deuk-soo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2014년도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컨벤션 참관 기행

An Observation Report in 2014 Association of Lao Architects and Civil Engineering(ALACE) Convention

메콩강과 경계를 이룬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2014년 2월 19일(수) 오후 5시 15분 인천공항에 모인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은 칠흑 같은 어둠을 날아 다음날 새벽 1시 30분 라오스 현지에 도착했다. 두 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0분인 셈이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서쪽으로는 태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바다에 면해 있지 않은 나라지만, 라오스의 수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가 그렇듯이 큰 강이 흐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강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유유히 흐르는 메콩강이다. 수도 비엔티안은 메콩강 변에 자리한 매우 매력적인 도시인데, 그들만의 멋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조화롭게 모아 만든 문화의 융합지라고 할 수 있다.

비엔티엔(Vientiane)은 현재 라오스의 수도이자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매우 독특한 곳으로 1958년 독립하기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으며, 특히 사원을 비롯한 주거건축 등 각종 건축물들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오스의 면적은 한반도의 1.1배이며, 대중 종교인 불교는 국민들의 생활에 매우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비록 경제력은 아직 미약하지만, 마치 우리의 60~70년대를 보는 것 같았고 잠시 그때의 정서가 되살아 날 정도로 순수함이 돋보이는 불교 국가였다.

메콩강을 경계로 태국과 접해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20일 새벽에 도착하여 '반사나 리버사이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짧은 수면 후에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컨벤션 엑스포 공식 개막식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을 필두로 라오스에서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20일 오전 11시경 개최된 개막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대표하여 김영수 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김득수 감사(필자)가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를 위해 태국에서 관련인사 4명, 말레이시아에서도 국제위원 4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모든 회원이 전체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등 매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회의에 동석한 각 아세안 건축사 회장을 비롯하여 라오스 부수상 아상 라올리(H.E. Maj. Gen. Asang Laoly)는 리본 커팅 후 한국의 자재전시

루앙프라방을 대표하는 사원 '왓 씨엥통'

회에도 방문해 대한건축사협회 2013년도 건축문화대상 본상 당선작 및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 우수상 수상작품도 둘러보며 공감을 하기도 했다. 특히 친환경 건축자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건축수준에 감탄해 마지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시회를 관람한 우리 대표단 일행은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의 회장단 일행과 더불어 라오스 건축사기술인협회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한 후 건축문화답사를 위해 루앙프라방으로 향했다. 이곳은 라오스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알려진 황금도시의 사원 왓 씨엠통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왕위식이 거행될 정도로 라오스의 예술과 건축을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메콩강과 남칸강이 합류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루앙프라방은 비엔티엔과 경쟁하며 성장한 도시이며, 과거 란상왕국의 중심도시였다. 이 도시는 당시 이 지역 소국출신의 왕자가 크메르(현 캄보디아)로 건너간 후에 그곳에서 공주와 결혼했고, 그 아들인 파 응움(Fa Ngum)이 다시 루앙프라방으로 돌아와 란상왕국을 세운 데서 유래한다. 크메르가 소승불교국가였기 때문에 이곳에도 불교가 유입되었고, 현재 300개가 넘는 불교사원들이 있을 정도로 융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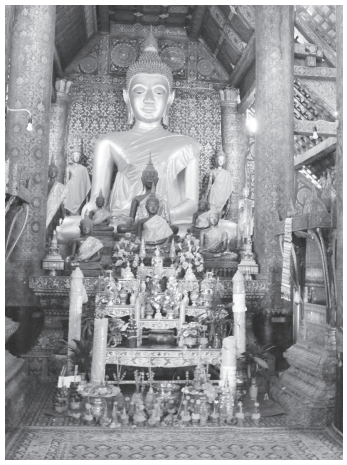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원은 메콩강과 칸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왓 씨엥통(Wat Xiengtong)이다. 1560년 비엔티엔의 탓 루앙(That Luang)을 건설한 셋타티랏(Setthathirath)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 세 겹의 맞배지붕선, 그 흐름이 유려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축기법은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주변국들의 사원들과 현저하게 다른 모양새를 지닌 라오스 전통양식이다. 본당과 불상은 황금색을 비롯한 화려한 색감들로 마감되었으며, 500여장이 넘는 대장경판고와 불탑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후 5시, 1시간 비행거리인 세계문화유산 지정도시인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에 도착, ALACE 전임회장이자 대한건축사협회(KIRA) 명예회원인 생캄 피니스(Sengkham Phinith)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체크인 한 후 옮겨간 곳은 1km 정도로 길게 형성된 야시장이었다.

사람 사는 맛을 느끼려면 시장에 가보라고 했던가? 비록 이른 저녁시간이었지만 야시장은 무척이나 활력이 있었고, 시장거리를 걷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로 보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서민의 삶에서 느껴지는 일상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방인들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고 느긋하게 해주었다. 우리 일행을 인도하며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생캄 피니스 씨의 호의는 주변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후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붉은 지붕들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여행자들을 위한 기념품과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있었으며, 다양한 먹거리가 이곳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왓 씨엥통'의 본당 안에 있는 황금불상

탓루앙사원

루앙프라방의 야시장

태국 신임회장과 함께

둘째 날(2월21일) 조식 후 대표단들은 인구 5만 명이 상주하는 그리 크지 않은 루앙프라방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도시는 관광객이 1만 명이나 거주할 정도로 유명한 라오스의 대표 관광지다.

도시 곳곳에 남아 있는 오래된 유적지와 더불어 식민시대 때 건축된 프랑스풍의 건축물들은 이곳만의 독특한 풍광을 만들고 있었다. 시가지 고적 답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전날 묵었던 호텔로 돌아왔다. 여행의 즐거움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호기심은 나이도 잊게 하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춰진 에너지까지 드러나게 해주었다.

저녁에는 ALACE 회원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초대되어 생캄 피니스 ALACE 전임회장, 폰싸이 쑤티퐁(Phonexay Southiphong) ALACE 회장, 그리고 일본건축사협회 회장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만찬의 끝 무렵에 김영수 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본인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만찬의 흥을 돋우었다. 그렇게 둘째 날의 일정이 끝나갔다.

다음 날 2월 22일(토) 메콩 강 건너편 태국을 바라보면서 잠시 상념에 젖었다. 40여년 전 태국 방콕 건축문화답사를 했던 생각이 떠올라서였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유명한 콰이강(River Kwai)의 다리는 영화보다 진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 차오프라야강의 수상가옥과 수상학교, 그리고 세계7대 불가사의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 받았던 충격과 감탄이 슬그머니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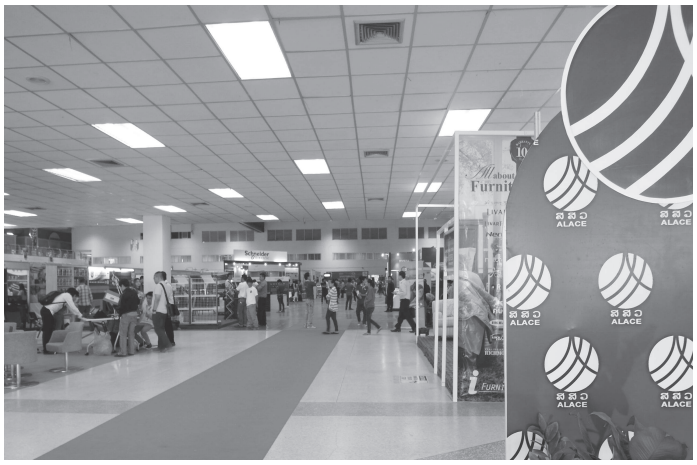
간혹 심한 우기 때는 메콩강의 범람으로 라오스의 수도가 물속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1966년의 범람은 국민을 심각한 충격에 빠뜨리게 할 만큼 피해가 컸다. 이때 일본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콩강 국경을 따라 안전한 제방을 만들어 주었다.

라오스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한국이 나머지 구간 제방공사를 하고 있다. 제방공사가 완료된 곳에는 우리나라 한강이나 대도시 하천의 둔치처럼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각종 이벤트 및 야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둔치의 보행접근성도 우리 한강보다 좋아서 대다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 보였다.

라오스에서 예정된 행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만찬은 김영수 회장의 초대로 생캄 피니스 ALACE 전임회장 부부, 폰싸이 쑤티퐁 ALACE 회장 부부, 총무 부부와 함께 라오스 평양식당에서 이뤄졌다.

본인과 동갑인 생캄 전임회장은 국비로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건축구조 시공 및 계획설계를 전공한 분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설계 및 시공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을 크게 일구었다고 한다.



전시장 내부전경

호텔을 여러 곳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가히 짐작이 간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자국의 건축법에 맞게 설계한다면 그 설계도서는 라오스의 건축법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차후에는 자신들에게 맞는 라오스 건축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라오스에 등록된 건축사는 약 1,000여 명으로 우리와는 달리 설계보다는 건설이나 시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축사가 많다고 했다. 그들은 국가 건설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춘 건축업을 하는 셈이라고 한다.

라오스 인구 600만에 1,000여명 건축사기술인과 우리나라 5,000만 인구에 9,000여 명의 건축사를 비교해 보면 건축사 고유 업무의 비중이 다르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음을 느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셍캄 전임회장의 인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매사에 여유가 있었고, 자신이 봉사하는 단체에 충성하는 자세는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10여 년 전 라오스의 국제건축사연맹(UIA) 가입 및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창설에 관여했고, 지금까지도 ALACE에 몸담아오며 물심양면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역대 회장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알 수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제 2017 UIA 서울 세계건축사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이 일심동체로 함께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더불어 리더의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으로 실천하는 역대회장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행사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초청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모든 경비를 부담한 ALACE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양 협회 회원 모두에게 더 큰 발전과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추억들을 뒤로하고 우정을 간직한 채 라오스 대표단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눈 후 현지시간 22일 오후 11시 경 진에어 편으로 출발해 한국시간 2월 23일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010년 8월 21일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과 ALACE 생캄 피니스 회장은 1차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현재는 김영수 회장과 ALACE 폰싸이 쑤티퐁 회장이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상호교류 협정서 및 실무계획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와 같이 양 국가 협정체결 아래 양 협회에 의해 제공되는 공동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사항은 공식화되었다.

김영수 회장(중앙)이 초대한 김득수 감사, ALACE 총무 부부, 생캄 부부, ALACE 회장, 김지덕 국제위원장(왼쪽부터)

1. 행 사 명 : 2014년도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컨벤션

2. 행사기간 : 2014. 2. 20(목) ~ 24(월)

3. 출장기간 : 2014. 2. 19(수) ~ 24(월) / 25(화) 입국(4박 6일)

4. 장 소 : 라오스 비엔티안 LAO-ITECC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컨벤션센터

5. 숙 박 : 반사나 리버사이드 호텔(Vansana Riverside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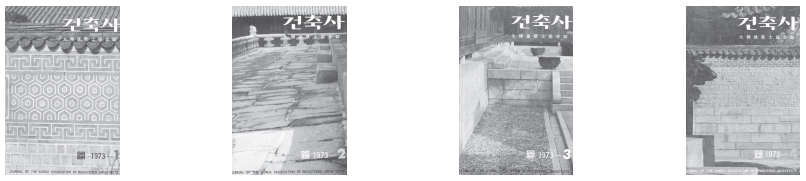
6. 주 최 :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ssociation of Laos Architects and Civil Engineers)

7. 방문목적

가. ALACE 컨벤션 참가

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작품 출품 및 전시참가

글. **최락청**_ Choi, Rak-chung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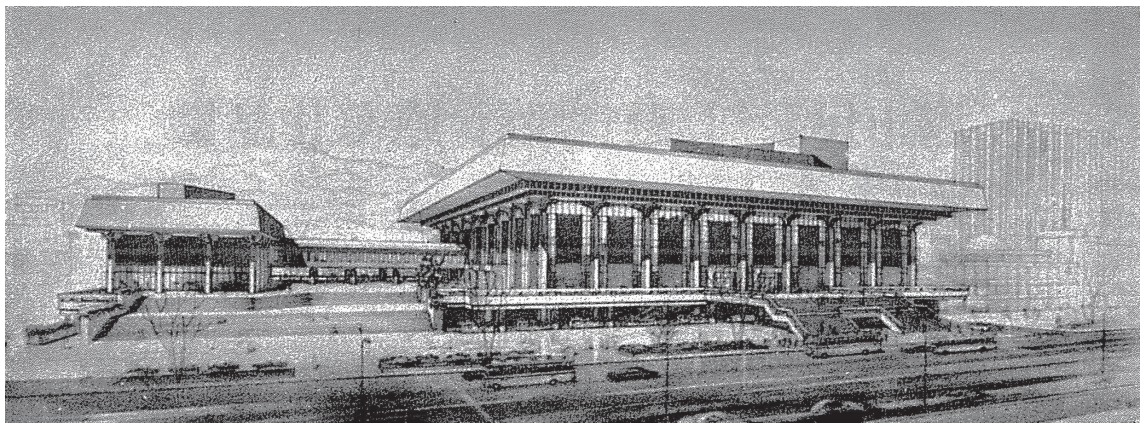
시민회관 현상설계 공모결과

1973년 5월호(통권 55호)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시민회관' 현상공모에 대한 결과가 자세하게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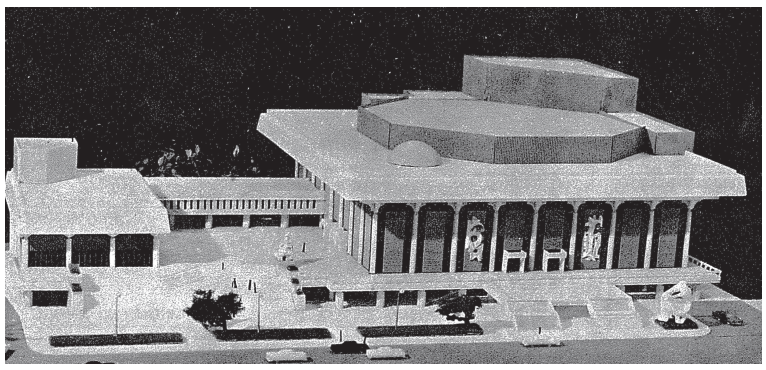
총 24점이 응모돼 우수작 1점에 엄덕문 · 김동훈 · 송명규 · 김용엽(엄덕문 건축연구소), 준우수작 1점에는 이천승 · 나상기 · 강건희(홍익대학), 그리고 가작 3점에 윤도근 외 1인, 홍순인, 안영배, 장려작 2점에는 고주석, 유희준을 선정했다.

심사평에서 "엄덕문 씨는 워커힐 한국관, 공군본부청사, 남서울칸추리크럽 회관, 리틀엔젤스 등 작품을 낸 작가로서 시민회관의 다목적 기능을 잘 소화시켰고 중앙부에 오픈스페이스(광장)을 두어 대강당과 소회의실 및 음악당을 분리함으로써 아늑한 분위기를 주었다. 외관처리에 있어서는 전통미를 살려 현대감성에 맞도록 구상되어 기념성이 있고 주변 환경에 잘 조화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평했다.

엄덕문 건축사는 수상작 소개란에 "시민회관 현상설계 당선에 즈음하여"라는 설계소묘 등을 밝히고는 "최근 몇 차례 석연치 못한 현상공모로 현상 불신의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어쩌면 현상 불신을 건축인의 고정관념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이번 현상에 있어, 오히려 불신풍조를 불식해줄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출발하였다. 다행히 심사과정이 상세히 공개된다니 건축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자라나는 후진들에게 의욕과 사기를 불어넣어주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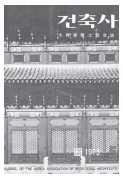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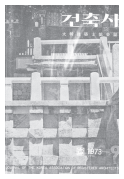
시민회관 우수작 조감도_ 엄덕문 건축사 외 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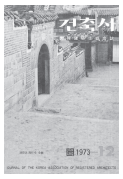


시민회관 우수작 모형_ 엄덕문 건축사 외 3인

建築士지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PDF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사정과 협회 방침에 따라 최신호는 월간지로만 배포합니다.







제1회 건축인체전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한국여성프로축구대표팀과 친선경기, 1:0으로 체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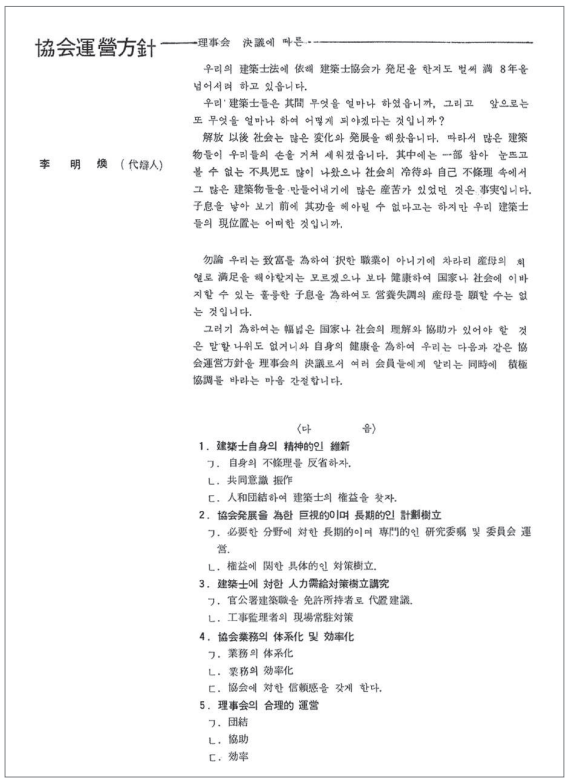
제1회 건축인체전이 1973년 6월 10일(강대웅 회장 당시)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개최됐다는 기사가 1973년 6~7월호에 화보로 소개돼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사에서는 "건축인의 친목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제1회 건축인체전이 개최되었다. 축구, 배구, 배드민턴 및 오락경기와 특별 친선경기로 치러진 한국여성프로축구대표팀 대 건축인축구대표팀과의 사상 유래없는 경기에서 건축인축구대표팀은 1:0으로 간신히 체면은 유지되었지만 기교면에서나 그 실력은 격찬할 만했다"고 논평했다.

여자프로축구팀과 열전을 벌인 경기

오락경기 장면

현수막



協会運營方針 ——理事会 決議에 따른 ——

李 明 煥 (代辯人)

우리의 建築士法에 依해 建築士協会가 発足을 한지도 벌써 満 8年을 넘어서며 하고 있읍니다.

우리' 建築士들은 其間 무엇을 얼마나 하였읍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무엇을 얼마나 하여 어떻게 되야겠다는 것입니까?

解放 以後 社会는 많은 変化와 発展을 해왔읍니다. 따라서 많은 建築物들이 우리들의 손을 거쳐 세워졌읍니다. 其中에는 一部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不具児도 많이 나왔으나 社会의 冷待와 自己 不経理 속에서 그 많은 建築物들을 만들어내기에 많은 産苦가 있었던 것은 事実입니다. 子息을 낳아 보기 前에 其功을 헤아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建築士들의 現位置는 어떠한 것입니까.

勿論 우리는 致富를 為하여 択한 職業이 아니기에 차라리 産母의 희열로 満足을 해야할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健康하여 国家나 社会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子息을 為하여도 営養失調의 産母를 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為하여는 幅넓은 国家나 社会의 理解와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自身의 健康을 為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協会運営方針을 理事会의 決議로서 여러 会員들에게 알리는 同時에 積極協調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 음〉

1. 建築士自身의 精神的인 維新
   ㄱ. 自身의 不経理를 反省하자.
   ㄴ. 共同意識 振作
   ㄷ. 人和団結하여 建築士의 権益을 찾자.
2. 協会発展을 為한 巨視的이며 長期的인 計劃樹立
   ㄱ. 必要한 分野에 対한 長期的이며 専門的인 研究委嘱 및 委員会 運営.
   ㄴ. 権益에 関한 具体的인 対策樹立.
3. 建築士에 対한 人力需給対策樹立講究
   ㄱ. 官公署建築職을 免許所持者로 代置建議.
   ㄴ. 工事監理者의 現場常駐対策
4. 協会業務의 体系化 및 効率化
   ㄱ. 業務의 体系化
   ㄴ. 業務의 効率化
   ㄷ. 協会에 対한 信頼感을 갖게 한다.
5. 理事会의 合理的 運営
   ㄱ. 団結
   ㄴ. 協助
   ㄷ. 効率

협회 운영방침 전문(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건축사지 지난호 보기 참조)

하루 빨리 우리의 실지를 회복합시다.

1973년 10월27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한창진(한정건축) 회장이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건축사지 11월호 취임사에서 "혹시 우리는 그러한 자존심과 긍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고 있든지, 팽겨 쳐버리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소연하며 "사모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우리의 실지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다시 씨앗을 뿌리고 부단히 노력하여 협동합시다"라며 취임 인사말을 맺었다.

이어 12월호(제61호)에서는 이명환 대변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른 '협회운영방침(좌측 그림)'을 밝히며 적극 협조를 당부한 5가지 협조사항을 밝혔다.

이사회 개최 현황

제5회 이사회

2014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 발간기획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의 건,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의 건, 경조비 규정 개정의 건,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회관임대 및 협회 사무공간 조정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 발간기획의 건
– 예산은 9,000만원(25,800,000원 증액)으로 조정하고, 추가제작 여부 및 비용조달 등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회 회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부의안건 |

● 제1호 :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정책위원회 검토안으로 승인하되, 인천건축사회 회칙개정안 중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한 제15조제1항제6호, 제25조제12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제9조(후보자등록), 제13조(현직임원의 후보자등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회장직선제 연구TF위원장 및 자문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근부회장의 검토를 받아 임시이사회(5월 21일)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시행일 :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
● 제4호 : 경조비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시행일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4조 및 별표 I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
● 제5호 :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시행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 다만 개정규정 제4조 및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제6호 : 회관임대 및 협회 사무공간 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사항 |

● 6월 9일 개최 예정인 협회장배 골프대회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9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함.

제1회 임시이사회

2014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5월 21일 오전 8시 STX리조트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 제1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 수정안 중 아래와 같이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제9조(후보자 등록) 관련
·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하는 방안 검토
▷제13조(현직임원의 후보자등 등록)
· 현직 임원의 후보자 등록시 사임의 형평성 문제 및 직무정지 방안 등 검토
● 제2호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사용목적 :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 및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2014년도 준비경비 부담금
▷예비비 사용승인 금액 : 30,000,000원

| 기타사항 |

●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대한건축사협회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충남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축사회가 동 건축물을 설계 · 감리한 소속 회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협에 보고토록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위원장 합동회의

제1회 위원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
– 2014년도 위원회 운영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함.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회의안건 등은 사전에 연구 ·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당부
▷위원회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회장에게 건의 방침을 정해서 회장이 결정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위원장이 회장에게 건의했으면 회장이 검토한 결과를 사무처가 반드시 위원장에게 알려주도록 함.
▷위원회 회의는 중요한 안건 및 시급한 사안 발생시 개최하여 당일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사무처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

제1회 인사위원회

제1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상근임직원 연봉책정(안) 협의 건

– 2014년도 협회 상근임직원 연봉책정(안)에 대해 사무처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한 후, 차기회의에서 연봉책정(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협의함.

●제2호 : 사무기구 직제 조정(안) 협의의 건

– 기획홍보실에 집중된 행사업무 중 전시사업팀에서 추진 중인 한국건축산업대전과 건축자재 추천 제도를 건축자재정보 DB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력관리실로 분산 조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

제2회 인사위원회

제2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상근임직원 연봉책정(안) 협의 건

– 2014년도 직원 연봉은 2013년도 연봉대비 4.6% 수준(예산 5%)에서 개인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함.

– 협회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무평정규칙 개정

▷보수체계 개편 및 관련 보수규정 개정

– 기본호봉제와 성과연봉(수당차등지급) 지급방안 등 보수체계 개편 등

▷연 · 월차 휴가 사용 권장방안 검토 등

제1회 남북건축교류협력위원회

제1회 남북건축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점검보고서 종합 검토의 건

– 백민석(아모스/주), 왕정한(화인레나운)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점검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1차 제출키로 함.

●제2호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약서(MOU) 검토의 건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협약서(MOU) 초안을 검토하고 첨부와 같이 수정하여 추진키로 함.

●제3호 : 사업 정상화 및 외부지원 연대 · 공조방안 검토의 건

– 개성공업지구 건축행정지원협력 사업을 위해 파견인력 선정, 인력풀 구성, 협력단체와의 협약추진 등을 검토함.

▷파견인력 선정 :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기준을 관리위와 재협의하고 파견인력 및 협회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인력풀 구성 : 현 위원들로 1차 재능기부형식으로 처리하고 업무 증가와 예산 반영이 될 때 외부 인사를 포괄하는 인력풀을 구성.

▷협력단체 협약 추진 : 협회와 관리위가 우선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축이 통합 · 관리하는 전제아래 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지난 도서검토에 참여했던 타 단체의 기술사들에게 사무처에서 비밀보안각서를 받기로 함.

●제4호 : 남북건축교류협력사업 활동계획 협의의 건

– 남북건축교류협력위원회의 사업추진(운영) 계획안을 제출키로 하되 추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수정 · 보완하기로 함.

제1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제1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 실시의 건

– 계속교육은 등록갱신자 등록증 교부 직후인 5월 말경에 패시브하우스 강좌, 국제계약의 이해, FIDIC 교육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함.

▷APEC등록건축사 등록 갱신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등록갱신자 등록증 교부 직후인 5월 말경에 실시하기로 함.

▷패시브하우스 강좌, 국제계약의 이해 강좌 연사는 위원장이 일정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섭외토록 하고, FIDIC 교육은 이근창 위원이 강연하기로 함.

●제2호 :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 회의 참가의 건

– APEC등록건축사 중앙이사회에는 협회장과 위원회 3인(김지덕, 이근창, 박제유)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함.

▷중앙이사회의 안건이 공지되면 APEC등록건축사위원회(필요에 따라 협회, 국토부와의 협의 고려)에서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내부 방침을 가지고 참석하기로 함.

●제3호 : 2014년도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일정 협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공고 2014년 4월 14일

▷접수 2014년 4월 21일~2014년 4월 30일

▷심사 2014년 5월 7일~2014년 5월 9일

▷등록증 제작 2014년 5월 12일~2014년 5월 16일

▷등록증 교부 2014년 5월 19일~2014년 5월 23일

●기타사항

– 외국건축사들이 국내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반면 국내 건축사들이 외국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에 따라 APEC건축사의 상호자격인정을 통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국내 APEC등록건축사제도의 프레임워크를 Domain Specific Assessment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김지덕 위원장이 작성한 대한민국 Domain Specific Assessment 운영방안에 대해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협회 및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추진하기로 함.

– APEC등록건축사 홈페이지 위원회 명단 메뉴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디자인을 좀 더 화려하게 개선하도록 함.

우리협회, '세월호 참사' 구호성금 지원 및 합동 조문

우리협회는 지난 5월 15일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건축사회 김인철 회장 및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안산에 위치한 정부합동분양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협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을 위해 시도건축사회,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 중이며, 성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 설치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4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 동부지역건축사회와 양평지역건축사회를 분리 ·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분리된 양평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21명으로, 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440-4번지이다.

우리협회, 2014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 재선정

우리협회가 2014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으로 재선정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4일 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교육기관 재선정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윤대길 위원장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발표회 이튿날인 4월 25일 협회를 포함한 계명대, 명지대, 전북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중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6월 초에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공고를 내고 7월 초에 개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지난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 올해에도 우수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창의력 및 기술력 등 설계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력 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의 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의 기반을 제공하여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응모자격은 공모일(5월 16일) 현재 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중 본인 단독설계로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건축사다. 지난 5월 21일~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참가자 수는 총 41명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신청자는 6월11일~20일까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1차 포트폴리오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 1점, 최우수상 2점)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우수상 7점 이내)의 수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며, 중앙 ·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 · 시범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대상 담당자(02-3415-6841, 6849)

건축계 소식

제6회 심원건축학술상 수상작 발표

심원건축학술상의 제6회 수상작으로 이연경(연세대) 교수의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가 선정됐다.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는 지난 2008년부터 건축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전도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원건축학술상을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맡은 배형민(서울시립대), 안창모(경기대 대학원), 전봉희(서울대) 교수는 "개항 이후 도성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인 거류지'의 실체를 공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작이 관심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자료의 분석과 담론에 남아있는 문제는 향후의 작업을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수상자 이연경 교수는 "우리 도시에는 이미 그들이 남겨 놓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지금의 도시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거류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6월 27일 오후5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소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 초청 강연회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작에게는 상금(고료) 1,000만원이 수여되며, 해당 원고에 대한 출판이 지원된다.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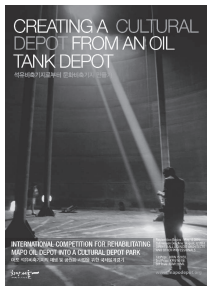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월 20일(화)~6월 13일(금)까지이며, 건축사, 건축사시험응시자격자, 건축분야기술사 등 건축관련 종사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에 대비하고, 한옥건축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알찬 교육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본 사업에 3년 연속 교육기관으로 선정, 올해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 · 운영한다.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인원은 48명 내외로 제한하며, 개강 후 약 23주간 19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의 목적에 맞는 설계실무 중심으로 실시되며,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설계스튜디오, 답사,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 수료 후에도 교육생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 지원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5시간)이 인정된다.
교육은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및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교육팀(02-3415-6879)

2014년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은 2014년도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한옥문화원이 주관하는 2014년도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 설계와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하나다.
한옥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한옥 활성화와 함께 한옥 신축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옥 설계, 시공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업무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계 · 건축계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 등 우리나라 한옥 분야 최고의 강사진이 교육의 전 과정을 이끌게 된다.
교육기간은 전문 건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며, 한옥총론, 한옥시공과 관리의 이론과 실습, 특강,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5월 19일(월)~6월 13일(금)까지이고, 선발 인원은 25명이다. 선발자 발표는 6월 17일 개별 통보 및 (사)한옥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문의 : 한옥문화원(02-741-7441, urihanok@naver.com)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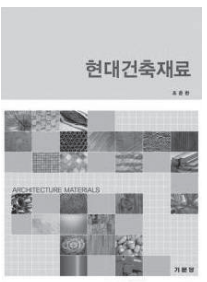


서울시는 그동안 수립한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탱크와 주변의 토지자원을 활용,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화)~8월 12일(화)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아이디어공모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하는 시민의 장소'이며, 공연 · 강연 · 정보교류 · 전시 · 체험 기능 도입을 제안했다. 큰 틀에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매봉산 속에 5개의 거대한 석유탱크가 매설된 산업유산으로서 갖는 장소적 가치와 석유탱크 내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석유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이 일대 10만1,510㎡를 아우르는 하나의 친환경 공원을 설계하면 되며, 내부시설은 전체 연면적 5,400㎡ 이내에서 ▲공연 ▲정보교류 ▲전시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하면 된다.
5인 이내 1팀을 이뤄 공동응모하면 되며, 단독 응모도 가능하다. 이때 1명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총 13작품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1등 당선작(1작품)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2등작(1작품)에게는 5,000만원, 3등작(1작품) 2,000만원, 가작(10작품 이내) 1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된 작품은 8월 20일 기술심사를 시작으로 8월 21일~23일까지 본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9월 12일~19일까지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국내외 건축 및 조경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특히 지난해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이토 도요가 위촉됐으며, 국내에서는 조성룡 교수(성균관대), 김승회 교수(서울대) 등이 위촉됐다.
참가등록 및 공모관련 세부내용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전용 홈페이지(www.mapodepo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간안내

현대건축재료

조준현 저 | 620쪽 | 기문당



다양한 건축재료들은 건축사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며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재료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물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건축재료는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속성과 재료가 갖는 의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재료에 대한 지식과 방식의 적용은 건축을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현대건축재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통찰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료가 가지는 물성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펴낸 것이다.

못된 건축 : 도시를 살리는 건축 도시를 망치는 건축

이경훈 저 | 312쪽 | 푸른숲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원으로 도시를 연구하는 이경훈(국민대) 교수는 2011년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이후 펴낸 두 번째 책 「못된 건축」에서 도시의 건축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독해법을 알려준다. 건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들려주는 가이드북인 셈이다. 건축과 도시,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따스하고 친절한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에두르지 않는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서울의 대표 건축을 콕 집어 설명하고, 서울을 살리는 건물로 DDP와 동십자각 앞의 트윈트리타워를 내세운다.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건물은 랜드마크와 흉물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5월중순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347	6,347	77	154	7	21	6,431	6,522	1,825	1,825	235	470	57	171	26	104	16	108	2,159	2,678	8,590	9,200
서울	971	971	21	42	0	0	992	1,013	901	901	125	250	37	111	13	52	11	67	1,087	1,381	2,079	2,394
부산	555	555	9	18	2	6	566	579	112	112	30	60	3	9	2	8	1	7	148	196	714	775
대구	551	551	14	28	4	12	569	591	71	71	13	26	3	9	3	12	0	0	90	118	659	709
인천	299	299	3	6	0	0	302	305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73	385
광주	233	233	1	2	0	0	234	235	52	52	5	10	2	6	2	8	1	5	62	81	296	316
대전	272	272	5	10	0	0	277	282	36	36	9	18	3	9	1	4	1	14	50	81	327	363
울산	204	204	4	8	0	0	208	212	22	22	3	6	0	0	0	0	0	0	25	28	233	240
경기	900	900	2	4	0	0	902	904	274	274	13	26	6	18	1	4	0	0	294	322	1,196	1,226
강원	201	201	2	4	0	0	203	205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35	242
충북	234	234	2	4	0	0	236	238	44	44	4	8	2	6	2	8	1	9	53	75	289	313
충남	309	309	1	2	0	0	310	311	63	63	8	16	0	0	1	4	0	0	72	83	382	394
전북	281	281	5	10	0	0	286	291	31	31	4	8	0	0	0	0	0	0	35	39	321	330
전남	220	220	0	0	0	0	220	220	23	23	1	2	0	0	0	0	1	6	25	31	245	251
경북	447	447	4	8	1	3	452	458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501	512
경남	518	518	4	8	0	0	522	526	41	41	4	8	0	0	0	0	0	0	45	49	567	575
제주	152	152	0	0	0	0	152	152	19	19	2	4	0	0	0	0	0	0	21	23	173	17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200	100%
서울	2,394	26.02%
부산	775	8.42%
대구	709	7.71%
인천	385	4.18%
광주	316	3.43%
대전	363	3.95%
울산	240	2.61%
경기	1,226	13.33%
강원	242	2.63%
충북	313	3.40%
충남	394	4.28%
전북	330	3.59%
전남	251	2.73%
경북	512	5.57%
경남	575	6.25%
제주	175	1.9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5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389	2,965
서울	3,915	1,965
부산	774	122
대구	683	81
인천	383	8
광주	306	67
대전	362	52
울산	235	35
경기	1,445	130
강원	260	23
충북	325	73
충남	384	75
전북	336	33
전남	275	65
경북	491	30
경남	607	61
제주	178	43
기타	1,430	102
비고	회원 : 9,032 / 비회원 : 3,357	대학 : 2,715 / 대학원 : 250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522	2,678	9,200	
비율	70.89%	29.11%	100%	
사무소수	6,431	2,159	8,590	
비율	74.87%	25.13%	100%	